



제15회
해외동포목회와 교육정책 협의회
2019.6.4-6

2019 제15회 해외동포 목회와 교육정책협의회 일정

6월 4일(화) 첫째날

17:30- 18:00	준비(등록)
18:00-19:30	환영만찬
개회예배	
20:00-21:00	사 회 나 삼 진 목사 (재미총회 교육위원장, 준비위원장)
	기 도 권 종 오 목사 (총회교육원 이사)
	설 교 박 석 현 목사 (재미총회 총회장)
	환 영 사 한 총 기 목사 (애틀란타 늘푸른장로교회 담임)
	격 려 사 박 영 호 목사 (총회교육원 이사장)
	축 도 남 우 택 목사 (대양주총회 증경총회장)
	프로그램안내 박 신 응 목사 (총회교육원 원장)
	나 삼 진 목사 (재미총회 교육위원장, 준비위원장)
21:00-21:30	협의회1

6월 5일(수) 둘째날

06:00-07:00	경건의 시간
07:00-08:30	아침식사
08:30-09:00	교회로 이동

주제 포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목회와 교육

- 09:00-12:00
1. 영상강의 - 제4차 산업혁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만날 미래 (김종수)
 2.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의 공공성 (송영목)
 3.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독교 교육이 나아갈 길 (박신웅)
 4. 인공지능 개발자 레이 커즈웨일에 대한 인식론적 조망과 기독교 교육의 대응 (김성완)
-발표와 토론-

12:00-13:30	점심식사
-------------	------

목회 포럼

- 13:30-18:00
1. 고신 교회의 역사와 신앙(나삼진)
 2. 목회자 리더십 리더의 새로운 사역 구상 101(남우택)
 3. 예배 중심의 목회, 예배중심의 리더십 훈련(전남수)
 4.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교회 제자양육 훈련(오승균)

18:00-19:30	저녁식사
-------------	------

연합집회

- 20:00-21:00
- | | | |
|---|---|---------------------------|
| 사 | 회 | 정지호 목사 (재미총회 총무) |
| 기 | 도 | 오승균 목사 (총회교육원 이사) |
| 설 | 교 | 박대근 목사 (재미총회 교육위원, 증경총회장) |
| 축 | 도 | 박영호 목사 (총회교육원 이사장) |

21:00-21:30	다과회
-------------	-----

6월 6일(목) 셋째날

06:00-07:00	경건의 시간
07:00-08:30	아침식사
08:30-09:00	교회로 이동

교육 포럼

- 09:00-12:00
1. 목회자의 스트레스와 탈진의 문제 : 이민 교회 목회자 탈진(김영준)
 2. 목회와 교육 좌담회: 한인교회의 목회와 교육
(나삼진, 강상석, 전성철, 최규태, 한태일)
 3. 디아스포라 시대 목회 협력 방안(정지호)

12:00-13:30	점심식사
13:30-15:00	협의회2

폐회예배

15:00-16:00	사	회	박 신 응 목사 (총회교육원 원장)
	기	도	강 상 석 목사 (재미총회 교육위원)
	설	교	박 영 호 목사 (총회교육원 이사장)
	축	도	박 석 현 목사 (재미총회 총회장)

목차

머리말 • 제15회 해외동포 목회와 교육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박영호) - 8

주제 포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목회와 교육

• 영상강의 - 제4차 산업혁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만날 미래 (김종수)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의 공공성 (송영목) - 13

• 제4차산업혁명시대에 기독교 교육이 나아갈 길 (박신웅) - 25

• 인공지능 개발자 레이 커즈웨일에 대한 인식론적 조망과
기독교 교육의 대응 (김성완) - 41

목회 포럼

- 고신교회의 역사와 신앙 (나삼진) - 69
- 목회자리더십 - 리더의 새로운 사역 구상 101 (남우택) - 81
- 예배중심의 목회, 예배중심의 리더십 훈련 (전남수) - 89
-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교회 제자양육 훈련 (오승균) - 131

교육 포럼

- 목회자의 스트레스와 탈진의 문제 : 이민 교회 목회자 탈진 (김영준) - 137
- 목회와 교육 좌담회 : 한인교회의 목회와 교육
(나삼진, 강상석, 전상철, 최규태, 한태일) - 153
- 디아스포라 시대 목회 협력 방안 (정지호) - 155

부록

- 영상강의 PPT자료 (김종수) - 162
-

머리말

제15회 해외동포 목회와 교육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제15회 해외동포 목회와 교육정책협의회에 오신 각국 총회 대표들과 참여해 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협의회가 어느덧 15회를 맞았습니다. 고신총회의 요청으로 시작된 이 협의회는 그간 해외 한인교회와 한국총회 간의 목회와 교육에 관한 상호협력 증진에 힘써 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제15회 해외동포 목회와 교육정책협의회는 미주총회와 미주총회 교육위원회의 도움으로 미국의 애틀란타 늘푸른장로교회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지하듯이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변화 속에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교회성장이 멈추고 젊은 세대가 떠나고 있고, 외적으로는 고령화와 세속화의 물결로 인해 더 이상 성경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로 진입하면서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느라 정작 영원한 것을 추구할 시간을 잃어가는 세대 속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 제15회 해외동포 목회와 교육정책협의회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목회와 교육”라는 주제로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에 교회와 목회가 어떠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정책협의회는 진지하고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교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끝으로 이 정책협의회가 열리는 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미주총회, 미주총회교육위원회, 총회교육원 그리고 무엇보다 장소와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신 애틀란타 늘푸른장로교회의 한충기 목사님과 당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되는 집회와 순서를 통해 참가하신 각국의 대표들과 참석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많은 유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총회교육원
이사장 박영호 목사

해외동포 목회와 교육 정책협의회가 걸어온 길

<해외동포 목회와 교육 정책협의회 개최 일람>

회수	기간	장소	주제
1	2005. 6.16-17	한국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해외한인교회의 목회와 교육
2	2006.6.5-7	미국 Evangelia University	개혁주의 교회의 목회와 교육
3	2007.6.4-9	뉴질랜드 한우리교회	현대 개혁주의 교회의 목회와 교육
4	2008.6.16-18	한국 서울팔레스호텔	목회와 교육 리더십
5	2009.9.15-18	일본 동경 YMCA호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 리더십 어떻게 세울 것인가?
6	2010.6.2-4	독일 회이스트 수도원	건강한 교회의 교육과 선교
7	2011.6.6-8	미국 웨드럴웨이 제일장로교회	21세기 목회와 교회의 부흥
8	2012.6.12-14	한국 고신대학교, 리베라호텔 여수 애양원	고신교회의 역사와 이념의 현대화 대중화
9	2013.4.29-5.2	웨일즈 Wild step 훈련센터	유럽교회를 통해 목회와 교육을 배운다
10	2014.5.27-29	호주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해외동포 목회와 교육정책협의회 10년과 미래전망
11	2015.6.16-17	한국 안성레이크힐스 호텔	가정과 함께하는 교육목회
12	2016.6.22-24	한국 순천 에코촌유스호스텔 신안 엘도라도리조트	신앙의 대를 잇는 교육목회
13	2017.6.20-23	뉴질랜드 한우리 교회	다음세대를 살리는 목회와 설교
14	2018.6.5-6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지역사회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목회와 교회교육
15	2019.6.4-6	미국 애틀란타 늘푸른장로교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목회와 교육

* 제10회 협의회 이후부터 해외지역 교회 교역자 및 교사를 위한 세미나를 병행하기로 함

주제포럼

- 영상강의 - 제4차 산업혁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만날 미래 (김종수)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의 공공성 (송영목)
-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독교 교육이 나아갈 길 (박신웅)
- 인공지능 개발자 레이 커즈웨일에 대한 인식론적 조망과
기독교 교육의 대응 (김성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의 공공성

송영목 교수(한국총회 고신대학교 신학과)

들어가면서

먼저 몇 차례에 걸친 산업혁명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자. 1760년 영국에서 시작된 제1차 산업혁명으로 철도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생산 설비를 구축했다. 100년 후 1870년경 전기와 통신기술의 발명으로 제2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했다.¹⁾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2차 산업혁명의 혜택만 누리는 이들이 전체 인구의 17%에 해당할 정도다.²⁾ 1990년대 제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자동화가 특징이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2010년 이후 제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고 있다. 2011년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 에서 “Industry 4.0”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고,³⁾ 널리 유행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실용적 낙관론자인 클라우제 슈밥(Klaus

1) K. Schwab, 『제4차 산업혁명』,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송경진 역, 서울: 새로운 현재, 2016), 25.

2) 전요섭,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기독교상당적 대응,” 『신학과 실천』 61 (2018), 178. 참고로 2016년 통계에 의하면, 해외에 사역 중인 한국 선교사들의 대부분은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모르고, 4차 산업혁명이 선교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선교사의 절반가량은 기술 혁신 시대에 선교 사역의 변화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S. S. C. Moon, “Missions from Korea 2017: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Missions,”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41/2 (2017): 124, 126.

3) Schwab, 『제4차 산업혁명』, 26; 임창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교육 방향성 제고,” 『기독교교육논총』 56 (2018), 15, 19.

Schwab) 회장이 처음 사용했다.⁴⁾

독일, 미국, 일본, 중국, 한국(2017년의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장병규)⁵⁾ 등에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새로운 시대를 발 빠르게 연구하고 대비 중이다.⁶⁾ 그런데 교회, 목회, 기독교 학문 제 분야의 대비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그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개념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성경적 조명과 평가,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교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차례로 살핀다.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라고⁷⁾ 정의할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은 초연결(hyper-connectivity), 초스피드, 자동화, 그리고 초(인공)지능(super-intelligence)이다. 그리고 물리학/생물공학/디지털/인지학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개인과 정부와 민간기업 등 모든 시스템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⁸⁾ 이런 변화에 대응하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기업과 시민단체의 협력뿐 아니라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긍정적이고 보편적인 담론도 필요하다.⁹⁾

4) 김정준,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목회의 새 전환: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55(2018), 50. 한국교회는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줄 유익만 강조하는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 박현신,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대한 인문학적 질문과 실천신학적 응전,” 『복음과 실천신학』 48 (2018): 52-53.

5) <https://www.4th-ir.go.kr>.

6) 아래는 2017-2018년에 출판된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서의 일부 목록이다: GS인터비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통신』 (서울: GS 인터비전, 2018); 김성준, 『4차 산업혁명과 해운산업』 (서울: 해안, 2018); 박기영,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경쟁력』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7); 김연중 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스마트 농업 발전방안』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산업경쟁력연구본부, 『4차 산업혁명이 한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서울: 산업연구원, 2017); 이승일, 『4차 산업혁명과 건설산업의 혁신』 (서울: 창조와 지식, 2017); 황승현, 『4차 산업혁명과 건설의 미래』 (서울: 씨아이알, 2017); 신동엽 외, 『4차 산업혁명, 일과 경영을 바꾸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8); 김동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적 경영전략』 (서울: 월드인재교육원, 2017); 조용석, 『4차 산업혁명 마케팅 광고』 (서울: 한연, 2017); 이화영,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직업 이야기』 (서울: 드림리치, 2018); 미래산업리서치, 『4차 산업혁명 시 섬유, 의류산업의 분야별 기술 시장 전망』 (서울: 미래산업리서치, 2018); 최병관 외,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의료서비스 관리』 (서울: 청구문화사, 2017); 김규찬·이성민, 『4차 산업혁명과 문화, 산업 정책 방향』 (서울: 한국문화연구원, 2017); 이세빈, 『4차 산업혁명 자녀』 (서울: 일일사, 2018); 김병호·이창길, 『4차 산업혁명과 교육』 (서울: 책과 나무, 2018).

7) <https://www.4th-ir.go.kr/#this>(2019년 2월 10일 접속).

8) 이동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DANO 개념과 종교개혁신학의 한국교회에 대한 윤리적 요청,”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8 (2018), 170; 임창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교육 방향성 제고,” 20.

9) Schwab, 『제4차 산업혁명』, 28, 57.

그러나 이런 기술 융합으로 인한 역기능과 부작용도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파괴적이고 (예. 군사용 드론) 무신론적 기술 문명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초연결의 대명사 격인 Io(A)T(Internet of [All] Things; 혹은 IoE[Internet of Everything])는¹⁰⁾ 디지털 문맹자들이나 먼대면의 인격적 교제를 원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단절과 외로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예. 사이버 고독).¹¹⁾ 사람의 생활의 모든 면이 인터넷과 빅 데이터에 연결되어 정보화되고 생활이 편리해질 것이지만(참고. 디지털 정체성), 사생활이 침해될 당하고,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여 사라질 직업이 많아 질 것이다.¹²⁾ 또한 저개발국이나 노년층에서는 혁신적인 기술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수평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상호 인격적인 공감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¹³⁾

교육 분야로 한정해서 생각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온라인과 사이버 강의를 넘어 디지털 플랫폼형 대학 교육이 정착되고(참고. MOOC),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블렌디드(blended) 및 평생 교육 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성경적 조명과 평가

산업혁명 이전의 농경 시대에 기록된 성경은 최첨단 과학 시대의 도래와 문화의 혁신을 예고하는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힌트를 주는 성경 본문이 있는가? 지금부터 수 천 년 전, 그것도 주로 그 당시의 특정 상황 안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21세기 현상에 대해 속 시원한 설명과 해답을 줄 것이라 기대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현대 문제에 대해 간접적이거나 원론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하나님의 형상, 아담의 타락, 그리고 문화명령을 통해 본 제4차 산업혁명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imago Dei)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후 문화명령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데 주력하기보다, 자신의 형상(imago hominum)과 능력을 닮은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 삶의 편리를 추구한다. 또 다른 한편, 사

10) 김성원, "제4차 산업혁명과 교회론의 방향," 『영산신학저널』 42 (2017): 188.

11) 전요섭,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대응," 193.

12) Schwab, 『제4차 산업혁명』, 52, 70. 참고로 "로보칼립스"(robocalypse)는 "로봇"과 "묵시"의 합성 신조어인데,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세계를 비극적 종말로 이끌 것을 예견한다. 전요섭,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대응," 182.

13) 윤승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회의 역할과 방향," 『신학과 실천』 58 (2018): 618.

랍은 하나님의 특성을 소유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은 “데이터 처리 능력을 신봉하는 종교”를 가지고, 무소부재(유비쿼터스)와 불멸의 하나님(homo Deus)처럼 되고 싶어한다.¹⁴⁾ 하지만 사람이 이루어 놓은 기술문명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면, 사람은 기계(machine-sapience)나 짐승처럼 비인간화된다.¹⁵⁾ 그러므로 무신론적 기술 사회를 예방하기 위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건(창 3)과 바벨탑 사건(창 11)의 실패를 기억해야 한다.¹⁶⁾ 왜냐하면 사람이 신인(神人)이 되려는 것은 교만이자 자신을 신격화하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람은 하나님과 자연과 사물과의 바른 관계를 성경적으로 성찰하여 정립하고, 승자독식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공공선의 회복을 추구해야 한다. 이미 독일에 AI목사 곧 로봇 설교자가 출현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혈육을 가진 거듭난 영혼의 소유자에게만 진정으로 의미가 있다.¹⁷⁾ 그리고 딥러닝(deep learning)이 AI에게 필수적이라면, 거듭난 생령(living being)에게는 깊은 영성(deep spirituality)이 필요하다.¹⁸⁾

종말의 현상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는 구절에서 본 제4차 산업혁명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했던 사도 시대 보다 2000년이 지난 21세기는 재림이 훨씬 가까워졌다.

16

(1) 마 24:36이하의 재림 전의 상황 묘사에서 사고 팔며, 시집가고 장가가기에 몰두하는 장년은 영적인 일이나 최후 심판에 무관심하고 일상에만 집착한 상태다. 물론 이런 현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이다.

(2) 눅 12:19에 의하면, 어리석은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스스로 말한다. 그러나 재물을 가진 자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부요해야 한다(눅 12:21). 부자가 빈자를 돕는 것은 부의 양극화가 심해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14) Y. N. Harari, 『호모 데우스: 미래의 역사』 Homo Deus: A Brief History of Tomorrow, 김영주 역, (서울: 김영사, 2017), 503.

15) 이완형, “인공지능 상용화에 따른 성경적 관점의 윤리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16/4 (2018): 118.

16) 정미현, “초빙글리 신 인식을 통한 윤리적 문법 이해: 4차 산업혁명의 역기능을 중심으로,” 『신학연구』 71 (2017): 181-184.

17) 김병석, “급변하는 사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시대의 예배와 설교의 위치,” 『신학과 실천』 59 (2018): 158, 161. 참고로 빅데이터를 초공유하는 시대가 되면 설교자의 표절은 목사의 양심 문제로 남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전 세계 목사들은 물론 빅데이터와 경쟁하게 될 것이다. 설교는 성경의 자료 분석을 넘어, 회중의 실제 삶에 복음을 적용하며 실천하도록 도전해야 한다. 오현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목회적 대응,” 『복음과 실천신학』 48 (2018): 93.

18) 김병석, “인공지능(AI) 시대, 교회공동체성립요건연구: 예배와 설교 가능성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40 (2016), 12, 14, 25, 33. 교회는 “사이버 영생, 가상 낙원을 꿈꾸는 ‘테크노 종교’, 그리고 ‘테크놀로지 유토피아’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박현신,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대한 인문학적 질문과 실천신학적 응전.” 61.

절실하게 필요하다.

(3) 딤후 3:2-4에 따르면, 말세의 징조는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한다. 앞으로 신기술을 가진 자는 부와 편리함과 쾌락을 더 독점하며 그 기술을 우상시 할 것이다.

(4) 벵후 3:3에 따르면,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살도록 회개해야 하는데(11절), 결국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기 때문이다(12절).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개발된 인간의 기술과 문명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할 것이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은 기술문명 중에서도 주의하고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참고, 롬 13:14; 고후 5:17; 갈 3:17; 골 3:10).

(5) 계 21:8의 새 예루살렘 성 밖의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우상숭배인데, 21세기 그리스도인은 기술을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 즉 기술을 무소부재하거나 전능한 하나님처럼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생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기술을 거부해야 한다. 그러나 참 지혜이신 예수님과 그분을 섬기는 기술과 문화는 신천신지(계 21:1)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6) 혁신과 혁명을 일으키는 장래의 어떤 일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를 끊을 수 없다(롬 8:38). 오메가이시며 승리하신 예수님은 지혜의 자녀들을 어느 시대에나 돌보신다.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시대마다 교회가 혁신과 혁명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세상을 섬기려는 기회로 삼아야 했다.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도 교회는 위축되지 말고, 대신 복음과 교회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회와 개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함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문제점은 기술에 대한 맹신 혹은 우상, 기술을 누리는 이와 그렇지 못한 이 사이의 양극화, 기계가 대체한 인간 노동(창 1:28)의 존엄성 훼손, 실직, 쉼 사이

없이 연결되어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위협받는 인간의 안식, 그리고 기술 집착으로 인한 물질만능주의와 이것에 따른 인간성 피폐화 등이다.¹⁹⁾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비판적 사고, 인성 교육, 다중 지능(관계 상황 맥락[상황을 인지하고 결과를 예측함], 정서[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결합하여 타인과 적절한 관계를 맺음], 영감[타인과 공감하며 의미와 목적을 탐구], 신체[건강과 행복을 추구]) 함양,²⁰⁾ 주입식 혹은 지식 암기 중심이 아닌 자기 주도적 학습, 창의성과 소통과 협업(공감), 유연성과 글로벌 사고, 인문학과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²¹⁾

위의 대비책을 목회와 교회 교육도 접목해야 함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일반적 논의에서 신앙이나 성령님의 역할은 찾아볼 수 없다. 위에서 대비책 가운데 다중 지능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상황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감정과 영혼을 다스리시고,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창의성을 주시고, 하나님 및 사람 사이의 교제를 촉진시키시기 때문이다.²²⁾

교회는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전도를 오프라인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사람이 디지털 기계와 더불어 일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성령충만을 통한 전통적인 영성을 배워야 한다.²³⁾ 집중력과 사고력이 퇴보할 경우 성령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²⁴⁾ 앞으로 더 자극적이고 즐거움을 주는 기계 놀이(예. VR, AR)에 빠져들 것이다.²⁵⁾ 제3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도 이미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이들이 많고 그들은 영적 생활에 무

19) 김효숙,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목회,” 『기독교교육정보』 58 (2018): 131; 조성호, “4차 산업혁명시대와 기독교 영성의 발전 방안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48 (2018): 158-61.

20) 김정준,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목회의 새 전망,” 70-72.

21) 임창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교육 방향성 제고,” 25, 28, 33-37.

22) 정미현, “초빙글리 신 인식을 통한 윤리적 문법 이해,” 204.

23) 기술이 발전되더라도 교회는 사람의 죄성과 유한성과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기도와 예배로써 구원의 하나님과 겸손하게 교제하는 법 등을 강조해야 한다. 김병석, “급변하는 사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시대의 예배와 설교의 위치,” 172.

24) 김성원, “제4차 산업혁명과 교회론의 방향,” 212.

25)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은 게임 속 세계와 실제 세계를 연결한다.” 양성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교육의 방향에 관한 고찰: 자동화와 연결성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59 (2018), 569, 583. 참고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글로벌화와 같은 새로운 급변한 상황(예. 이집트제국, 바벨론제국, 로마제국)에 직면하여 적응한 사례로부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통찰력을 배울 수 있다고 보는 P. Pitkänen, “Humans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ading the World and the Canonical Word,” 『Canon & Culture』 12/2 (2018): 6-7, 31.

관심하다. 따라서 주님의 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천국의 의와 기쁨과 평강을 맛보도록 목양할 목회자의 철저한 영성 계발은 기독교의 최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²⁶⁾ 환언하면, 복음 진리(book smart)와 경험과 실천(street smart)이 융합된 “깊은 영성”(deep spirituality)을 요청한다.²⁷⁾ 그리고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수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성의 저하와 더불어 심화될 교회의 고령화도 대비해야 한다.²⁸⁾

목회 방침으로는 실업자 대비, 빈부격차와 사회 갈등 대비, 그리고 새로운 윤리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²⁹⁾ 문화명령 구절을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따르는 환경 파괴의 면죄부 구절로 오용한 경우가 있듯이, 인간의 탐심에서 작동된 인공지능의 무분별한 개발은 환경과 인간성을 탄식과 파멸로 이끄는 “21세기 선악과”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참고. 롬 8:22).³⁰⁾

빅 데이터와 초연결 시대에 교회는 더 투명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해야 한다. 그리고 온 세상의 정보를 기계와 연결되어 접하면서 기계 앞에 선 인간이 되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다시 기도와 복음으로써 하나님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한다.³¹⁾ 교회는 창의적인 그리스도인 육성을 위해, 학습자가 배움의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교회 교육, 성경의 정보를 분석하도록 돕는 멀티미디어나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 창의적 수업, 역량 기반 수업, 토론식 수업을 활성화해야 한다.³²⁾ 그리고 디지털 세대의 특징인 “개방, 공유, 참여”를 교회 교육과 예배로 끌어들이

26)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감안하고, 자연을 포함한 전반적인 관계를 아우르는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 이완형, “인공지능 상용화에 따른 성경적 관점의 윤리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132; 조성호, “4차 산업혁명시대와 기독교 영성의 발전 방안 연구,” 169.

27) 이것은 윤승태의 용어다. 윤승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회의 역할과 방향,” 616.

28) Schwab, 『제4차 산업혁명』, 59.

29) 김정준,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목회의 새 전망,” 81-82. “4차 산업혁명으로 윤리분야에 ‘인공지능 윤리’, ‘지능정보사회 윤리’, 또는 ‘4차 산업혁명 윤리’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 로봇윤리 기구 ORI(Open Roboethics Institute)에서는 로보공학의 윤리, 법률, 사회적 이슈 등을 검토하는데, 킬러로봇을 중단하라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완형, “인공지능 상용화에 따른 성경적 관점의 윤리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121.

30) 이완형, “인공지능 상용화에 따른 성경적 관점의 윤리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133-34.

31) 김성원, “제4차 산업혁명과 교회론의 방향,” 201-202, 215.

32) 김정준,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목회의 새 전망,” 78. “학습공간은 학습방법과도 함께 연됨으로 심층학습(Deeper Learning)의 교육방법이 주목받을 것으로 추측된다. 심층학습은 학습자가 수동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의 능력을 양육하면서 지식의 깊이와 학습자간에 협업의 역량을 키워 주는 것이다. 이에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경험을 중시하는 학습법으로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 도전과제 기반 학습(challenge-based learning), 탐구기반 학습(inquiry-based learning)과 같은 심층학습의 교육으로 변화할 것이다.” 양성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교육의 방향에 관한 고찰,” 576, 584.

이는 방안도 필요하다.³³⁾

양성진에 의하면, 감각, 이성, 직관, 신념, 행위, 관계, 그리고 몸을 통한 앎의 지식이 필요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블렌디드의 교회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성경 지식은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 활동은 면대면 학습 안에 구성하여 학습자의 지식 구성과 공감과 변화가 일어나는 변형적 앎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한다.³⁴⁾ 이를 위해 교회 예산과 인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개방형 의사소통과 초연결 네트워크 시대에 교회가 더 투명한 체질로 개선하고 세상과 소통을 강화해야 복음과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선교적 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³⁵⁾

지상명령과 문화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개별 그리스도인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활용해야 함

교회는 장차 기술만능시대에 영생의 복음과 진리 자체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술 자체를 배격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은 문화명령을 수행해야 하기에 기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잘 다스려 활용해야 한다.³⁶⁾ 그러나 인공지능이 복음을 대체할 수 없으며, 영혼을 치유하여 영생을 줄 수도 없음을 분명하다.

스마트폰보다 더 흥미롭고 자극적인 기계와 로맨스에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단절된다면, 결국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될 것이다.³⁷⁾ 첨단 기술문명 시대에도 사람을 구원하고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

33) 계제광,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 세대에 적합한 리더십을 위한 연구,” 『신학과 실천』 62 (2018), 594.

34) 양성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교육의 방향에 관한 고찰,” 585-91.

35) 이동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DANO 개념과 종교개혁신학의 한국교회에 대한 윤리적 요청,” 183-87. 교회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디지털 소수에게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오현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목회적 대응,” 94.

36) 한천설, [권두언]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교회의 미래, 『신학지남』 84/4 (2017): 4-6.

37) 전요섭,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대응,” 194-97. 앞으로 비인간화와 불안이 가중되면, 크리스천의 유신론적 과학 연구와 영성지향적 상담이 더 요청될 것이다. 빅 데이터 분석과정이 상담과정과 비슷하기 상담에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상담자는 내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분석하지만, 빅 데이터는 객관적 정보를 기반으로 작용하는 차이가 있다. 빅 데이터 활용은 상담에서 자료수집과 진단에서 경비와 시간을 줄이고, 자료분석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여한구,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독교 상담과 심리치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세미나 자료집 (2018), 262-65.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한구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은 문화가 아닌 융합을 추구하는데, 하늘과 땅을 융합하신 예수님처럼 목회와 상담에도 융합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과 가상, 인간과 기계, 인간 활동과 기술적 활동, 공적 삶과 사적 삶의 구분은 필요하다. 김효숙,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목회,” 117-19.

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삶이라고 가르치셨는데(마 22:37-39), 모든 시대에 걸쳐 믿음은 적극적인 사랑과 봉사로 표현하는 삶으로 기독교공동체와 사회 속에 구현되어야 한다(참고. 눅 10:30-37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³⁸⁾

환경의 청지기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미세먼지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환경오염을 해결할 융합 기술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탄식하는 피조물도 사람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재창조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나오면서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생소하거나 부정적인 단어가 자주 회자되는 현실이다: 초연결, 초지능, 기계 인간, 생명공학을 통한 생명 연장, 자율주행 수소자동차, 로보칼립스, 로봇 윤리, 스마트 시티, 사이버 고독, 게이미피케이션, 디지털 거버넌스, 디지털 문맹, 디지털크라시(digitalcracy), 종말론적 인공지능 등³⁹⁾ ...교회는 뱀처럼 지혜롭게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대처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혁명과 같은 변화를 오히려 공의와 사랑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초연결 시대에 교회는 소위 가나안 성도와 이른바 잠재적인 그리스도인과 적극적으로 연결하여 교제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⁴⁰⁾ 하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볼 때, 무엇보다 교회는 예배, 교육, 교제, 전도를 더 통전적으로 연결하여 강화해야 하며, 하나님나라의 관점에서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와 세계

38) Pitkänen, "Humans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2; 이완형, "인공지능 상용화에 따른 성경적 관점의 윤리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128-29; G. Christianson, "Lutherans face the Industrial Revolution: Awakening Social Justice and Diakonia," *Seminary Ridge Review* 7/2 (2005), 30.

39) "로봇과학자 한스 모라벳(Hans Moravec)과 인공지능 창시자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Lay Kurzweil)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류와 세계를 향상시키는 환상인 낙원을 묘사한다. 특히, 모라벳과 커즈와일을 비롯한 종말론 인공지능(apocalyptic AI) 주창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종말의 모습에 빚대어 앞으로 올 시대의 새로운 세계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학 기술 기계가 다스리는 나라의 도래와 인간의 신체에 발생할 놀라운 발전을 기대한다. 즉, 종말론적인 인공지능은 인간이 그들의 마음을 기계에 업로드하고 완벽한 가상신체 안에서 가상현실 천국을 즐기는 기계적인 미래를 고대한다." 장보철, "인공지능에 한 목회신학 고찰," 『신학과 실천』 59 (2018), 249.

40) 박현신,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대한 인문학적 질문과 실천신학적 응전," 70; 김효숙,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목회," 127-28. 2014년부터 새들백교회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소그룹 사역을 시도하고 있다. 계제광,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 세대에 적합한 리더십을 위한 연구," 601. 그러나 초연결 시대에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대면하는 능력이나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의 퇴보가 발생하고, 우울증 같은 정신적 증상은 더 커질 것이다. 오현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목회적 대응," 98.

를 아우르는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⁴¹⁾

교회는 제4차 산업혁명 대책팀을 조직하여 가동하는 선제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은 창의성, 협업, 융합을 특징으로 하기에, 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 그리스도인들이 상호 협력하도록 장(場)을 마련해야 한다. 목회자 혼자서 쏟아지는 모든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여,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문제에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앙과 전문지식을 갖추어 타인과 협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창의적 그리스도인이 직장 과 사회 속에서 복음을 공적으로 드러내며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전문가는 정부와 민간 기업과도 협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 전문가들(멘토)이 협력하여 기독교 멘티를 육성해야 한다.

교회는 회복적 정의와 구원을 강조하는 종말론에 기반을 둔 선지자적 윤리 공동체로서, 비인간화, 인간의 탐욕, 경제 불평등과 부정의를 늘 경계해야 한다.⁴²⁾

41) 개인주의의 심화는 공동체의 와해 및 공예배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사이버 친교는 사이버 고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목회자에게 연결과 정서적 문제를 잘 돌볼 수 있는 공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계제광,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 세대에 적합한 리더십을 위한 연구,” 605; 박현신,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대한 인문학적 질문과 실천신학적 응진,” 67-68; 조성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목회,” 『신학과 실천』 61 (2018), 635-37.

42) 참고 K. Y. Louie, “Review Article: P. S. Chung’s Church and Ethical Responsibility in the Midst of World Economy: Greed, Dominion, and Justice,” *Christian Study Centre on Chinese Religion and Culture* 12/1-2 (2013), 179-80, 186-87. Chung은 많은 피해를 생산해 내는 글로벌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민주적 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를 제시한다. 그러나 Louie의 평가에 의하면, Chung의 주장은 성경적 구제나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 할 수 없는 사회 복음을 연상시키며, 오늘날 글로벌 자본주의의 대안이 되기에 역부족이다.

참고문헌

- 계제광.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 세대에 적합한 리더십을 위한 연구.” 『신학과 실천』 62 (2018): 585-611.
- 김병석. “급변하는 사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시대의 예배와 설교의 위치.” 『신학과 실천』 59 (2018): 153-82.
- 김병석. “인공지능(AI) 시대, 교회공동체성립요건연구: 예배와 설교 가능성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40 (2016): 9-41.
- 김성원. “제4차 산업혁명과 교회론의 방향.” 『영산신학저널』 42 (2017): 183-230.
- 김정준.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목회의 새 전망: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55 (2018): 47-88.
- 김효숙.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목회.” 『기독교교육정보』 58 (2018): 113-38.
- 박현신.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대한 인문학적 질문과 실천신학적 응전.” 『복음과 실천신학』 48 (2018): 41-81.
- 양성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교육의 방향에 관한 고찰: 자동화와 연결성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59 (2018): 567-97.
- 여한구.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독교 상담과 심리치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세미나 자료집 (2018): 253-84.
- 오현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목회적 대응.” 『복음과 실천신학』 48 (2018): 82-106.
- 윤승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회의 역할과 방향.” 『신학과 실천』 58 (2018): 601-625.
- 이동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DANO 개념과 종교개혁신학의 한국교회에 대한 윤리적 요청.”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8 (2018): 165-94.
- 이완형. “인공지능 상용화에 따른 성경적 관점의 윤리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16/4 (2018): 117-40.
- 임창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교육 방향성 제고.” 『기독교교육논총』 56 (2018): 11-44.
- 장보철. “인공지능에 한 목회신학 고찰.” 『신학과 실천』 59 (2018): 247-67.
- 전요섭.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대응.” 『신학과 실천』 61 (2018): 175-203.
- 정미현. “츠빙글리 신 인식을 통한 윤리적 문법 이해: 4차 산업혁명의 역기능을 중심으로.” 『신학연구』 71 (2017): 181-213.
- 조성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목회.” 『신학과 실천』 61 (2018): 621-46.
- 조성호. “4차 산업혁명시대와 기독교 영성의 발전 방안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48 (2018): 149-73.
- 한천설. “[권두언]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교회의 미래.” 『신학지남』 84/4 (2017): 3-7.
- Christianson, G. “Lutherans face the Industrial Revolution: Awakening, Social Justice and Diakonia.” *Seminary Ridge Review* 7/2 (2005), 18-31.
- Harari, Y. N. 『호모 데우스: 미래의 역사』. *Homo Deus: A Brief History of Tomorrow*. 김영주 역. 서울: 김영사, 2017.

Louie, K. Y. "Review: P. S. Chung's Church and Ethical Responsibility in the Midst of World Economy: Greed, Dominion, and Justice." *Christian Study Centre on Chinese Religion and Culture*. 12/1-2 (2013): 179-87.

Moon, S. S. C. "Missions from Korea 2017: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Missions*."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41/2 (2017): 121-27.

Pitkänen, P. "Humans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ading the World and the Canonical Word." 『Canon & Culture』 12/2 (2018): 5-44.

Schwab, K. 『제4차 산업혁명』.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송경진 역. 서울: 새로운 현재, 2016.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독교교육이 나아갈 길

박신웅 목사 (한국총회 총회교육원 원장)

들어가면서

교육계 여기저기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각종 관련 학술대회를 열고, 이런 저런 논의와 발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독교교육학회 및 신학관련 학회도 예외가 아니다. 근래 2-3년 어간에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논의를 하면서 이제 이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듯하다. 다만, 이 주제에 대해 국내에 소개된 것도, 그렇다고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도 그리 오래지 않아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고, 그 논의들도 대부분 제 분야의 영역에 제한되어 향후 전망이나 방향을 예측하고 내다보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글은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그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해 신학 전반에 논의된 것을 살펴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독교교육, 나아가 교회교육의 측면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서 앞으로 기독교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된 국내의 일반교육계와 기독교교육과 신학계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해 논의된 내용들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논

의의 말미에 교회교육 혹은 기독교교육에서 ‘이미 와 있는’ 미래인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마주하게 될 주제와 방향,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네 가지 정도 제안해 보려 한다.¹⁾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한국 국내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회자된 것은 AI(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의 대국이후부터이다. 물론, 2016년 개최된 제 46회 다보스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미래사회를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정의하고, Klaus Schwab이 같은 해에 이와 관련된 저술을 발행하면서 시작되었지만,²⁾ 국내에서는 알파고와의 대국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치러진 5번의 대국에서 바둑계의 최고의 실력을 갖춘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에 1승 4패로 패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름도 생소한 한 프로그램에 최고의 지능을 가진 프로 바둑기사가 패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다는 한탄이 여기 저기서 들려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 한탄들에는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과 딥 러닝(deep learning)을 통해 스스로 배우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실업과 생존)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래상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와 함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의 생소한 용어들이 등장했고,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했다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미디어와 신문 지상에 오르내렸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고 회자되었다. 이제 인생의 말년에 해당되는 노년들에 비해 여전히 다가올 미래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할 다음 세대(학령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과 그들을 바르게 교육(학교교육)하여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은 어찌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일 것이다.

사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10년에 독일에서 인터스티

1) Roland Berg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진행 중이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이런 의미로 한글 번역은 “이미 와 있는 미래”라는 소제목을 붙여 놓았다. 롤랜드버거 (2017), 4차 산업혁명: 이미 와 있는 미래, 김정희, 조원영 역, (경기 파주: 다산북스)

2) Klaus Schwab (2016),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송경진 역, (서울, 새로운 현재).

리 4.0(Industrie 4.0)에서 시작된 이 시도 혹은 논의는 2011년에는 미국에서 발 빠르게 진행되었고, 2014년에는 중국에서도 ‘중국제조 2025’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늦은 시기인 2015년에야 비로소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었다.³⁾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지난 2016년 이후 3차례의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교육에 대한 포럼을 거쳐 2017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실천방안’이라는 교육부 정책연구 보고서가 발간되면서 본격화 되었다.⁴⁾ 그리고 같은 이유로 2018년부터는 중학교에서, 2019년에는 초등학교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인 코딩 수업이 진행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 실제 학교 교육에서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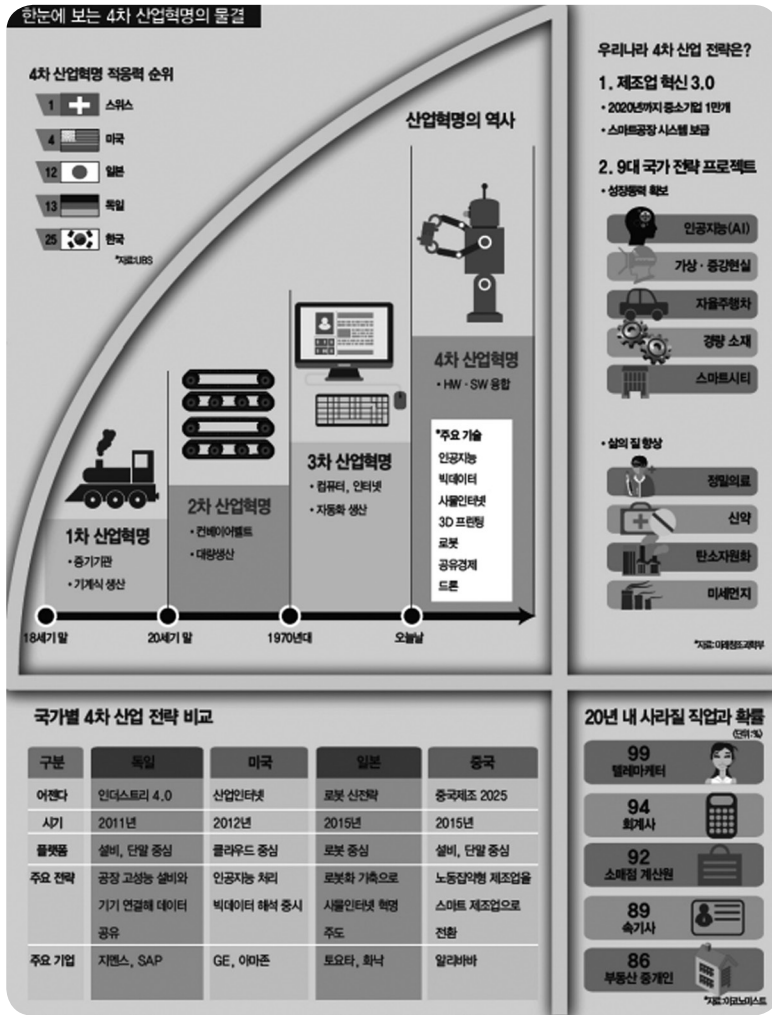
주지하듯이 1차 산업혁명이 1784년 증기기관의 발명과 기계화 생산설비로 생산성을 높였다면, 2차 산업혁명은 1870년 전기로 조립라인과 분업화를 만들어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3차 산업혁명은 1969년 이후, 전자공학과 IT 컴퓨팅을 통한 자동화를 통해 보다 복잡한 작업을 기계가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만들었다.⁵⁾ 반면,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서 단순 자동화를 넘어 기계와 인공지능이 각 분야에 파고들어 스스로 학습을 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 이전에 비할 바 되지 않는 정교한 제품을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기계가, 사람에게 의한 단순 컴퓨터 작업이 아닌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한 정교화된 자동화 시스템이 제품을 만들고 설계하는 시대, 그리고 사람의 노동력보다 기계의 힘이 더 많이 사용되는 시대를 연 것이다. 이러한 때 미래 교육은, 나아가 기독교교육은 어떤 인간상을 추구하고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3) 롤랜드버거 (2017) 4차산업혁명: 이미와 있는 미래, 13.

4) 교육부 정책보고서 (2017)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실천방안 “http://www.prism.go.kr/homepage/theme/retrieveThemeDetail.do?leftMenuLevel=110&cond_brm_super_id=NB000120061201100027875&research_id=1342000-201700072

5) 조성호 (2018), 4차 산업혁명시대와 기독교 영성의 발전 방안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48, 151-152.



국가별 4차 산업 전략 비교

구분	독일	미국	일본	중국
어젠다	인더스트리 4.0	산업인터넷	로봇 신전략	중국제조 2025
시기	2011년	2012년	2015년	2015년
플랫폼	설비, 단말 중심	클라우드 중심	로봇 중심	설비, 단말 중심
주요 전략	공장 고성능 설비와 기기 연결에 데이터 공유	인공지능 처리 빅데이터 해석 중시	로봇화 가속으로 시물인터넷 혁명 주도	노동집약형 제조업을 스마트 제조업으로 전환
주요 기업	지멘스, SAP	GE, 아마존	토요타, 화낙	알리바바

20년 내 사라질 직업과 확률

(단위: %)

99
 텔레마케터

94
 회계사

92
 소매점 계산원

89
 속기사

86
 부동산 중개인

*자료: 이코노미스트

<그림 한눈에 보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⁶⁾

6) 김병수, 4차 산업혁명 시작됐다, 매일경제 2016.09.09.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6/09/640581/>

일반 교육학계의 반응

먼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일반 교육학계는 크게 세 번 정도 중요한 반응을 보였다. 첫째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교육계가 맞이하게 될 상황에 대한 논의인데, 2017년 6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이루어진 한국교육학회의 연차학술 대회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이 대회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교육의 전망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강연이 이루어졌는데, 기조 강연자인 일반교육학회장인 니혼대학교 히로타 데루유키 교수의 지적이 인상 깊다. 그에 의하면 제4차 산업혁명은 교육과 관련하여 세 가지 심각한 위협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첫째는 경제와 기술이 우선되는 사회로 전환하면서 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될 수 있는 위협성, 둘째는 기술의 공유가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4차 산업혁명시대는 공유를 누리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들과의 양극화의 위협성과 그로 인한 실업과 불평등의 고착화의 위협성,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인간상만 추구하다 결국 인간본연의 본질을 상실할 위협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⁷⁾

두 번째 중요한 반응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계가 준비해야 할 인재상에 대한 논의이다. 전술한 것과 같이 2017년 12월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실천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생할 교육의 아젠다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그 대략적인 아젠다는 다음과 같다. 창의적 인재육성, 융합적 인성교육 확대,⁸⁾ 친환경 교육정보화 시스템, 교육복지의 확대, 교육의 세계화 및 글로벌 교육협력, 평생학습 사회구현, 인적자원의 효과적 관리 등이다. 대부분의 내용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상인 ‘창의, 융합형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과 전략에 대한 것임을 알게 된다.⁹⁾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권정민 교수는 4가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과 그에 따른 인재상(갖춰야 할 역량)을 다음과 같이

7) 특별히 세 번째의 위협성은 결국 인간을 경제적인 도구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여지를 남겨 결국, 인간성의 상실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보라. 임창호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교육 방향성 제고, 기독교교육논총, 56, 32-33.

8) 지현아가 쓴 논문은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인상적인 전개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을 잘 보여준다. 그에 의하면 세계경제포럼(2015)에서 인공지능시대에 필요한 3가지 핵심 역량을 인성, 기초 문제해결능력으로 발표한 것을 지적하면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2016년 발표된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에 필요한 10대 핵심역량 중 절반인 5대 핵심역량이 인성역량과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인관리, 타인과의 협조, 정서지능, 서비스 지향성, 협상)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필수적이라 지적한다. 지현아 (2017),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학 인성교육 방향 연구, 교양교육연구, 11(6), 39-61.

9) 교육부 정책보고서 (2017)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실천방안.

소개하고 있다. 1) 초연결성의 시대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 능력, 시민정신, 글로벌 사고, 2) 불확실성의 시대에 필요한 문제 해결력과 자기주도성, 3) 인공지능, 자동화 시대에 필요한 윤리의식, 창의성, 협업능력, 4) 빠른 변화의 시대에 필요한 적응력, 유연성, 다문화역량이 그것이다.¹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과 그에 따른 인재상〉

세 번째 일반교육학계의 영향력 있는 반응은 일반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계가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혁신의 내용에 대한 것이다. 2017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국제미래학회가 협력하여 57명의 전문가들이 1년의 연구 과정을 거쳐 발간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교육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그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 이 책은 창의, 도전정신, 인성이 중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세대는 기존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초연결, 초지능 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거듭나야 함을 말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교육계는 앞으로 이에 걸맞은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데 이 책은 세 가지 특성을 들고 있다. 학습자의 다양성, 창의성, 유연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교육 10대 혁신 과제를 이 책은 제시하는데 다음과 같다. 1) 입시제도 혁신, 2) 교육내용 혁신, 3) 교육방법 혁신, 4) 교육평가의 혁신, 5) 대학 교육의 혁신, 6) 학제 운영의 혁신, 7) 교육과정 운영 혁신, 8) 진로, 진학 혁신, 9) 대학 운영 혁신, 10) 교육 거버넌스 혁신.¹¹⁾

10) 권정민 (2017),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의 방향, 한국정보화진흥원.

11) 10개의 혁신의 내용은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걸친 혁신이 없으면 향후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즉, 현재의 교육시스템의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학교교육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회교육의 여건을 생각할 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국제미래학회, 한국교육학술정보 (2017),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의 미래교육보고서. (서울: 광문각)

기독교교육학(신학)계의 반응

기독교계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대응을 2017년 이후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우선,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의 경우 “인구절벽시대와 목회”라는 주제로 2017년 가을에 학회를 통해 논의가 이루어졌고, 2018년 봄에는 “4차 산업과 뉴미디어에 관한 목회적 성찰”이라는 주제로 학회를 개최하여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실천신학회의 경우는 2018년 겨울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실천신학 과제”라는 주제로 논의를 시작하였고, 프락시스 아카데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목회”라는 제목으로 2017년 가을에 세미나를 열어 논의를 하였다.

기독교교육학회는 이보다 더욱 활발하게 논의와 토론의 장을 펼쳐나갔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교육학회인 한국기독교교육학회는 2016년 추계학술대회를 “인공지능시대의 미래 기독교교육”을 주제로 ‘인공지능과 신학적 인간학(김지석)’, ‘지능정보사회의 현재(김효숙)’가 발표되었다. 2018년 춘계 학술대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왜 기독교교육인가?”라는 주제로 활발한 발표가 진행되었는데 주제 강연으로 천세훈의 ‘뇌와 심장과의 비교를 통해서 바라본 인공지능의 이해’와 김병호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라는 강연이 진행되었다. 2018년 하계학술대회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독교교육의 사회적 사명: 공교육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2018년 추계 학술대회는 “미래세대의 기독교교육 인간이해”라는 주제로 발표가 되었고, 장신대의 김도일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호모 에두칸투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기도 하였다.¹²⁾ 이렇게 보면 일반교육학회 못지않게 기독교교육학회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학과 기독교교육학의 세부 연구와 방향

신학과 기독교교육학의 세부 영역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먼저, 신학일반의 영역에서, 영성, 교회론 및 윤리의 영역에서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실천신학 영역에서는 설교, 리더십, 목회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가 있다. 상담학 영역에서도 약간의 연구가 있다. 반면, 기독교교육의 영역에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12) 기독교교육학계의 반응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임창호의 논문을 참조하라. 임창호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교육 방향성 제고 34-37.

있는데, 기독교교육 일반, 교육목회, 공동체와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각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¹³⁾

영역분류	논문제목	논문내용	저자(출간연도), 저널명
신학일반 (영성, 교회론, 윤리)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기독교 영성의 발전 방안 연구	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성 훼손의 우려가 있는데, 이렇수록 더욱 영성에 대한 논의와 노동의 가치에 대해 논의와 연구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조성호(2018), 복음과 실천신학
	제4차 산업혁명과 교회론의 방향	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의 다섯 가지 핵심 기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간소외, 대량실업, 빈부격차의 심화, 가치관의 상실, 경쟁의 심화와 불안에 대해서 대응하는 교회론을 확립해야 함을 역설한다. (깊은 인격적 교제로서의 교회, 말씀과 조명을 가르치는 교회, 섬김의 소명을 발견하는 교회, 참된 만족과 평화를 가르치는 종말론적 교회론 강조)	김성원(2017), 영산신학저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의 역할과 방향	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먼저 언급하고, 이어 불확실성의 시대에 필요한 두 가지 교회의 역할에 대해 역설한다. 1) 교회의 신앙 본질에 기반을 둔 기독교 영성 회복 (창조주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 존재 확인 및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 2)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동체성 강화 (소통과 공감, 관계 형성을 위한 공동체 회복)	윤승태(2018), 신학과 실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 사회생태윤리 모색	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될 불평등의 문제와 빈부 양극화와 소외 현상에 대해 지적하면서 기독교 사회생태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삼위일체의 관계성에서 출발한 기독교적이고 창조적인 전망 제시)	박용범(2018), 한국기독교사회윤리

13) 각각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조성호 (2018). 4차 산업혁명시대와 기독교 영성의 발전 방안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48, 149-173. 김성원 (2017). 제4차 산업혁명과 교회론의 방향. 영산신학저널, (42), 183-230. 윤승태. (2018).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회의 역할과 방향. 신학과 실천, 58, 601-625. 박용범. (2018).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독교 사회생태윤리 모색. 기독교사회윤리, 41, 101-132. 김병석. (2018). 급변하는 사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AI) 시대의 예배와 설교의 위치. 신학과 실천, 59, 153-182. 계재광.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네이티브 (Digital Natives) 세대에 적합한 리더십을 위한 연구. 신학과 실천, 62, 585-611. 오현철. (2018). 4차 산업혁명시대의 목회적 대응. 복음과 실천신학, 48, 82-106. 조성돈.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목회. 신학과 실천, 61, 621-646. 전오섭. (2018).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기독교상당

영역분류	논문제목	논문내용	저자(출간연도), 저널명
	급변하는 사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시대의 예배와 설교의 위치	이 논문은 인공지능 시대에 오히려 죄와 구원의 선포가 필요하고 영혼의 실재성의 강조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김병석(2018), 신학과 실천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에 적합한 리더십을 위한 연구	이 논문은 인공지능 시대에 오히려 죄와 구원의 선포가 필요하고 영혼의 실재성의 강조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계재광(2018), 신학과 실천
실천신학 (설교, 리더십, 목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목회적 대응	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나타나는 1) 노동력 위기, 2) 디지털 소수(불평등), 3)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불멸의 인간에 대한 논의, 4) 공감력 퇴화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목회적 대응에 대해 역설한다. 1) 노동 개념과 가치 변화 교육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평생교육 및 시대를 초월한 노동력 활용, 2) 디지털 문해력 강화 교육, 연합과 연계를 통한 사회봉사, 3) 유한한 인간 자신의 연약함 긍정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의지, 4) 렉시오 디비나와 놀이하는 손	오현철(2018), 복음과 실천신학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목회적 대응	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은 속도와 범위와 깊이, 시스템 충격으로 인해 우리 삶의 전반적인 곳에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인간과 신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하고, 파편화되고 개인화 되는 이 때일수록 더욱 공동체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인간과 신, 그리고 공동체의 추구는 결국은 신앙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하고 이러한 목회적 방향으로 목회를 해야 함을 역설한다.	조성돈(2018), 신학과 실천

적 대응. 신학과 실천, 61, 175-203. 여한구.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 상담. 신학과 실천, 61, 205-229. 양성진.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교육의 방향에 관한 고찰-자동화와 연결성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59, 567-597. 임창호.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교육 방향성 제고. 기독교교육논총, 56, 11-44. 김호석.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목회. 기독교교육정보, 58, 113-138. 김정준. (2018).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목회의 새 전망: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55, 47-88. 김도일.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호모 에두칸투스. 장신논단, 50(5), 247-275. 김도일. (2017). 더불어 행복한 삶을 위한 플랫폼-마을교육공동체. 장신논단, 49(4), 399-435. 이윤석, 이영미.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딩 기술과 교회 교육. 신앙과 학문, 23(2), 215-243. 김수환, & 함영주. (2015). 멀티미디어 창작을 활용한 기독교교육의 가능성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44, 67-97.

영역분류	논문제목	논문내용	저자(출간연도), 저널명
상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대응	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편리성은 복인 동시에 나태를 가져오는 화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인공지능이 신앙상담의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비록 딥 러닝을 통해 인공지능이 상담을 하게 되면 효율적인 상담이 되고 성공확률은 높일 수 있으나 가상현실과 영적 문제를 혼동하거나 인간적 공감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영적 문제를 도외시한 정신 상담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올바른 기독교상담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전요섭(2018), 신학과 실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 상담	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 상담은 우선 인간의 고유성과 정체성에 대해 바른 기준을 세워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내담자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 상담은 여러 영역에서의 갈등을 중재하는 융합과 본질을 추구하는 상담이 되어야 함도 역설한다.	여한구(2018), 신학과 실천
기독교 교육 (기독교교육 전반, 교육목회, 공동체, 미디어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교육의 방향에 관한 고찰: 자동화와 연결성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을 자동화와 연결성에 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학습내용, 학습공간, 학습방법의 혁신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식과 정보가 고정된 것이 아닌 형성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공감능력을 기를 것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제안하고 있다.	양성진(2018), 신학과 실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교육 방향성 제고	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초연결, 초지능시대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반 교육학계의 반응에 대해 언급하고(핀란드 교육개혁과 플랫폼형 대학교육의 변화), 일반 교육학계의 상황을 소개 있다. 이어, 기독교교육학계의 논의에 대해 소개한 다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과 기독교교육적 함의를 설명한다. 상황맥락(contextual) 지능, 정서(emotional) 지능, 영감(inspired) 지능, 신체(physical) 지능의 다중이해관계자의 특성을 지닐 것과 4C 능력 소통능력(Communication), 창의성(Creativity),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협력(Collaboration) 능력을 가진 인재상이 필요하다 역설한다.	임창호(2018), 기독교교육논총

<p>기독교 교육 (기독교교육 전반, 교육목회, 공동체, 미디어 교육)</p>	<p>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 육목회</p>	<p>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 가능한 교회목회를 위해 저자는 기술 결정론에 빠지지 말고, 유기체적 상호 관련성을 높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기독교 공동체의 공공성과 기독교교육학의 정체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마리아 해리스의 관점을 토대로 교회의 커리큘럼이 5 가지의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잠재적 그리스도인까지 포용하는 현대의 코이노니아, 2) 인간의 온전한 번영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케리그마, 3) 공동의 기도와 개인의 기도가 조화를 이루는 레이투르기아, 4) 확산적 환경에서 개인화된 학습 경로를 설계하는 디다케, 5) 교회 안과 밖에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디아코니아</p>	<p>김호숙(2018), 기독교교육정보</p>
	<p>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 목회의 새 전망: 인공지 능을 중심으로</p>	<p>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편이성 이면에 있는 인간소외의 문제를 도외시 하지 말 것과 이를 위해 역사 의식과 자의식을 가질 것과 새로운 상황에서의 교육목회로서의 돌봄과 양육에 대해 강조하고 역설한다.</p>	<p>김정준(2018), 기독교교육논총</p>
	<p>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호 모 에듀칸투스</p>	<p>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 지능의 발달로 자칫 도외시되기 쉬운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 논하고 있다. 사람은 이 땅의 청지기(정원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의 존엄성, 생각하는 능력인 인간의 사유성, 교육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창의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독교교육의 과제로서 네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1) 교육의 상품화에 대항하는 기독교교육 연구, 2) 인간가치와 사명감 회복을 위한 융합적 연구, 3) 인간 수명연장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위원회 설립, 4) 실존적 지식과 지식의 공공성 추구</p>	<p>김도일(2018), 장신논단</p>

더불어 행복한 삶을 위한 플랫폼: 마을교육공동체	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식의 평준화, 플랫폼, 전인교육, 전맥락적 교육, 뉴리터러시 교육이라는 도전을 가져왔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개인의 개별적인 응전만으로는 부족함을 역설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바른 교회론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교회의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더불어 행복한 마을공동체의 일원이자 중심점이 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김도일 (2017), 장신논단	
기독교 교육 (기독교교육 전반, 교육목회, 공동체, 미디어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딩 기술과 교회교육	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교육이 나아갈 방향으로 교회교육에서의 코딩을 할 것을 역설하면서 FMnC 선교회에서 시행한 '와우코딩'사역을 통해 '와우스토리'라는 어린이 그림 성경을 콘텐츠로 스토리, 배경 그림, 캐릭터 그림 등을 사용해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게임을 만들면서 코딩을 배우도록 하여 그 성과를 거둔 예를 들고 있다.	이영미, 이윤석 (2018), 신앙과 학문
멀티미디어 창작을 활용한 기독교교육의 가능성 연구	이 논문은 MIT에서 만든 코딩 프로그램 스크래치를 활용하여 실제로 성경교수에 활용한 후, 학생들에게 창작능력, 흥미, 만족도에 대해 살펴본 바,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 다수가 프로그래밍 능력에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T-Test), 멀티미디어 창작교육은 학생의 흥미를 유발시켜 수업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러한 코딩 교육의 사용의 유용성에 대해 역설한다.	김수환, 함영주 (2015), 기독교교육정보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들은 신학적인 측면에서 우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특징에 대해 나름 정리하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 인간 소외와 가치관 상실, 경쟁의 심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회복을 통한 영성 회복과 노동의 가치 회복을 말하고(조성호), 나아가 개인을 넘어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바른 교회론의 확립(김성원, 윤승태)을 강조한다. 나아가 교회가 양극화와 인간 소외를 극복할 기독교사회생태 윤리를 확립해야 함도 말한다(박용범).

실천신학의 세부연구들을 신학일반의 논문들에 비해 실천적인 내용이 보완된 연구들도 눈에 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죄와 구원을 선포해야 한다는 설교학적 강조(김병석)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에 새로운 리더십 모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을 말한다(계재광). 아울러, 노동력의 위기와 불평등의 가속화, 인간의 불멸에 대한 고민과 개인화로 인한 공감능력 퇴화의 시대에 바른 목회적 대응이 필요함을 말하고(오현철), 나아가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공동체의 추구를 통해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것을 말한다(조성돈). 상담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 상담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여 그것의 허와 실에 대해 말하면서 영적 문제를 포함한 바른 기독교 상담의 필요성을 말하고(전요섭), 나아가 인간의 고유성과 정체성에 기반을 둔 바른 상담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여한구).

기독교교육의 세부연구들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 비록 몇 교육학자들의 논의는 다소 원론적이고 거시적인 점을 지적하지만, 대체로 세부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다. 우선, 거시적인 관점에서 임창호(2018)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상을 주장하고, 김효숙(2018)과 김정준(2018)은 교육목회적 관점에서 인간소외에 따른 돌봄과 양육, 그리고 공동체의 공공성과 기독교교육학의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을 말한다, 아울러, 김도일(2018)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교육의 네 가지 과제에 대해 말하면서 교육의 상품화와 인간 가치의 하락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기독교교육의 연구와 인공지능 윤리위원회 설립을 주장한다.

보다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관점에서는 양성진(2018)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자동화와 연결성에 주목하면서 교육과정의 필요를 주장한다. 학습내용, 학습공간, 학습방법의 혁신을 통해 지식, 정보 사회를 넘어 공감능력과 공간을 뛰어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필요를 주장한다. 이영미와 이윤석(2018)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교육이 나아갈 방향으로 교육방법 측면에서 코딩 교육의 실례를 들면서 그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보자는 의미로 읽힌다. 참고로 이미 2015년에 김수환과 함영주는 스크래치라는 코딩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T-Test(실험 전후의 데이터로 분석하는 방법)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의 만족도와 사용의 유용성에 대해 연구, 발표한 것이 있는데, 이 또한 코딩 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도일(2017)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을공동체가 지역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 것을 제안하는데, 이 또한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나가면서: 기독교교육적 함의 및 과제

38

이렇듯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의 네 가지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 깊이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바른 이해와 그에 따른 바른 방향 예측이 필요하다. 즉, 바른 신학적, 교육학적인 정리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리라 본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막연한 예측보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보여줄 긍정과 부정의 영향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과 상황 이해가 필요하리라 본다. 고도의 기술 발달이 가져다 줄 편의성 이면에 있는 인간소외, 나아가 영성적인 면에 대한 면밀한 고민과 그에 따른 시대적 대안이 신학적, 교육학적 논의와 고민을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이 논의에는 단순한 신학적 고민을 넘어 윤리적 고민이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김도일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인공지능을 위한 윤리위원회와 같은 윤리적 문제와 함께 감정을 가진 인공지능이 상담을 하거나 설교를 하게 되는 상황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 대해 바른 가이드라인과 그에 따른 신학적 입장을 분명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바른 인간상(기독교적 인재상)을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본다. 기술과 경제 발달에 관심을 둔 정부기관의 교육의 방향은 실은 교회교육의 방향과 완벽히 합치될 수는 없다. 일반교육학계에서는 우선적으로 인공지능의 발달과 다양한 교육 방법의 발달, 나아가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음 세대들이 맞이할 세상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대비시킬 것인가에 관심으로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인재상을 상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회교육은 그러한 경제적인 상황을 넘어 하나님, 사람, 나아가 하나님나라와 관련된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적합한 인재상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선, 지현아가 지적하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역량 열 가지 중 다섯 가지가 인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러한 강조는 오히려 교회교육에서 더욱 활발히 전개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주장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상’중 서로 협력하며 돕고 섬기는 인재상은 고신총회의 교육목표 중 하나인 ‘인화협동적 인격자’에도 부합되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일반교육학계에서는 고신총회의 교육목표의 1번인 ‘예배적 인격자’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고민하며 그것에 필요한 인간상을 구현하고 보여주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리라 본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교회의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김성원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소외, 대량실업, 빈부격차의 심화, 가치관의 상실, 경쟁의 심화와 불안에 대한 대응으로 바른 교회론을 확립할 필요가 있겠다. 깊은 인격적 교제로서의 교회, 바른 말씀 선포와 섬김을 통해 소명을 발견하게 하는 교회,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는 교회를 만들고 그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김도일이 주장하는 것처럼 마을공동체 속에서 독야청청하는 교회가 아닌 스며들고 이웃과 함께하면서 마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통해 ‘지역교회’로서의 역할을 다시금 회복하는 교회의 준비가 필요하리라 본다. 무엇보다 양성진이 지적하듯, 교육과정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단순한 성경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을 넘어 학습내용이 학습자인 학생들의 삶과 괴리되지 않는 방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고민과 담론을 담아내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습공간이 단순히 교회의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과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도록 상호교류(interaction)가 가능한 방식이 되도록 하되, 교회(주일학교, 교사)가 학생들과 공감하려 애쓰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준비가 필요하리라 본다. 이영미와 이윤석이 보여준 코딩교육의 실제적인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학습방법이 더욱 다양화되고 심도 깊어지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 교회교육의 질 개선과 집중력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을 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물론, 교회의 환경이 불비하고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이 일이 다음세대의 교육과 다음세대의 교회의 존립과도 관련이 있다면 많은 수의 교사보다 적은 수이지만 준비된 교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하리라 본다. 혹여 교사 수급이 어렵다면 교사를 대신할 프로그램 개발에 과감히 투자를 하여 그 프로그램과 수련회, 나아가 교역자들을 중심으로라도 신앙 전수와 교회교육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다른 세대를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인공지능 개발자 레이 커즈웨일에 대한 인식론적 조망과 기독교 교육의 대응

김성완 목사(전 총회교육원 연구원, 사우스웨스턴 신학교 교육철학 박사 과정)

들어가면서

순식간이다. 순식간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세계경제연구원의 사공일 이사장이 클라우드 슈밥(Klaus Schwab) 회장의 저서에 추천사를 기록하면서 언급한 말이다.¹⁾ 슈밥 회장과 사공일 이사장의 말대로, 현재 인류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슈밥 회장에 따르면 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 혁명을 기초로, 새로운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3D 프린팅, 나노 기술, 생명공학, 재료공학, 에너지 저장기술, 퀀텀 컴퓨팅 등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 특별한 기술들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을 통해서 서로의 분야에서 증폭된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²⁾ 매를린 울브라이트의 말처럼 우리는 “19세기 제도와 20세기 마음가짐으로 21세기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³⁾ 이 분야들 중 가장 괄목할 만하며, 포괄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기술들을 리드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라면

1) Klaus Schwab,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송경진 역, 서울: 새로운 현재, 2016), 5.

2) Schwab, 『제4차 산업혁명』 10.

3) Klaus Schwab, 『제4차 산업혁명 The NEXT』(Shap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김민주, 이업 역, 서울: 새로운 현재, 2017), 34.

인공지능을 고를 수 있을 것이다.⁴⁾ 슈밥이 글로벌 리더들과 100차례가 넘는 인터뷰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이며 주도적 기술을 선별하였는데, 인공지능 기술도 그 안에 들어있다. 이 글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많은 기술 중에 인공지능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⁵⁾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곁에 와있고 그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0년 인공지능 알파고가 최고의 바둑기사 이세돌을 이겼다. IBM의 의학인공지능 왓슨은 현재 존재하는 모든 의학 지식을 소유하여, 암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⁶⁾ 헨슨 로보틱스가 만든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는 대화를 하며 62가지 표정을 나타내는 등 감성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발전도 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인공지능 로봇 페퍼를 만들었는데 약 7세 수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⁷⁾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인공지능 개발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개발자는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 이하 커즈와일)이다.⁸⁾ 그는 피아노의 소리를 디지털화하여 커즈와일 신디사이저를 개발했고, 글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OCR 문자인식 기능을 개발했으며, 현재 애플의 아이폰에 장착된 시리(Siri)나 구글 보이스 서치(voice search)에 사용되는 음성인식 기술도 개발하였다. 그는 현재 구글에서 인공지능의 여러 분야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 그는 초지성을 소유한 인공지능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45년 경에는 그 실현을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가 기술과 관련하여 출판한 책들과 제시한 전망의 상당 부분이 현실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이며, 그의 말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⁹⁾ 조지타운 대학의 신경윤리학자인 제임스 지오다노(James Giordano)가 말한 바와 같이 뇌는 앞으로 가장

4) K. Schwab, 『제4차 산업혁명 The NEXT』, 34. 클라우스 슈밥은 글로벌 리더들과의 100차례가 넘는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초적이고 범용으로 사용되는 기술로 인공지능, 분산원장기술, 새로운 컴퓨터 기술을 제시했다.

5) 이윤석, 『4차 산업혁명과 그리스도인의 삶』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8), 43. 이윤석은 4차 산업 혁명의 도래를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표현하였다. 즉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대해 계획하고 실제로 세상을 만드시고 그 후에는 계속해서 섭리하시는 것처럼, 인간은 가상 세계의 창조에 대해 계획하고 실제로 가상 세계를 만들고 그 후에는 계속해서 유지 보수 작업을 한다”는 점이다.

6) 이윤석, 『4차 산업혁명과 그리스도인의 삶』, 37.

7) 이윤석, 『4차 산업혁명과 그리스도인의 삶』, 77.

8) 이윤석, 『4차 산업혁명과 그리스도인의 삶』, 82. 현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클라우스 슈밥, 레이 커즈와일, 유발 하라리 등은 진보적인 기술 낙관주의자들로 분류된다.

9) Ray Kurzweil, 『특이점이 온다』, 김명남 역 (서울: 김영사, 2007), 183. 커즈와일은 2045년에 도래하게 될 특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했다. “이때야말로 진정 심오한 변화의 시기다. 그래서 나는 2045년을 특이점의 시기로 예상한다. 인간 역량이 심오하게, 돌이킬 수 없는 변환을 맞는 때이다.” 그는 그의 책 『특이점이 온다』 27페이지에서 특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특이점은 생물학적 사고 및 존재와 기술이 융합해 이룬 절정으로서, 여전히 인간적이지만 생물학적 근원을 훌쩍 뛰어넘은 세계를 탄생시킬 것이다. 특이점 이후에는 인간과 기계 사이에, 또는 물리적 현상과 가상현실 사이에 구분이 사라질 것이다.”

침예하게 대립할 인식론의 “전장”이다.¹⁰⁾ 이러한 시점에 인공지능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은 필연적 과제이다. 다양한 시각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기독교 인식론적 영역에서 커즈와일과 그의 인공지능 개발을 논의함으로써, 앞으로의 교육목회적 적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연구자는 첫째, 인공지능 개발 분야의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레이 커즈와일의 연구 업적을 요약하고, 그가 논의하고 있는 인공지능 개발의 과정을 들여다 볼 것이다. 둘째, 커즈와일이 말하는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들과 그것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파악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인식방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자는 기독교 인식론의 핵심 요소를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넷째, 인공지능의 인식방법이 어떻게 기독교 인식론과 충돌하는지 설명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목회적인 측면에서 대응과 적용을 다룰 것이다.

레이 커즈와일과 기술 개발

레이 커즈와일은 인공지능 개발의 대표적인 리더들 중 한 명이자, 미국의 미래학자, 발명가, 컴퓨터 과학자 또는 기업가 등으로 알려져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를 가리켜서 “끝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천재발명가”라는 별명을 붙였고, 미국 포브스 잡지는 그를 가리켜 “최상의 생각기계”라고 표현했으며, Inc 잡지는 “토마스 에디슨의 부활”이라는 표현으로 그에 대한 찬사를 표현하였다.¹¹⁾ 또한 커즈와일이라는 이름은 공교롭게도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로부터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잘 알려진 이름 또는 브랜드이다. 그 이유는 규모가 큰 교회이든지, 심지어는 규모가 다소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KURZWEIL’이라는 이름이 기록된 신디사이저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 신디사이저는 한국교회에서 현대 교회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악기 종류 중 하나이다.

10) Schwab, 『제4차 산업혁명』, 137. 제임스 지오다노 James Giordano는 “비국가 세력이 신경과학 기법이나 기술을 활용할지 안 할지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언제, 어떤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뇌는 이제 전장이 될 것입니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11) Ray Kurzweil, 『마음의 탄생: 알파고는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훔쳤는가?』 윤영삼 역 (How to Create a Mind: The Secret of Human Thought Revealed, 서울: 크레센도, 2012), 446-8.

음악 분야에서 기술 개발

커즈와일은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출생과 관련하여, 그는 유명한 현대 발달 심리학자들과 같이 인종적으로 유대인 출신이다.¹²⁾ 커즈와일의 유대인 부모님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오스트리아에서 미국 뉴욕으로 건너왔으며 1948년에 그곳에서 커즈와일을 낳았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음악 분야에서 일을 했는데, 아버지는 지휘자였고, 어머니 또한 음악을 가르쳤다. 커즈와일은 15세에 클래식 음악을 분석한 후, 그 패턴에 따라서 새롭게 합성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후 그의 음악적인 재능은 스티비 윈더와 만나면서 영감을 얻었고, 신디사이저를 개발함으로써 음악의 디지털화를 구현하였다. 그 결과로 1984년 커즈와일뮤직시스템(Kurzweil Music Systems)를 개발하였다. 전문가들도 피아노소리와 신디사이저의 소리를 구분하지 못했고, 출시되자마자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전자악기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1990년 커즈와일은 이 악기 회사를 영창악기에 매각했으며, 2006년 영창악기는 현대산업개발에 인수되었다. 커즈와일이라는 이름이 한국교회와 기독교 음악 세계에서 잘 알려져 있는 이유이다.

광범위한 정보 찾기 기술과 문자인식 기술 개발

1900년 커즈와일은 MIT에 진학하여 마빈 민스키 교수 밑에서 지도를 받았으며,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과목을 모두 수강한 후 대학 2학년이 되었을 때 미국의 대학 입시 자원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대학선별상담(Select College Counseling)’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미국에 존재하는 수천 개의 대학에 대한 정보와 학생들의 정보를 병합하여 적절한 대학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커즈와일은 문자를 음성으로 바꾸는 기술의 개발자이기도 하다. 1974년 그는 커즈와일컴퓨터를 설립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것이

12) James C. Wilhoit and John M. Dettoni, *Nurture That Is Christian: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Christian Education* (IL, Wheaton: Baker Books, 1998), 12-16. 현대 기독교 교육 분야에서도 유대인들의 독창적인 활동이 두드러진다. 아래 열거한 발달 심리학자들이 모두 유대인 출신이라는 점은 구약성경에 기초한 유대인의 교육적 실천의 의미미함을 보여준다: 인지발달 이론의 개발자 장 피아제 (Jean Piaget), 도덕발달 이론의 개발자 로렌스 콜버그(Lorance Kohlberg), 심리사회이론의 개발자 에릭 에릭슨 Erik Erikson, 신앙발달 이론의 개발자 제임스 파울러 James W. Fowler 등.

최초의 음니폰트 OCR시스템이다.¹³⁾ 또한 학교에서 사용하는 OMR 카드 해독 기술도 커즈와일로부터 나왔다. 그는 이후에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을 결합하여 커즈와일리딩 머신(Kurzweil Reading Machine)을 출시하였다. 그는 전국 맹인연합과 함께 리딩머신의 개발을 알렸고, 미국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았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제록스에 매각하였고, 제록스는 OCR 프로그램을 스캔 소프트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으며, 현재는 뉘앙스커뮤니케이션이(Nuance Communications Inc.)이 되었다.

음성인식 기술 개발

커즈와일은 음성인식 기술도 개발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음성인식 기술이 아이폰의 시리나 구글의 보이스 서치, 음성인식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커즈와일은 구글에서 일하고 있다. 2012년 구글의 창업자인 래리페이지는 커즈와일의 책 『마음의 탄생』을 읽고, 그를 ‘머신러닝과 언어처리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로 임명했다.

커즈와일은 『마음의 탄생』에서 그가 지금까지 개발해 온 디지털화의 기술을 어떻게 융합하였으며, 특별히 뇌과학 분야에서의 발견을 기초로 어떻게 사람의 뇌와 같은 인공지능을 만들어가는지 핵심 요소들과 상호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핵심 정의들 Definitions

제4차 산업혁명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이 글에서 제4차 산업혁명은 기술 혁명(Technological Revolution)을 의미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설립자이자 집행위원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연례 회의 중 2016년에 제시한 개념이다. 슈밥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이란 물리적(physical), 디지털(digital), 생물학(biological)기술 사이

13) <http://www.kurzweiltech.com/kcp.html> (2019년 5월 8일 접속) 음니폰트 OCR 기술이란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의 약자로서, 컴퓨터가 문자나 이미지를 인식하여 연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식 기술을 가리킨다. 대표적인 기술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OMR(Optical Mark Recognition) 기술이 있다.

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융합 복합됨으로 현대 사회에 등장한 기술적인 혁명으로 정의한다.¹⁴⁾ 위 세 분야의 다양한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변화시키고 있다. 클라우드 슈밥은 이 세 분야의 기술들을 메가트렌드(megatrend)라고 불렀으며, 대표적인 기술들은 다음과 같다: 물리학(무인운송수단, 3D 프린팅 기술, 첨단 로봇공학, 신소재), 디지털 기술(새로운 컴퓨팅, 사물인터넷,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플랫폼), 생물학(유전학, DNA기술, 바이오프린팅 기술 등).¹⁵⁾

(2)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¹⁶⁾

인공지능은 1956년 존 맥카티(John McCarthy)가 처음 언급한 것으로서 ‘생각하는 기계’를 표현하는 말이었다. 현대에는 옥스퍼드 사전, 미리암웹스터 사전, 브리태니카 백과사전 등에서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있다. 옥스퍼드 사전(English Oxford Living Dictionary)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성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일들 즉 시각인식, 언어인식, 의사결정, 그리고 언어의 번역 등과 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이론과 발달’이라고 정의한다. 미리암 웹스터 사전은 인공지능을 컴퓨터 내에 지적인 행동의 구현을 다루는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 또는 인간의 지적 행동을 모방할 수 있는 ‘기계의 능력’으로 정의한다. 브리태니카 백과 사전에서는 인공지능을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는데, 1) 강한 인공지능(Strong AI)으로서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이 사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 2) 약한 인공지능(Weak AI)으로서 사람의 사고방식을 드러내지 않고 단지 일하기 위한 시스템 3) 필요한 결과적 목표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모델로서 인간의 사고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최근 2016년도에는 대표적인 미국 기업들(Amazon, Apple, DeepMind, Google, IBM and Microsoft)이 협력하여 PABPS(Partnership on AI to Benefit People and Society)를 조직하였으며, 사회적 유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커즈와일이 개발하고자 하는 인공지능은 브리태니카 백과 사전에서 언급된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강한 인공지능 개념을 넘어서 초지성을 소유한 ‘울트라지능기계’이다.¹⁷⁾

14) <https://www.youtube.com/watch?v=v9rZOa3CUC8&t=6s> (2019년 5월 20일 접속). CNBC 방송의 Elizabeth Schulze 기자가 클라우드 슈밥의 책으로부터 인용: “Technological revolution . . . that is blurring the lines between the physical, digital, and biological spheres.”

15) K. Schwab, 『제4차 산업혁명』, 36-50.

16) <https://www.forbes.com/sites/bernardmarr/2018/02/14/the-key-definitions-of-artificial-intelligence-ai-that-explain-its-importance/#4a43ccaf4f5d> (2019 5월 10일 접속).

17) 커즈와일, 『마음의 생각』, 399.

인식론 Epistemology¹⁸⁾

인식론은 철학 또는 기독교 철학의 가장 기초적인 한 분야로서, 지식의 특징(natures), 지식의 종류(sources), 지식의 타당성(validity) 등을 다루는 철학 영역이다. 무엇이 진리(참된 지식)인가?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탐구한다. 지식과 실재(reality)의 관계에 대해 탐구한다. 즉 '지식을 통해서 참된 실재를 알 수 있는가', '진리는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 '진리는 주관적인가 객관적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탐구한다.¹⁹⁾인식론은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인식론에 대한 기준이 교육의 목표, 방법, 커리큘럼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커즈와일이 설명하는 인공지능의 매커니즘

인공지능의 환경, 경험론적 빅데이터

커즈와일은 진화론자로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진화하고 발달하게 될 것을 그의 책들에서 논의하였다.²⁰⁾ 그의 주장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달할 때 식물에게 있어서 토양과 같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발달한다. 빅데이터는 그야말로 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 혁명 이후 존재하는 모든 디지털 자료들의 총합을 말한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통해 오프라인의 모든 자료들도 디지털화 하고 있다. 즉 온라인 오프라인의 모든 디지털화된 자료들의 총합을 일컫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커즈와일은 최근 기술과 생물학의 발달에 따라서 뇌의 신경질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다. 그 결과 사람의 뇌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기능을 최소 단위까지 연구하였고, 외부의 자극과 정보에 대해서 뇌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언급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기본적으로 외부의 정보를 인식가능 할 때 프로그램된 알고리즘을 삽입하고,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기

18) George R. Knight, *Philosoph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in Christian Perspective* (Berrien Springs, MI: Andrews University Press, 2006), 35-43.

19) James K. Drew Jr. and Mark W. Foreman, *How Do We Know? : An Introduction to Epistemology* (Downer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14, 9.

20) 커즈와일은 1989년 『지능기계의 시대The Age of Intelligent Machines』, 1993년에 『The 10% Solution for a Healthy Life』, 1999년에 『21세기 호모 사피엔스The Age of Spiritual Machines』, 2004년에 『Fantastic Voyage: Live Long Enough to Live Forever』, 2005년에 『특이점이 온다The Singularity Is Near』, 2009년에 『영원히 사는 법Transcend: Nine Steps to Living Well Forever』 등을 지속적으로 집필해 오고 있다. 그의 책들의 핵심 주제는 인공지능을 다룬다.

본적인 연산작용을 반복한다.²¹⁾ 그 결과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경험하게 되는데, 학습의 확장에 따라서 사용하는 자료, 식물로 말하자면 토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이다. 식물은 아주 제한적인 면적 안에 있는 토양의 영향을 받지만, 인공지능은 경계와 제한이 없이 정보를 수집, 연산, 학습, 발달을 경험하게 된다.

인공지능이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패턴인식 마음이론과 디지털 신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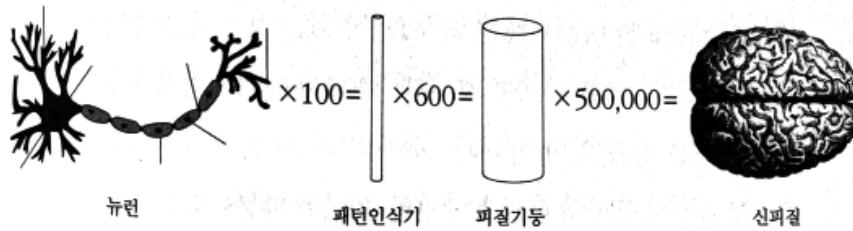
커즈와일은 『마음의 탄생』에서 뇌가 외부의 정보를 인식하는 방식을 ‘패턴인식 마음이론’으로 표현하고 있다. 생물학의 발전에 따라, 과학자들은 우리 뇌에서 인과적 사고를 담당하는 신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커즈와일은 마운트캐슬의 1978년의 신피질 논의를 통해서, 인간의 뇌 안에 신피질이 있으며, 신피질 안에 뉴런이 기동처럼 존재하고, 그 안에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²²⁾ 결과적으로 커즈와일은 특정 자극에 대해서 우리 뇌가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는가를 모델화하였다. 그것이 패턴인식 마음이론이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이 책에서 나는 인지, 기억, 비판적 사고를 담당하는 뇌 영역의 신피질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패턴인식 마음이론(pattern recognition theory of mind), PRTM을 제시할 것이다.” 최근 신경과학적 연구성과와 더불어 생각실험을 통해 신피질 전체에서 패턴인식 마음이론의 알고리즘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패턴인식 마음이론과 수확가속법칙을 결합하면, 엔지니어링을 통해 지능의 힘을 크게 확장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를 것이다.²³⁾

21) 이윤석, 『4차 산업혁명과 그리스도인의 삶』 39. 유발하라리는 그의 책 『호모데우스』에서 인간의 의식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며, 그 알고리즘을 기계에 이식하여 육체의 사망을 초월하는 불멸의 삶에 대해 논의하였다.

22) 커즈와일, 『마음의 탄생』 109. “신피질의 계층구조: 우선 신피질은 약 50만 개의 피질기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질 기동에는 대략 600개의 패턴인식기가 담겨있고, 패턴인식기에는 각각 100여 개의 뉴런이 담겨있다. 신피질 전체를 따졌을 때 패턴인식기는 총 3억 개, 뉴런은 총 300억 개 존재한다... 패턴인식기는 뉴런 100개 정도가 집적되어 있는 신피질의 기본적인 정보처리 모듈이다.”

23) 커즈와일, 『마음의 탄생』 188.



즉, 특정 자극이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면, 뉴런 100개 정도가 모여있는 패턴인식기가 그 자극을 인식하고, 피질 기둥의 반복적인 정보처리 과정을 통해서 신피질로 전달되는 것이다.²⁴⁾ 이렇게 뇌에 한 번의 인식이 이루어진 후 신피질은 지속적으로 학습과정을 거쳐서 지성이 발달한다. 그는 ‘패턴인식 마음이론’이 많은 연구결과와 제약에 대해서도 대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신피질 모형’임을 주장한다.²⁵⁾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개발²⁶⁾

커즈와일은 인간의 뇌 안에 신피질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구조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파악하였다. 그는 이제 반대로 컴퓨터의 입장에서 인간의 신피질에 접근한다. 즉 컴퓨터안에 신피질의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뇌와 같은 컴퓨터 하드웨어 제작을 시도했다. 뇌가 여러 자극 채널을 정보를 인식하는 것처럼, 컴퓨터에도 자극 입력 채널을 설정하였다. 컴퓨터의 입장에서 뇌의 기능을 구현하려고 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다. 바꿔말하면 컴퓨터 연산 능력 용량 또는 하드웨어이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궁극적으로 우리는, 인간의 신피질에 버금가는 기능과 유연성을 가진 인공신피질을 만들어낼 것이다. 인공 신피질이 인간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할지 상상해보라. 전자회로는 생물학적 회로보다 수백만 배 더 빠르게 작동한다. 초창기에는 이러한 속도를

24) 커즈와일, 『마음의 탄생』, 96-97. 반복적인 정보처리 과정이란 우리 뇌가 자동연상기능(autoassociation)과 불변이성(invariance) 기능을 통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것이다. 자동연상기능이란, 하나의 패턴을 보더라도 관련되어 있는 실체를 떠올릴 수 있는 기능이며, 불변이성이란 전혀 다른 패턴을 보면 그 패턴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불변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5) 커즈와일, 『마음의 탄생』, 143. 26)

26) 커즈와일, 『마음의 탄생』, 46. 알고리즘(Algorithm)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말한다. 커즈와일은 이 책에서 인간의 뇌에 알고리즘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인간의 뇌에 입력과 출력이 있으며, 그 사이에 인과관계를 가지는 신피질이 하는 일을 알고리즘으로 보고, 그 비밀을 밝히고자 노력했다.

인간의 뇌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컴퓨터의 병렬처리능력을 보완하는 데 쏟아 부었지만, 결국 디지털신피질은 생물학적 신피질보다 빨라질 것이며 그 속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다.”²⁷⁾

그의 말대로 뇌와 컴퓨터를 비교해보자. 뇌는 정보를 처리할 때 다소 느리다는 측면이 있지만, 대량병렬방식으로 작동한다. 즉 수많은 뉴런과 신경계가 동시에 활동한다. 그러나 디지털 회로는 뇌의 전기화학적 속도보다 1000만 배 빠르게 작동하며, 3억 개의 패턴 인식기들을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고, 그들을 연결하는 1000조 개의 연결을 모두 작동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컴퓨터가 거의 무한대와 같은 사고의 변수들을 계산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분명 한계가 있지만, 만약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드웨어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면, 그의 말처럼, 뇌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또는 사람처럼 사고하는 인공지능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유발하라리도 『호모데우스』에서 알고리즘이 개발에 대해서 논의했다. 즉, 인공지능이 스스로 사고하는 것을 시작할 때, 그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피조물로서의 컴퓨터가 아니라, 이제 주권자로서 진화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²⁸⁾ 또한 하라리는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지난 40억 년 동안 자연선택의 기간이었다면, 이제 지적인 설계가 지배하는 우주의 새 시대가 열리는 것으로 바라보았다.

진화론적인 수확가속법칙과 빨라진 컴퓨팅 기술

커즈와일은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진화론을 우주생성의 근본 원리로 확신한다. 더 나아가서 그는 진화의 원리를 인공지능 개발에 적용한다. 특별히 그는 진화의 속도와 관련하여 수확가속법칙을 설명함으로써 인공지능의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 책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장은, 진화과정은 추상성의 수준이 더 높아지는 과정이며, 그 결과 진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진화의 산물이 지닌 복잡성과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현상을 수확가속법칙(law of accelerating returns, LOAR)이라고 이름 붙였고, 이는 생물학적 진화는 물론 기술적

27) 커즈와일, 『마음의 탄생』, 188.

28) Y. N. Harari, 『호모 데우스: 미래의 역사』(Homo Deus: A Brief History of Tomorrow, 김영주역, 서울: 김영사, 2017), 467.

진화에도 모두 적용된다고 주장한다.”²⁹⁾

“나의 주요논제인 ‘수확가속법칙’은 정보기술의 근본적인 수준이 예측가능하고 기하급수적인 궤도를 따라 발전한다는 것이다. ‘앞일은 누구도 모른다’라는 전통적인 지혜를 거스르는 주장이다.”³⁰⁾

“컴퓨테이션기술과 통신기술의 기하급수적인 확장은 인간의 뇌의 작동방식을 이해하고 재창조하는 프로젝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노력은 단일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개별적인 뉴런에서 전체 신경회로에 이르기까지 뇌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소 모델링, 커넥톰(connectome: 뇌의 신경연결망) 지도 구축, 뇌 영역의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젝트의 결과들이 모여 달성된다. 이 모든 프로젝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커즈와일에 따르면 어떤 한 분야의 정보가 디지털화 될 때 수확가속법칙이 적용되어 기하급수적인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생물학의 DNA 정보와 게놈 정보가 디지털화 되자마자 생물학의 급격한 발달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가 개발하는 인공지능이 현재에는 다소 느릴 수 있지만, 일단 스스로 생각하는 지능 기계가 구현되기만 한다면 수확가속법칙과 하드웨어의 발달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빠른 성장을 경험할 것으로 본다. 커즈와일이 목표하고 있는 초지성을 갖춘 인공지능(울트라 지능)이 등장은 결국 등장하게 될 것이다.³¹⁾ 커즈와일은 이렇게 울트라지능의 등장으로 인해 인공지능이 무한히 확장되어 온 우주에 퍼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주의 궁극적인 미래라고 바라본다.³²⁾ 이윤석은 이러한 커즈와일의 주장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일종의 테크노피아를 지향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³³⁾

29) 커즈와일, 『마음의 탄생』 16.

30) 커즈와일, 『마음의 탄생』 361.

31) 커즈와일, 『마음의 탄생』 359.

32) Kurzweil, 『특이점이 온다』 35.

33) 이윤석, 『4차 산업혁명과 그리스도인의 삶』 153.

기독교 인식론의 기초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기독교인식론의 출발

이 글에서 인식론을 다루는 이유는 인공지능의 발달이 기독교 인식론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오고,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인공지능과 기독교 세계관이 결정적으로 부딪히는 영역이 인식론이라는 말이다. 기독교 인식론에 대한 정리는 커즈와일이 추구하는 인공지능의 인식론과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줄 것이다.

인식론은 참된 지식(true knowledge)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는지 등 진리 또는 참된 지식에 대한 철학적 탐구이다.³⁴⁾ 기독교 인식론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인간을 위해 행하신 일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바울은 성경이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시대마다 여러 저자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딤후 3:16-17)고 기록하였다. 사람은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행하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 성경은 기독교 인식론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로서 하나님과 사람의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독교 인식론의 기초이자 거시적인 지도이다.

다윗도 시편 19편에서 성경의 속성(nature)에 대해서 기술한 바 있다. 시편 19편 7-9절에 기록된 바를 보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시 19:7-9)³⁵⁾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던 모세오경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등이 좁은 의미에서 모두 모세 오경을 의도했다. 또한 다윗은 모세오경의 특징에 대해

34) Knight, Philosophy and Education, 35.

35) 진하게는 연구자가 표기함.

서 말했다. ‘완전하여, 확실하여, 정직하여, 순결하여, 정결하여, 진실하여, 의로우니’ 등이 모세오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비록 이 표현들이 1차적으로는 모세오경의 특징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사도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에서 밝힌 성경전체에 대한 영감을 고려한다면, 성경전체의 특징으로 확장해도 무방할 것이다. 즉 이 두 구절은 기독교 인식론에 있어서 성경이 가장 확실한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요 매개임을 말해 준다. 성경은 사람에게 하나님과 모든 실재에 대한 참된 지식을 제공한다. 즉, 성경은 기독교 인식론의 근본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기독교 인식론

기독교의 인식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하심을 통해 구현된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하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을 주심으로, 성육신하심으로, 사람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사람에게 참된 지식을 제공하신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사람에게 진리를 전달하셨다. 모세에게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진리를 나타내셨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내용은 세상과 사람의 창조, 그리고 사람의 범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으로부터 시작한다. 사람이 범죄한 그 현장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등장한다(창 3:15). 이후에 구속에 대한 계획은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언약 등 구속사적인 언약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점진적으로 구체화 된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구속의 역사에 대해 언약을 통하여 참된 진리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내시고 성경에 담아 두셨다.

둘째로,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인식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건은 기독교 인식론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또는 허브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 가운데 거하셨으며, 독생하신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기록한다(요 1:1, 14).³⁶⁾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유일한 진리로 소개하셨다(요 14:6). 이렇게 진리로 충만하시며,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들이 ‘진리의 모델이자 충만함’을

36) 강영안, 『종교개혁과 학문』(서울: SFC, 2016), 70. 강영안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로고스의 이성적인 측면에서의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빌 2:7, 요일 1:1). 즉,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진리의 모델이자 연결자가 되셨다.

셋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진리를 적용하신다. 기독교 인식론에 있어서 성령님은 진리의 적용자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요 14:26).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거하심으로(고전 3:16), 진리를 적용하시며,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식론적 사역에 대한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쉐퍼의 말을 들어보자. 그는 기독교 인식론의 근거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소통하심에 있다고 설명한다.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쉐퍼는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참된 사랑과 소통하심이 있었다.”고 기록한다.³⁷⁾ 또한 쉐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진리에 대한 소통에 대해서 무한하시며 개인적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의 밖에서 성경을 나타내시고, 또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사람 안에서 나타내심을 말했다. 정리하자면, 삼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기록과 성육신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사람에게 진리를 나타내신다.³⁸⁾

기독교 인식론의 통로: 하나님의 형상, 가정, 교회

기독교 인식론의 통로는 하나님의 형상, 가정, 교회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창 1:26-27).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들 중 일부를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에서 의와 거룩함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 지성, 감성, 의지 인간의 특징을 포함한다.³⁹⁾ 이 글에서 논의하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 인간에 의해서

37) Francis A. Schaeffer, *The God Who Is There: Speaking Historic Christianity into the Twentieth Century* (Chicago, IL: Inter-
versity Press, 1968), 113. “within the Trinity, before the creation of anything, there was real love and real communication.”

38) 진하계는 연구자가 표기함; 강영안, 『종교개혁과 학문』 97.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라는 표현에 대한 교부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 설명을 참조하라. “둘째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라고 했다고 해서, 클레멘스와 포퍼와
같은 객관적 인식론을 수용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진리가 한 개인의 주관적 생각이나 판단에서 나오는 것
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리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클레멘스는 진리는 그 원천에서 볼 때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리를 말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클레멘스가
‘얼굴 없는 객관적 인식’을 주장하는 철학자들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개발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적 속성과 지적 능력을 공유하기 때문이다.⁴⁰⁾

기독교 진리가 전달되는 통로는 가정과 교회이다. 구약성경에서 기독교의 진리는 1차적으로 가정에서 아버지를 통해 가족들에게 전달된다. 모세는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했다(신 6:7-9). 신약성경에서 진리의 전달에 대한 통로와 책임은 교회에 주어졌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다(마 28:19-20).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쳤으며(행 2:42), 이 책임은 교회 안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 전수되었다(딤후 5:17). 신약의 교회는 가정과 교회에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했다. 정리하자면, 기독교 인식론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성경안에서 진리는 가정과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교육되고 전수된다.⁴¹⁾

39) 강영안, 『종교개혁과 학문』, 68. 강영안은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지적 능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렇게 보면 인간의 지적 능력, 앎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적 능력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윤석, 『4차 산업혁명과 그리스도인의 삶』, 75. 저자 이윤석은 안토니 후크마의 인간론과 벌코프의 인간론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안토니 후크마는 사람이 피조된 인격체로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임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영적, 도덕적, 자연적인 문제들에 대한 자유의지를 가진다. 둘째로, 개혁주의 신학자 벌코프는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보았다. 죄로 인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이 두 요소를 회복한다. 또한 벌코프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지성, 감성, 의지, 언어, 도덕 등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또한 벌코프는 영혼과 영혼의 불멸성, 세상 만물에 대한 통치권도 하나님의 속성중 하나로 언급하였다.

40) Norman L. Geisler and Ronald M. Brooks, Come, Let Us Reason: An Introduction to Logical Thinking (Grand Rapids, MI : Baker Book House, 1990), 18. Logic flows from God. It is part of his rational nature, which as been given to us in his image. Using logic in theology is simply applying God's test to our statements about God. It is God's way for us to come to the truth.

41) 조성국, 『종교개혁과 교육: 종교개혁자들과의 대화』 (서울: SFC, 2016), 61-62. 칼빈은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의 반영임을 말하며, 부모의 역할을 강조했다.

레이 커즈와일의 인공지능 개발과 기독교 인식론의 충돌

커즈와일의 진화론적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의 충돌

커즈와일의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 첫 번째 지점은 커즈와일이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그의 여러 책에서는 진화론과 진화하는 생물체의 특징이 헤아릴 수 없이 언급된다. 또한 모든 사고와 논의의 기초도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수십만 년 동안 진화를 거쳐 우리 인간이 머릿속에 장착하게 된 하드웨어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⁴²⁾

“생물학적 진화도 마찬가지다. 진화과정에서 우연히 계층적 학습 능력을 갖춘 신경 매커니즘을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신경 매커니즘이 진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 즉 생존에 지극히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약 6500만 년 전에 일어난 백악기 말의 대혼란은 신뢰질이 없어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재빨리 적응하지 못한 수많은 생물들의 멸종으로 이어졌다.”⁴³⁾

56

커즈와일이 가지고 있는 진화론적 세계관은 그가 시도하는 인공지능 개발의 전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에게 있어서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연만 존재할 뿐이다. 그에게 있어서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 역시 영혼이 없이 가장 뛰어난 지성을 가진 동물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⁴⁴⁾ 그는 인간이 가장 잘 발달하고 진화한 동물이며, 뛰어난 지적 능력에 기초하여 앞으로 탁월한 초지성을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비록 커즈와일이 개발해 냈던 많은 기술들이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진화론적 세계관에 대해서는 기독교 진영에서 틀림을 인식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42) 커즈와일, 『마음의 탄생』, 117.

43) 커즈와일, 『마음의 탄생』, 124.

44) Andrew Newberg and Mark Robert Waldman, *How God Changes Your Brain: Breakthrough Findings from a leading Neuroscientist* (Ballantine Books, New York: 2010), 10. 현대 뇌과학자 중 뉴버그와 왈드먼도 커즈와일과 같이 신경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뇌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스템으로 생각한다. “From a neurological perspective, God is a perception and an experience that is constantly changing and evolving in the human brain, and this implies that America’s spiritual landscape is virtually impossible to define.”

인간 경험이 진리의 기준이 되는 빅데이터

커즈와일의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이 충돌하는 두 번째 지점은 경험적 빅데이터이다. 커즈와일은 진화론자로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사고하기 시작할 때, 토양과 같은 빅데이터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현존하는 디지털 자료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거의 모든 모듈 간의 연결은 경험에서 만들어진다(다시 말해, 우리 마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키워지는 것이다).”⁴⁵⁾

인공지능이 현존하는 경험의 총합을 빠른 시간 안에 검색하고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 유익을 제공할 수 있으나, 참된 지식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존 듀이가 경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시각과 커즈와일이 빅데이터에 가지는 입장이 유사하다. 『민주주의와 교육』이라는 책에서 존 듀이는 인간을 자연적 에너지와 연결된 생물학적 유기체(biological organism)로 보았으며, 지속적으로 적응하는 유기체(readapting organism)로 보았다.⁴⁶⁾ 존 듀이가 경험의 지속(continuity of experience)를 그의 경험주의 이론의 인식론적 기초로 삼았다. 이와 같이 커즈와일도 존 듀이와 같이 축적된 경험의 데이터를 인식론적 기초로 삼고 있으며, 지속적인 적응 과정을 거쳐 인공지능이 지식을 가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존 듀이의 실용주의가 진리의 기준을 유용함으로 바꾼 것처럼,⁴⁷⁾ 커즈와일은 논의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도 실용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전제를 기독교 진영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세계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세 번째 충돌지점은 알고리즘의 개발이다. 커즈와일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면서 알고리즘의 설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는 먼저 생물학의 도움을 받아서 뇌의 신경질의 구조와 세

45) 커즈와일, 『마음의 탄생』, 141.

46) John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London: The Free Press, 1966), 8

47) James Davison Hunter, *The Death of Character: Moral Education in an Age without Good or Evil* (New York: Basic Books, 2000), 기독교 사회학자 Hunter는 듀이의 이론에 있어서 경험의 위치를 설명한다: In line with Dewey's pedagogy, all of these values are “dictated by reason” and “subject to reinterpretation in the light of new experiences.” The values can and should “be reappraised from time to time.”

밀한 기능을 관찰하였다. 또한 컴퓨터 안에 인간 뇌의 신경피질이 담당하는 기능을 구체화하여 인공신경피질 개발을 목표로 연구하였다. 이 때 개발된 인공 신경피질이 연산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알고리즘 안에 ‘개발자의 세계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⁴⁸⁾ 인공 신경피질을 개발할 때 최소한의 연산규칙만 제시하든지, 가치중립적인 규칙이 제시 된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참된 지식과 거리가 있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인식론적 위협: 초지성과의 접촉을 통한 지성의 확장

커즈와일은 충분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면 2045년 경에는 인간의 뇌와 클라우드의 인공지능을 무선으로 연결하며, 인간의 지능이 10배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울트라 지능 기계가 탄생하고, 인공지능이 폭발하는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같은 기술이 실제로 구현된다면, 인식론의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즉, 인간이 세계관을 가지고 인식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정보가 인간의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슈밥 회장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디펜던트” 잡지를 인용했다.

58

“인공지능의 영향력은 단기적으로는 누가 통제하느냐에 달렸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인공지능이 통제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혜택을 누리고 위험은 피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⁴⁹⁾

커즈와일이 제시하는 인공지능 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을 훼손할 수 있다. 인간이 기술사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된 기술이 인간의 인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48) K. Schwab, 『제4차 산업혁명 The NEXT』, 64. 클라우드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개발에 있어서 처음부터 세계관적 요소인 가치에 대해서 공론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49) Schwab, 『제4차 산업혁명』, 158-159. “이론 물리학자이자 저자인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과 동료 과학자인 스투어스 러셀(Stuart Russell), 맥스 테크마크(Max Tegmark), 프랭크 윌첵(Frank Wilczek)은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지에서 인공지능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다.”

기독교 교육의 대응과 교육적 적용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이 혼재한 미래 사회에 대한 이해: 다양한 교육 목회적 접근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 사회의 문턱을 지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커즈와일이 기록한 대로, 초지성을 지닌 인공지능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1차부터 4차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들과 그 일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스 슈밥 회장도 그의 책 『제4차 산업혁명』에서 비슷한 현실을 제시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지구촌 곳곳에서는 아직도 과거의 산업혁명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인구의 17퍼센트가 아직도 전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약 13억 명에 이른다. 제3차 산업혁명 역시 마찬가지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억 명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⁵⁰⁾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사회를 살펴보다도,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1차 산업혁명의 산물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 2차 산업혁명의 산물인 철강, 석유, 전기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있다. 또한 현대사회가 거의 지나고 있는 3차 산업혁명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나노 기술, 컴퓨팅, 사물인터넷, 3D 인쇄, 자율차량의 분야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물론 제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명이 1차로부터 3차 산업혁명 분야의 직업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로부터 4차 산업혁명의 산물에 종사하는 다양한 계층이 종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예상이 말해주는 바는, 교단과 교회가 다양한 계층에 대한 목회적 돌봄을 시행하고, 교육목회적인 차원에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앙교육을 시행해야 함을 암시한다.

시스템 리더십의 필요: 쥘인 쥘아웃 전략

또한 이와 같이 급변하면서도 혼재된 사회 속에서 개혁주의 신학 위에서 변화를 이해하

50) Schwab, 『제4차 산업혁명』, 27.

51) Schwab, 『제4차 산업혁명』, 77. “리더는 갈수록 똑똑해져가는 지능화 기계(컴퓨터)와 함께 협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동력을 대비시키고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52) Schwab 『제4차 산업혁명 The NEXT』, 7-8.

고 대응하는 지속적 담론과 리더십이 필요하다.⁵¹⁾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클라우드 슈밥의 두 번째 책 『제4차산업혁명 The NEXT』의 추천사에서 시스템리더십의 필요를 말했다. 즉, 그에 따르면 “변화를 위한 공동의 비전을 함양하고 글로벌 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다.”⁵²⁾ 그는 줌인과 줌아웃을 소개하며, 미시적 거시적인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할 것을 이야기했다. 중요한 것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준비한 미래가 아니라 던져진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슈밥은 이야기한다.⁵³⁾

30년 기독교 교육 대계: 고신교단의 빅데이터 구축

슈밥 회장은 데이터 관리와 그것에 기초한 응용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데이터가 의미 있는 인풋이나 실행 가능한 통찰력으로 전환되어야 가치가” 흐른다고 말했다.⁵⁴⁾

고신 교단의 빅데이터 구축은 장단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만약 커즈와일이 설명한 대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들 가운데 고신교단이 구축한 빅데이터에 접속하였다고 가정해보자. 고신 교단의 탄생, 고신 교단의 역사, 고신 교단의 신조, 고신 교단의 설교, 고신 교단의 교육 등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구축된 고신 교단의 빅데이터가 한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반드시 영향을 미칠 것이다.⁵⁵⁾ 또한 현실에서 교회에 대한 정보를 찾는

53) Schwab, 『제4차 산업혁명 The NEXT』, 91. “우리가 즉각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기술은 우리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우리의 설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미래가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던져진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는 뜻이다.”

54) Schwab, 『제4차 산업혁명 The NEXT』, 146.

55) 류태호,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 (서울: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152. 류태호는 무크(Massive Open Online Courses: Mooc)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미 유명한 대학들(하버드대, 메사추세츠공대MIT, 스탠퍼드대, UC버클리대)이 참여하여 무크를 통하여 무료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무크와 같은 다양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코스라coursea, 에드엑스EdX, 유다시티Udacity, 칸아카데미Khan Academy등이 있다. 영국에는 퓨처런FutureLearn, 독일에서는 아이버시티iversity, 하소플래트너 연구소Hasso-Plattner-Institute가 운영하는 오픈삽 OpenSAP 등이 있다

56) 최진기, 『한 권으로 정리하는 4차 산업혁명』 (서울: 이지퍼블리싱, 2018), 103.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도서중 출간 된 후 1년 만에 16쇄나 기록한 최진기의 책에 따르면, “이렇듯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빅데이터를 잘 확보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정보화 수준이 높은 국가여야 할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데이터화되어 정보로 저장되어야 하니까요”

사람이 온라인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검색을 할 때 당연히 빅데이터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교회나 교단의 정보를 접하게 될 것이다. 빅데이터 구축은 교단과 교회의 성장과도 연결될 것이다.⁵⁶⁾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고신 교단의 탄생으로부터 모든 고신 교단의 역사적 자료들을 디지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단계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고신 교단의 자료들을 교단 내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의 리더들과 디지털 방식으로 공유함으로써 담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작업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단계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현재 이후의 고신의 디지털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쌓는 단계이다.⁵⁷⁾ 네 번째 단계는 약한 인공지능의 개발을 통해 고신의 빅데이터 가운데 유의미한 자료들을 재생산하고, 고신 교단의 연결성과 확장성을 강화하는 단계이다.⁵⁸⁾ 정리하자면 제4차 산업혁명이 필연적으로 다가올 미래라면, 적극적인 대응으로서 그 기초를 이루는 빅데이터에 성경적이며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하며, 교단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독교 교육의 방패: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강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인공지능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강화는 가장 중요한 방패와 같다.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이다. 첫째로, 빅데이터는 그동안 3차 정보혁명을 거치면서 형성된 것으로서 온라인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경험의 총합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경험 안에는 반드시 사람들의 사고,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면 개인의 세계관이 들어있다. 특정 정보가 개인의 소유로만 존재할 수도 있으나, 세계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세계관에

58) 류태호,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 142. 류태호는 모바일 시대 이후로 마이크로러닝의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설명한다. 즉 학습 정보가 노출되는 시간을 90초 미만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동영상 제작할 때도 90초 미만의 동영상들을 제작 및 제공하여 학습자가 작은 정보를 짧은 시간에 습득하며 장기기억화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밀레니엄 세대의 집중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초라는 수치를 고려한다면 마이크로러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빅데이터의 구축 이후에 발견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의 예로서 학습 분석(Learning Analysis)이 있다. 교육용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다(186). 대표적으로 2009년 퍼듀대학교에서는 시그널스signals라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개강 이후 2주 내에 위험군 학생을 예측하여 조치하였다.

59) 조성국, 『2017년 기독교교육철학 강의안』(부산, 고신대학교 인쇄실), 6.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둘째로, 인공지능의 개발에서 핵심 요소 중의 하나는 알고리즘의 개발과 적용이다. 알고리즘은 컴퓨터가 사고하는 규칙과 방식이다. 알고리즘은 개발자의 세계관으로부터 절대로 구분될 수 없다. 전통적 세계관(이상주의, 현실주의, 영속주의 등), 현대 세계관(실용주의, 실존주의, 인간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적 세계관(사회주의, 공산주의, 신마르크스주의 등) 등 이들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한 세계관들은 현대 시대에도 혼재되어 나타난다.⁵⁹⁾ 제임스 사이어라는 세계관 학자는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이라는 책에서 위에 언급된 세계관들에 대해서 일곱 개의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세계관을 비교 분석하였다(최고의 실재, 외부의 실재, 인간, 인간의 죽음, 지식의 가능성, 윤리, 역사). 제임스 사이어는 이 책을 5번이나 개정하였는데, 가장 최근에 개정 작업을 한 결과 그의 책에서 더욱 분명한 세계관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세계관은…근본적인 마음의 지향(orientation of heart)”이라고 정의하였다.⁶⁰⁾ 노먼 가이슬러(Norman Geisler)와 윌리엄 왓킨스(William Watkins)도 “세계관이란 실재의 모든 것을 조명하고 해석하는 방식이다. 세계관은 한 사람이 삶과 세계의 정보에서의 의미를 찾는 해석에서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며 세계관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⁶¹⁾

62

그러므로 교단적 교육적 차원의 적용으로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교단 내 교육기관과 교회에서 강화함으로써,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교과서 개발

커즈와일이 말하는 인공지능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학교와 교회학교의 교실 환경이 많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학자이자 미래교육학자인 류태호는 미래 교실의 변화와 관련하여 교과서의 디지털화, 무료 전자 책의 보급,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통한 생

60) James W. Sire, *The Universe Next Door: A Basic Worldview Catalog*, 5th ed, (IL,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9), 20. “A worldview is a commitment, a fundamental orientation of the heart, that can be expressed as a story or in a set of presuppositions (assumptions which may be true, partially true or entirely false) that we hold (consciously or subconsciously, consistently or inconsistently) about the basic constitution of reality, and that provides the foundation on which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61) David A. Noebel, *Understanding the Times: The Collision of Today's Competing World Views*, (Colorado Springs: Summit Press, 2006), 19.

생한 체험 교육, 인간교사와 로봇교사의 공존, 교육용 빅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미국 조지아공대 아속 고엘(Ashok Goel) 교수는 인공지능을 수업에서 사용한 예가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유비쿼터스 교육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다.⁶²⁾ 류태호가 말하는 교육의 변화는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이러한 현실이 갑자기 다가오고 나서 필요한 부분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단계부터 고차원적인 단계까지의 교육 환경의 변화를 예견하고, 현실에 맞추어서 적절한 디지털 자료들을 개발 및 발전시켜가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새로운 교육과정이 개설된다면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관련하여 가까운 시일에 다가오게 될 변화에 맞추어 교육 자료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종이로 제작된 교회학교 교재와 함께 디지털 교과서는 당장 예상하고 준비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⁶³⁾

나가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미래이다.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이다. 인공지능 개발 분야에서 레이 커즈와일은 반드시 논의해야 할 개발자(Main Voice)이다. 이 글에서는 커즈와일의 연구업적을 요약했다. 그는 피아노 소리를 디지털화 하였으며, 문자와 음성을 인식하는 기술을 발명함으로써 현대의 기술에 공헌했다.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전에 몇가지 정의를 제시하였다(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인식론).

이 글의 첫 번째 핵심 부분은 커즈와일이 논의하는 인공지능의 매커니즘이다. 커즈와일은 인간의 뇌의 신경질의 기능을 최소단위까지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신경질의 기능을 컴퓨터 안에 구현하여 인공지능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사고의 재료는 빅데이터이고,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패턴인식 마음 이론이다. 그리고 하드웨어의 발달을 통해 수확가속법칙이 작동함으로 울트라 지성을 가진 인공지능이 실현가능하다.

이 글의 두 번째 핵심 부분은 기독교 인식론이다. 이 글에서 인식론을 다루는 이루는 인공지능과 기독교 세계관이 부딪히는 영역이 바로 인식론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인식론의 근

62) 류태호,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 60.

63) 최진기, 『한 권으로 정리하는 4차 산업혁명』, 234. “새롭게 등장하는 컴퓨터를 배척하거나 남의 일로 치부하지 않은 친구들이 정보화 혁명의 승자가 되었듯, 다가오는 4차 혁명 역시 그것을 배척하거나 애써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겁니다.”

본은 성경이다. 기독교 인식론의 시스템은 삼위하나님의 사역이다. 기독교 인식의 통로는 하나님의 형상, 가정, 교회이다.

이 글의 세 번째 핵심 내용은 커즈와일의 인공지능 개발과 기독교 인식론의 충돌이다. 커즈와일이 가지고 있는 진화론적인 세계관,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빅데이터, 특정 세계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알고리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의 접촉에 대해서 논의하였다.⁶⁴⁾

끝으로,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인공지능의 개발과 관련하여 교육목회적 적용을 제시하였다. 1)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가 확실하지만 그 시대에도 이전의 산업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교육적 돌봄이 필요하다. 2) 시스템 리더십과 지속적 담론이 필요하다. 3) 고신교단의 빅데이터 구축은 30년을 내다보는 가장 필수적인 준비이며, 온라인 플랫폼은 고신 교단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생태적 환경이다. 4)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강화는 다가오는 시대에 대한 믿음의 방패를 제공하는 것이다. 5)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총회교육원에서 개발하는 교육과정의 디지털화를 필요로 한다.

이미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기독교 세계관과 충돌하는 인식론적 지점의 이해와 적극적인 교육목회적 적용이 필요하다.

64) Jason Thacker, "Why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a threat to human dignity," <https://erlc.com/> (2019년 5월 15일 접속)

참고문헌

- 강영안, 『종교개혁과 학문』. 서울: SFC, 2016.
- 류태호,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 서울: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이운석, 『4차 산업혁명과 그리스도인의 삶』.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8.
- 조성국, 『2017년 기독교교육철학 강의안』. 부산, 고신대학교 인쇄실, 2017.
- 조성국, 『종교개혁과 교육: 종교개혁자들과의 대화』. 서울: SFC, 2016.
- 최진기, 『한 권으로 정리하는 4차 산업혁명』. 서울: 이지퍼블리싱, 2018.
- Dewey, John.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London: The Free Press, 1966.
- Geisler, Norman L. and Ronald M. Brooks, Come, Let Us Reason: An Introduction to Logical Thinking. Grand Rapids, MI : Baker Book House, 1990.
- Harari, Y. N. 『호모 데우스: 미래의 역사』. Homo Deus: A Brief History of Tomorrow. 김영주 역. 서울: 김영사, 2017.
- Hunter, James Davison. The Death of Character: Moral Education in an Age without Good or Evil. New York: Basic Books, 2000.
- Knight, George R. Philosoph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in Christian Perspective. Berrien Springs, MI: Andrews University Press, 2006.
- Kurzweil, Ray. 『마음의 탄생: 알파고는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훔쳤는가?』. 윤영삼 역. How to Create a Mind: The Secret of Human Thought Revealed, 서울: 크레센도, 2012.
- Kurzweil, Ray. 『특이점이 온다』. 김명남 역. 서울: 김영사, 2007.
- Newberg, Andrew and Mark Robert Waldman, How God Changes Your Brain: Breakthrough Findings from a leading Neuroscientist. Ballantine Books, New York: 2010.
- Noebel, David A. Understanding the Times: The Collision of Today's Competing World Views. Colorado Springs: Summit Press, 2006.
- Schaeffer, Francis A. The God Who Is There: Speaking Historic Christianity into the Twentieth Century. Chicago, IL: Inter-varsity Press, 1968.
- Schwab, Klaus, 『제4차 산업혁명 The NEXT.』 Shap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김민주, 이엽 역. 서울: 새로운 현재, 2017.
- Schwab, Klaus. 『제4차 산업혁명』.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송경진 역. 서울: 새로운 현재, 2016.

Sire, James W. *The Universe Next Door: A Basic Worldview Catalog*. 5th ed. IL,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9.

Wilhoit, James C. and John M. Dettoni. *Nurture That Is Christian: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Christian Education*. IL, Wheaton: Baker Books, 1998.

<https://www.forbes.com> (2019 5월 10일 접속).

Thacker, Jason. "Why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a threat to human dignity." <https://erlc.com/> (2019년 5월 15일 접속).

Staffs, "Artificial Intelligence: An Evangelical Statement of Principles." <https://erlc.com/> (2019년 5월 15일 접속).

목회포럼

- 고신교회의 역사와 신앙 (나삼진)
- 목회자리더십 - 리더의 새로운 사역 구상 101 (남우택)
 - 예배중심의 목회, 예배중심의 리더십 훈련 (전남수)
-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교회 제자양육 훈련 (오승균)

고신교회의 역사와 신앙

나삼진 목사(재미총회 교육위원장, 오렌지카운티살롬교회)

한국교회와 고신교회 역사적 뿌리

신사참배 강요와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사도들의 신앙과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가진 개혁주의 신앙을 이어 받은 역사적인 교회이다.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유산이 영국과 미국을 거쳐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한국에 전래되어, 조선말 중국과 일본을 통해 선교사들과 접촉되어 자생적으로 성경번역이 이루어지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다. 대한제국 시절 1907년 평양 신학교 첫 졸업생들이 안수를 받게 되면서 총로회가 조직되었고,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성립되었다. 한국교회는 1919년 삼일운동에 앞장섰고, 이후 학교와 병원의 설립, 개척전도와 농촌 계몽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사회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였다. 대한제국이 망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발전된 나라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나라임을 깨닫고 많은 지식인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기독교 성장의 요인이 되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자전, 자치, 자립의 세 원칙에 기반한 네비우스 선교정책에 의해 자립 가능한 교회로 성장하였고,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기에 극심한 시련을 겪었지만,

1970년대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교회성장을 이끌었다. 한국교회는 오늘날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고신교회의 역사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역사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고신교회의 형성과 경건에는 다른 장로교회와는 다른 독특한 역사가 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제국주의의 종교적 박해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 1937년 일본 제국주의는 중일전쟁을 시작해 중국 병탄을 목적으로 전선이 확대되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정신적인 통일을 추구하였는데, 통감부의 강력한 정책은 학교와 교회에 신사참배 강요로 나타났고, 결국 제27회(1938년) 장로교 총회에서는 신사참배가 국가의식이며 종교행위가 아님을 결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결의에 따라 총회 대표단이 평양신사에 참배하고, 이후 한국교회 대표단이 일본신사를 방문하여 참배하였다.

이후 한국장로교회는 신사참배 반대자들은 투옥된 가운데 급격히 무너졌는데, 1940년대에는 전쟁 지원에 앞장서 교회 종과 늦그릇을 헌납하여 무기를 만들었으며, 국방헌금, 시국강연회 등으로 친일과 부일에 앞장서면서 교회가 훼손되었다. 이 시기에 한국교회는 천여 교회가 폐쇄되었고, 200여 명이 투옥되었으며, 주기철 목사 등 50여 명이 순교했다.

해방과 교회쇄신운동과 교회 분리

1945년 해방과 함께 20여 명의 투옥된 지도자들이 평양감옥, 청주감옥에서 나왔다. 이들은 일제하 친일부일행위에 대해 회개운동을 전개하였고, 한상동, 주남선, 소냥원 목사 등은 1946년 9월 20일 고려신학교(현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를 설립, 지도자 양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 쇄신운동은 친일 교계 지도자들의 반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고, 1952년 고신을 지지하는 교회는 총회에서 축출되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 교회와는 달리 기독교계에서도 이러한 친일청산 없이 친일, 부일한 이들이 해방 후 한국교회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해방 후 국회에서 반민특위를 구성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친일행위자를 처벌하고자 하였지만 실패하여 친일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민족정기가 훼손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이런 과정으로 1951년 기장측(한신대학 계열)이 분리되고, 1952년 고신측(고신대학교 계열)이

분리되었으며, 1959년 연동측(현 통합측, 장로회신학대학 계열)과 승동측(현, 합동측, 총신대학교 계열)이 분리되어, 오늘날 한국장로교회 4대 장로교단으로 존재하고 있다. 한국장로교회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분열로 지금은 200여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다.

고신교회의 신앙과 경건

고신교회는 한국교회사의 특수한 역사와 상황이 빚어낸 독특한 신앙과 경건을 가지고 있다. 초기 고신교회의 신앙과 경건은 한상동, 주남선 목사의 순교정신이 박윤선 목사의 개혁주의 신학을 만나고, 손양원 목사와 장기려 박사의 사랑의 실천에 송상석 목사의 절제운동의 전통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

한상동 목사의 경건과 순교신앙

고신의 신앙과 경건은 한상동 목사의 순교정신에서 출발한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반대운동은 이기선(평안북도), 주기철(평안남도), 한상동(부산, 경상남도), 손양원(전라남도), 한부선(만주) 등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주기철과 한상동은 신사참배 반대에 대한 확신과 함께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기철은 개인적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하였지만, 교회의 피해가 가중될 것을 우려해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상동은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전개하면서 일본경찰의 압력으로 문창교회를 사면해야 했고, 밀양마산교회의 청빙을 받아 시무하면서 전국을 다니며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그런 면에서 한상동의 반대운동이 주기철의 그것보다 더 조직적이었고, 강력했던 것이다.¹⁾ 그러나 한상동은 1940년 일제검속에 체포되어 6년 가까이 평양감옥에서 영어의 몸이 되었다. 당시 장기수는 감옥의 형편을 고려할 때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한상동은 옥중에서 당시로서는 매우 위험한 질병이었던 폐결핵을 앓았고, 신유의 체험을 하였다.

그는 해방 후 8월 17일 출옥하여 다른 출옥성도들과 함께 몸의 회복과 요양을 하면서 다른 출옥성도들의 기도회를 가지며 한국교회 교회쇄신운동을 준비했다. 그는 해방 후 주기철이 시무하였던 산정현교회의 청빙을 받아 시무했는데, 초량교회, 문창교회, 산정현교회 등

1) 한상동에 대해서는 이상규 편, 《한상동과 그의 시대》, (서울: SFC, 2006) 제1부를 보라.

세 번에 걸친 목회지 계승은 주기철과 한상동이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한국교회는 한상동이 주기철을 이을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산정현 교회가 주기철의 후임자로 그를 청빙하였던 것에서 볼 수 있다. 한상동은 공산당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점차 심해지면서 목회를 계속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모친의 별세 소식을 듣고 남하하였다.

그는 부산의 대표적인 초량교회의 청빙을 받아 목회를 하면서 주남선과 박윤선과 협력하여 1946년 9월 20일 고려신학교를 개교하였다, 손양원도 뜻을 함께 하였다. 1951년 총회에서 고려신학교는 총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총회에서 축출되었다. 그는 총회가 시무하던 초량교회의 명도를 요구하였을 때 95%의 성도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당을 양도하고 빈손으로 나와 삼일교회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자기희생의 자세는 당시 교단분열의 와중에서 한국교회의 귀감이 되었다. 서울 장신대 문성모 총장은 “한상동 목사가 순교했다면 주기철, 손양원과 함께 3대 순교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한국교회를 위해 살려두신 생육신”이라 말했다.²⁾

박윤선 목사의 개혁주의 신학

고신의 경건과 신앙을 주형화한 또 하나의 줄기는 박윤선의 개혁주의 신학이었다. 박윤선은 1946년 고려신학교 개교와 함께 고신에 몸담아 14년 동안 고려신학교 교수와 교장으로서 귀한 봉사를 하였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 유학해, 메이첸과 반틸에게서 개혁주의 신학을 배웠고, 독학한 네덜란드어로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신학의 정수를 접할 수 있었다.³⁾ 그는 성경주석을 발간해 20세기 한국교회 강단에 가장 강력하게 신학적 영향을 끼친 분이다.

박윤선의 신학은 박형룡의 신학과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박형룡의 신학이 미국의 청교도적 보수신학으로, 정통주의, 보수주의 혹은 근본주의라는 용어를 선호하였고, 박윤선은 개혁주의 혹은 개혁파라는 용어를 선호하였고 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였다.⁴⁾ 이근

2) 문성모, “한상동 목사 설교”,

3) 박윤선의 신학적 평전으로 서영일의 박사학위 논문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와 이상규의 “개혁주의 신학의 초석 박윤선”을 보라. 이상규 편, 《한상동과 그의 시대》, 128-137.

4) 이상규,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235.

삼, 손봉호도 같은 관심으로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하였다. 박윤선은 1960년 고신을 떠나기까지 고려신학교의 교수와 교장으로서는 14년 동안 귀한 봉사를 하였다. 박윤선은 고려신학교 초기 거의 유일한 교수로서 그의 신학이 초기 고신의 신학이었다.

박윤선은 고신이 환원한 후 합동측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후 총신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다가, 합동측의 고질적인 교권이 총회신학교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학교육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김명혁, 신복운, 박형용 등과 함께 합동신학교를 설립하여 교장으로, 명예교장으로 마지막을 보내었다. 홍치모의 지적과 같이 한상동과 박윤선이 함께함으로써 행복하였고, 서로 나누어짐으로 함께 불행했다. 그는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식에서 평생 한국선교를 위해 수고한 한부선과 함께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손양원 목사와 장기려 박사의 사랑의 실천운동

고신의 신앙과 경건을 형성하였던 셋째 요소는 손양원의 사랑의 실천과 장기려의 사랑의 인술이다. 손양원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아버지 손종일 장로의 신앙양육으로 성장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여수 애양원에서 목회하며 구라 선교를 하였다. 그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으로 5년을 투옥되었다가 해방과 함께 출옥하였다. 손양원은 1946년 고려신학교 설립 당시에 설립기성회에 참여하였다.⁵⁾ 그는 1949년 여수순천반란사건 때 두 아들 동인, 동신이 순교를 당하였고, 자신도 한국전쟁기에 애양원을 지키다가 순교해 삼부자가 순교했다.⁶⁾ 그는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웠는데, 한국교회 130년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장기려는 예수를 닮은 사랑의 인술로 ‘성자’라 칭송을 받는 인물이다. 그는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태어나 독실한 그리스도인 할머니 이경심의 신앙적인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⁷⁾ 그는 경성의전에서 의학을 공부해 의사가 되었고, 1940년에는 기흥병원(평양연합기독병원)의

5) 그는 1948년부터 순교 때까지 고려신학교 초대 총무로 봉사를 했다. 오병세는 당시 총무가 오늘날의 홍보대사와 같은 역할이었다고 증언하였다. 나삼진과 오병세와의 대화, 2012. 6. 10.

6) 그의 장례식에 고려고등성경학교 교장 오종덕 목사가 사회를 하고, 고려신학교 교장 박윤선 목사가 설교를 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 시기는 아직 고신교회가 총회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총회측에 속하였으나, 그는 고신과 같은 신앙과 정신을 갖고 있었다.

7) 지강유철, 《장기려 그 사람》, 서울: 홍성사, 2007. 53-60.

외과과장으로 일하였으며, 잠시 김일성대학 교수로 일했으나, 공산당 정권과 함께 할 수 없어 월남하였다.

1951년 6.25전쟁 후 피난민이 부산에 몰리자 한상동, 전영창, 박손혁과 함께 복음병원을 시작하여 한국전쟁기 고통당하던 사람들에게 의술로써 복음의 빛을 드러나게 했고, 평생 복음병원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했다.⁸⁾ 그는 한국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으로 청십자의료보험 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이것이 훗날 한국이 국민건강보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장기려는 국가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공로로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일컫는 막사이사이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또 하나의 흐름은 초대총로회장 이약신과 출옥성도 조수옥의 사회사업 정신이다. 조수옥은 20세의 나이로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동참하여 해운대 백사장 기도회를 비롯하여 한상동의 협력자였고, 평양감옥에서 5년 이상 옥고를 치루었다. 그는 출옥 후 마산에 정착하여 인애원을 설립, 사회사업에 헌신하였는데, 수많은 어린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헌신하였다. 초대 총로회장을 지냈던 이약신도 목회와 사회사업을 병행했고, 한형세, 한정교, 지득용, 박재석 장로 등에게서도 볼 수 있다. 손양원의 1940년대 구라선교나 한형세 등의 한국전쟁 이후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사회사업은 그 시대에 이웃 사랑의 실천현장이었다.

송상석 목사의 절제운동

넷째, 고신교회의 신앙과 경건에는 송상석의 절제운동 전통이 함께 있다. 송상석은 일제강점기에 기독교 절제운동의 총무로서 기독교 절제운동을 전개하였고, 박형룡의 《신학난제선평》 편집과 교열을 하였으며, 《조선예수교장로회 50주년 역사화보》를 편집하였다. 1960년 송동측과 합동 당시 총회장으로서 행정적인 예지로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환원이후 고신의 행정의 체계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가 경남노회에 속해 있어 해방과 함께 자연스럽게 고신교회에 합류하게 되었고, 고려신학교 개교 때에 목숨을 걸고 박형룡을 만주에서 모시고 오는 봉사를 하였다. 그는 총회측과 분리되면서 교회의 소송 문제에 집착하여 박윤선과 갈등을 겪게 되었다. 그가 오랫동안 교

8) 장기려에 대해서는 지강유철 《장기려 그 사람》, 서울: 홍성사, 2007과 이상규의 “선한 의사 장기려”를 보라. 이상규 편, 《한상동과 그의 시대》, 219-242.

회 재산분쟁에 관여했는데, 초기에는 고신교회 성도들이 많았지만, 분쟁이 교회의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던 고신계 성도들이 몇 차례 교회를 설립해 떠나면서 교회 내 소수가 되었고, 대법원에서 “교회의 재산은 교인의 총유”라는 대법원 판례를 얻게 되었다.

박윤선은 고려신학교 10년을 맞아 고려신학교와 고신교회의 당면 과제를 제시했는데, 1958년까지 《파수군》에서 격렬한 논쟁을 해 그 여파로 박윤선이 고신을 떠났다.⁹⁾ 그는 행정적인 예시로 합동과 환원 당시에도 총회 창립 50주년 약사 편찬에서 총회측의 고신측 단절 이후 새로이 형성된 고신측 역사를 병기하였고,¹⁰⁾ 총회측의 일방적인 행정에 저항하였으며, 그는 평생 경남노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총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였다.

그러나 송상석은 1960년대 후반부터 고려신학교 이사장으로서 학교 및 교수들과 오랫동안 갈등을 하다가, 총회가 정한 이사장 임기를 넘기고 문교부 법적 이사장직을 주장하면서, 교단 내 갈등의 요인이 되어 결국 특별재판국에서 면직을 당하고, 그를 따르던 경남노회는 총회 행정을 보류하는 등 교단 분열의 위기를 맞았다.¹¹⁾

송상석의 절제운동 전통이 고신교회 안에서 크게 계승, 발전되지는 못했지만,¹²⁾ 1960년대 이후 이근삼이 강조해 온 문화적 사명과 관련하여 그 영향으로 손봉호, 장기려 등에 의해 조직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으로 나타났고, 이후에도 다양한 NGO사역으로 계승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는 삶의 한 영역, 한 직업, 한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지적과 같이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영역은 이 땅에 한 치도 없다.

9) 박윤선이 고신을 떠나게 된 데는 송사문제가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박윤선 주변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던 이복 출신 목회자들의 지역주의가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 박윤선 교장은 고려신학교 설립 10년을 맞이하여 당면한 과제로 등의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 때문에 송사 찬성론자였던 송상석 목사와 신학논쟁을 하는 등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두 사람은 평양신학교 제29회(1934년) 동기동창이었다. 송상석에 대해서는 이상규, “고신교회와 송상석 목사”를 보라, 이상규 편, 《한상동과 그의 시대》, 138-155.

1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창립 50주년 약사, 부산: 칼빈문화사, 1962.

11) 경남(법통)노회는 송상석의 징계와 관련하여 행정보류로 분열되었다가 송상석 사후 1982년에 합동이라는 형식으로 영입되었으며, 송상석은 200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57회 총회에서 마산노회의 헌의로 사면, 복권하여 그 명예를 회복하였다. 1975년 나누어졌던 반고소파 고려측은 석원태측의 이탈을 계기로 교단 분리 40년 만에 2015년 제65회 총회에서 고신과 고려측이 통합되었다. 오늘날 석원태의 개인적인 신상문제로 그를 따르던 교회들은 고려측이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남아 있다.

12) 이만열, “고신교단과 한국사회”, 《장로교회와 역사 제1호》,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2008), 73.

고신교회의 신앙과 경건의 실천

한상동 목사의 순교적 신앙에 이런 세 갈래의 신앙과 경건이 결합되어 고신교회를 형성하는 정신이 되었고, 이러한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전통과 정신으로 고신의 영성이 형성되었다.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신앙과 영성을 소유한 고신교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전통이 얼마나 남아있고, 계승되고 있는가? 이것이 문서화 된 것은 SFC강령과 교단교육이념과 목적에서 볼 수 있다.

SFC 강령

1.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2.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3.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 1)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 2)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4. 우리의 생활원리는 다음과 같다.
 - 1) 하나님 중심
 - 2) 성경중심
 - 3) 교회중심

고신교회는 SFC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혁주의 교회로서 교리적인 기초를 견고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하며, 우리 시대에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그와 함께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롬을 누리며, 이 살롬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교단교육 이념과 목적

교육이념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들(Westminster Standard: 신앙고백서, 대소교리문답, 교회정치, 예배모범)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한다.

교육목적

성경을 가르쳐;

1.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며, 섬기게 한다. (예배적 인격)
2.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도우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한다. (인화협동적 인격)
3. 자기의 존재 의의와 특수한 사명을 자각하여 자기 선 자리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한다. (문화적 인격)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육성하여,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견비케 한다.

개혁주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은 통전적이다. 흔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과 창조세계와 일과 직업세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적, 인화협동적, 문화적 인격을 가지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힘써야 한다. 고신교회의 신앙과 경건의 특성은 신앙의 정통을 확립하고, 생활의 순결을 추구함에 있다.

고신교회는 한국교회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나도 개인적으로 고신교회 성도가 된 것과 고신교회의 목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신사참배 강요 당시에 없었고, 또 이를 반대하고, 투옥되지도 않았으며, 많은 고신교회 성도들은 그 역사조차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선배들의 신앙전통을 자랑하고, 그것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선배들의 신앙운동이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조상들의 신앙을 잘

계승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결론: 재미총회 고신교회의 나아갈 방향

고신교회는 역사적인 장로교회이지만, 한국교회사의 독특한 상황 가운데서 형성, 발전된 교회이다. 고신교회의 신앙전통에는 진리를 위한 투쟁의 DNA가 흐르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우상숭배 강요에 대한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투쟁이었고, 1950년대에는 회개운동을 통한 교회쇄신운동이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선명한 비전으로 교회를 이끌어주지 못함으로써 투쟁의 DNA는, 1960년대 이후 교권 투쟁과 형제간의 다툼으로 나타나 진리운동의 역사와 빛을 흐리게 만들고 말았다.

1940년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었듯이, 1950년대 한국교회 쇠신과 회개운동과 한국교회 쇠신의 책무가 있었듯이, 21세기 한국교회와 한인교회에 새로운 책무가 있다. 1940년대 한국적 상황에서 형성, 발전된 고신교회가 21세기 미국과 한국에서 여전히 존재의 이유와 그 의미를 갖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 것인가?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 분명히 해야

오늘의 미국의 많은 한인교회는 교단적인 배경과 신학을 상실하고 있다. 지난 시대의 역사적 경험은 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상실한 경건주의적인 분위기는 퇴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고신교회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어받은 사도들의 신앙,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한다. 고신교회는 우리 시대에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확립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 시대의 우상을 척결해야

고신교회 선배들은 1930년대 신사참배 반대투쟁을, 해방 후에는 고려신학교 설립을 통한 개혁주의 신학 확립운동과 회개운동을 통한 신앙의 순결운동을 추구하였다. 고신교회는 그러한 신앙과 정신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 시대의 우상을 바로 보고, 이와 싸워야 한

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협하는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의 우상이고, 향락의 우상이다. 우리는 이를 배격하고, 순결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복음의 열정 회복과 건강한 교회 운동 전개해야

재미총회에 130여 교회가 있고, 서부노회에 20여 교회가 있지만, 생존에 급급할 뿐 우리 한인사회와 교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부노회 산하 교회들은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함께 건강한 교회를 이루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교회가 내적으로 하나가 되어 건실한 교회가 되게 하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야 한다. 재미 고신교회는 일세만 아니라 1.5세, 2세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견비해야

고신교회는 일제강점기에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걸고 투쟁했던 자랑스러운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 고신교회는 일제강점기에 죽도록 충성한 출옥성도들의 고귀한 역사와 신앙, 정신과 가치를 이어받아, 이를 다음 세대에 계승시켜야 주어야 한다. 우리의 선배들이 물려준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추구해야 한다.

건강한 교회와 목회 리더십

리더의 새로운 사역 구상101

남우택 목사 (대양주 총회, 한우리교회)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다면 생각이다. 새들이 짓는 집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포스트 모던시대라고 해서 까치집이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개미들이 미래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자 시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각하는 영적 리더는 늘 변화하는 사역환경 속에서 새로운 사역구상으로 사역환경을 이끌어간다. 그들은 세상의 변화에 편승하기보다 더 나아가 세상을 주도한다. 영적 리더의 사역구상,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새로운 사역구상이 필요한 때에 대한 이해를 가져라.

첫째. 항상 필요

의사 중에는 하의(下의), 중의 상의가 있다고 한다. 하의는 사람의 병이 발병했을 때 고치는 의사이고 중의는 현재의 건강상태를 잘 유지하도록 돕는 의사라면, 상의는 사람의 건강유지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체력을 향상시키는 의사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보다 더 좋은 영적 리더의 역할을 하려면 실제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처방하는 것도 필수지만 실 틈 없이 갈등과 문제가 야기되는 목회현장에서 그 문제들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기회로 삼는 자일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리더는 항상 영적수준을 항상 진단해야 한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정체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정체를 넘어 침체의 늪에 있는지 살펴서 필요한 부분에 새로운 에너지를 적절하게 공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만약 교회 공동체에 영적침체 현상이 감지된다면 즉각 극복을 위한 새로운 사역 구상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공동체 전체가 영적함몰 사태가 빚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영적 리더는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새로운 사역구상을 한다는 차원을 넘어 보다 건강한 교회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구상하고 실행해야 한다.

둘째, 실제로 위기가 수면 위로 급부상했을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구제를 하는 과정에서 소외를 느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때 사도들은 새로운 사역을 시도함으로써 그 위기를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즉, 그 위기를 통해 평신도 리더십을 세워가고,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역에 대해 점검하고 집중함으로써 건강한 교회로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다. 만약 사도들이 그러한 위기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커다란 곤경에 빠졌을 것이다.

셋째, 교회공동체에 새롭게 집중해야할 사역이 필요할 때

새로운 사역의 필요성이 감지될 때이다. 어떤 공동체이든 세월이 감에 따라 흥망성쇠를 경험할 수 있는데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역사에서 경험한 것처럼 부흥의 때도 있지만 정체와 침체기를 맞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섬기는 개교회 역시 개척시기, 성장기, 부흥기, 정체기, 침체기 그리고 전환기를 지나 다시 부흥하는 사이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리더는 이와같은 정체기와 침체기가 감지되기 전에 새로운 사역을 시도하여 영적갱신을 꾀하여 할 것이다.

독일의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는 지역사회 속에서 꾸준히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는 8가지

요소가 있음을 조사 발표했다. 교회가 침체되지 않고 건강하려면 이 8가지 요소¹⁾ 중에서 현재 우리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집중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개척초창기라면 무엇보다 “사랑의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필요에 맞는 전도”에 집중하고, 이어서 “사람을 세워 사역자로 세우는 리더십”에 집중해서 훈련하여 그들로 하여금 “은사에 맞추어 사역을 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전인적인 소그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역을 구상하여 전도와 예배와 지역사회 속에 교회공동체의 본질적인 사역이 계속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영적리더는 현재 교회의 연륜과 수준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는 어떤 사역이 필요한지를 미리 내다보아야 한다.

또한 새로운 사역을 구상하는데 필요한 사역의 구체적인 아이템은 목회현장의 토양에 따라 다르다. 도시와 농촌, 한국사회와 이민사회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 “사랑의 관계” 사역을 적용하는 교회는, 규모가 있는 교회는 소그룹별로, 작은 교회라면 전 교회가 토요일 새벽 산행 후 산상에서 지역복음화를 중보기도로 이어지면 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년층이 점점 두터워지는 교회는 노년을 위한 사역이 필요함과 동시에 청년과 젊은이에게 어떻게 신앙전수를 효율적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새로운 사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교회의 미래는 불확실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필요가 요구될 때

“이것은 교회가 처한 지역의 토양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인데 교회 안에만 머물면 교회가 소금창고로 전락하게 된다.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영적 분위기를 진단하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할 사역구상을 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 부부 맞벌이로 방치된 아이들이 많은 지역, 경제적으로 여유가

1) 크리스티안 슈바르츠가 이끄는 자연적 교회성장 연구기관(NCD)에서 1994년부터 1996년까지 교파, 신학, 국가, 문화, 지도력의 형태, 사역의 크기 또는 사역의 모델을 초월하여 32개국 1000교회들을 조사했는데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에는 8가지 특성이 있음을 발견했는데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중심적인 사역, 열정적인 영성, 기능적인 조직, 영감있는 예배, 전인적인 소그룹, 필요에 따른 전도, 사랑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없어 자녀를 학원에 보낼 수 없는 가정이 많은 지역, 노년층 혹은 신혼부부들이 많은 지역 등 그 지역의 토양에 따라 필요한 사역을 구상하고 실행해나갈 때 지역사회 속에 열린 교회가 될 수 있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는 이민교회이다. 그래서 뉴질랜드 이민역사에 따라 지역사회의 필요를 진단하고 공급해오고 있다. 교민 중 현지사회 적응이 어려운 노인세대를 위해 평생교육원사역을 구상하고 실행했을 때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었다. 이민 1.5세대와 2세대로 이어지는 동안 신앙전수는 물론 한국인의 정체성이 상실되어가고 한글을 잃어가는 경향이 짙어 교회는 물론 지역사회 주민의 자녀들을 위해 성경을 통한 한글교육 기관인 새싹학교를 운영하여 신앙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함께 교육하고 있다.

새로운 사역 어떻게 시도할 것인가?

리면을 끊어도 어떤 순서에 따라 끊이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똑같은 재료일지라도 조리 과정과 순서, 타이밍에 따라 맛과 질이 달라지듯이 새로운 사역을 시도할 때도 다음의 단계를 염두에 두면 좋을 것이다.

첫째, 교회의 상태를 파악한다

공동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교역자의 관점, 성도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파악한 후 솔직하게 진단해야 한다. 문제없는 공동체는 없다. 필자는 이민목회 사역을 21년째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목회경험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조용히 지나가는 해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고 축복도 있다. 독수리가 빠른 속도로 평행성을 유지하며 안정감 있게 날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그 장애물은 다름아닌 공기다. 그런데 그 공기가 없다면 독수리는 한 단계 비상하기도 전에 즉시 추락하고 만다.

목회현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도 있다. 그것은 현재 섬기는 교회공동체의 문제를 솔직히 드러내어 평가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둘째, 진단 결과 새롭게 필요한 사역을 리스트화 하라

개교회가 새롭게 필요로 하는 사역은 교회의 년수나 환경에 따라 다르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다르고 구성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필자는 1991년에 한우리교회를 개척했다. 개척당시에는 교회구성원이 단기영어연수를 온 청년 유학생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은 “복음”과 “영어”였다. 그래서 바이블 칼리지에서 알게된 현지인 친구를 데려다가 영어성경공부를 시작함과 동시에 현지인들과 성도들을 1:1로 연결하여 영어를 배우게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성도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적절하게 채워주었던 것이다.

또한 당시는 뉴질랜드 이민초창기여서 교회 뿐 아니라 뉴질랜드 전체의 이민자나 유학생은 뉴질랜드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속있는 뉴질랜드 이민사회 정보지를 만들었다.

뉴질랜드의 역사와 문화, 한인 이민사회 동향, 뉴질랜드 특히 우리가 살고있는 오클랜드의 지역특성, 이민을 올 때 가지고 와야할 것과 가지고 오지 말아야할 물품의 리스트를 구체화하고, 은행구좌 개설하는 법부터 시작하여 자동차 구매, 주택구매에 대한 실제적인 제안 등 한 줄 한 줄마다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채웠다. 이 새로운 사역은 쉬운 것이 아니어서 변변한 소개책자 하나 없는 뉴질랜드 사회의 구성구석을 찾아다니며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무수히 발품을 파는 등 수고도 많이 했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교회는 활력이 넘쳤고, 그 책자를 통해 지역사회를 구체적으로 섬기는 축복을 누렸다.

그후 성도가 약 몇 십명이 되자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 훈련하는 새로운 사역에 집중했다. 바로 제자훈련이었다. 그에 따라 평신도 사역자가 배출되기 시작했고 이어 영감있는 예배를 위해 새로운 사역을 구상했다. 경배와 찬양팀을 강화했고, 헌신자학교를 개설하여 은사에 맞게 봉사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다.

2000년이 되어서는 평신도 리더십을 극대화시켜야 함을 인식하여 소그룹지도자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목장 사역 시스템을 구상하고 실행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점차 성장할 수 있었다.

영적리더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 토양과 상황을 항상 지켜보고 그때 그때 필요한 사역을

기도와 함께 선택하되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록하며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위기상황을 듣고 그는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사역을 구상하였는데 필요한 항목을 구체화했다. 필요한 물자와 이웃나라를 통과하기 위한 비자 및 공사기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명확히 하여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 실행에 옮겼다.

셋째, 위기 분위기를 조성하라

새로운 사역구상이 완료되면 위기 분위기 조성 단계가 필요하다. 이것은 사역의 필요성을 회중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토양작업이다.

존 커터(John Kotter)는 그의 책 “기업이 원하는 변화의 리더(Leading Change)”에서 기업체의 경영 혁신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여덟 단계를 언급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단계는 모든 구성원들이 강한 위기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충분한 위기의식을 불어넣기도 전에 혁신을 시작하는 것이 리더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큰 실수이다.”라고 말했다.

넷째, 비전과 가치를 선포하라

비전과 가치는 리더와 교회공동체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아무리 좋은 새로운 사역이라도 공동체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이루기가 어렵다. 한때 “세미나 히로뽕”이란 이상한 말이 회자했다. 목회자가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면 그 다음주에는 강단에 현수막이 설치되고 주보에 광고가 나오고 불과 채 몇 주도 되지 않아 새로운 사역이 시작됐다. 그러나 의욕을 가지고 시도했던 사역이 교회공동체로부터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면 목회자는 또 다른 세미나에 참석한다. 그 세미나에서 은혜와 감동을 진하게 받은 그들은 곧바로 홍보 현수막을 걸고 시도하는 이런 일이 계속되자 성도들은 강단 주위에 현수막만 붙으면 “우리 목사님 또 세미나 다녀오셨나 보다”로 인식했다.

성도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목회자는 벌써 저만치 혼자 앞서 가며 용을 쓰다가

지쳐서 탈진한다. 이런 식이라면 아무리 필요하고 귀한 사역이라도 열매를 거둘 수 없다. 비전은 구성원에게 조직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한 방향으로 대열을 짓게 하며 격려하고 고무시킴으로써, 성공적으로 경영 혁신을 완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역을 향한 명확한 비전과 전략은 필수적이다.

다섯째, 필요하다면 사역팀 (Task Force)을 조직하라

느헤미야는 조국의 위기소식을 듣고 혼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역을 구상했다. 그러나 사역을 실행하는 단계에는 많은 일꾼을 세워 역할을 분담했다.

목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 하면 빨리 가지만 함께 하면 멀리 간다는 말도 있듯이 사역자들과 더불어 하면 부담을 함께 나누어 가벼운 마음으로 더 멀리갈 수 있다. 사역팀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사역팀을 통해 홍보하고 사역팀이 소그룹 리더들과 나누고, 그 소그룹 리더들은 성도들이 실제로 참여하도록 할 때 새로운 사역이 교회공동체에 적용되고 열매를 얻게될 것이다.

바른 비전과 가치를 붙잡고 집중하는 리더라면 항상 새로운 사역 구상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역을 구상하고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바울을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전 9:19) 왜 영적리더는 항상 새로운 사역을 구상해야 할까? 그 이유는 “한 사람이 라도 더 얻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배중심의 목회¹⁾, 예배중심의 리더십 훈련 한인이민교회의 제자훈련 목회의 난점에 대한 제한적 극복

전남수 목사(재미총회, 제자들교회)

들어가는 말

본 논제는 미주 고신교단 총회에서 ‘한인 이민교회에서의 효과적인 제자훈련 적용의 실제’라는 세미나 발표를 위해 준비되었던 원고의 일부이다. 제자훈련을 목회적 토양으로 하는 목회자들이 가지는 난점들을 ‘예배중심의 방향성을 가진 목회철학’의 효과적인 적용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극복한 사례를 발표하기 위함이었다. 미국 알칸사 주의 중소 도시인 리틀락 (Little Rock, Arkansas)의 한인교회인 ‘제자들 교회’를 중심으로 나타난 목회현상들을 통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본 원고는 필자가 전통모델로서의 제자훈련 목회를 하던 중, 여러 가지 한계점을 만났을 때, 예배를 중심한 목회를 통해서, 제자훈련의 약한 부분들을 제한적으로 극복한 측면이 있기에, 이를 목회임상에 따른 경험들을 바탕으로 나누기 위해 작성된 글임을 밝혀둔다. 이를 전제로 본인의 목회원리를 ‘예배중심의 목회’라고 표현한다.

전통적 제자훈련 목회의 한계

제자훈련의 현장

제자훈련의 산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겨 놓고 가신 마태복음 28장 18-20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제자도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훈련의 프레임을 발견할 수 있다. 제자훈련을 성경의 절대명령으로 이해하면서,²⁾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분은 전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제자를 만들 대상은 모든 족속이다.³⁾ 제자훈련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이다. 훈련의 방법은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데 있다. 가르치는 데 끝나지 않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일까지 책임지는 지도라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제자훈련의 두 가지 원리

소수정예화의 원리

제자훈련의 가장 뚜렷한 특징적 개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소수 정예화 원리’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를 적당히 10년 다닌 사람보다, 1년 간 확실하게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⁴⁾ 소수를 가지고서 다수를 동력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예수님께서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고 예언하신 이사야의 말씀을 확신하며(사 60:22), 당신 손에서 만들어진 소수는 많은 다수를 이끌고 있을 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계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무리 가운데서 제자를 택하시고, 제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배후에는 이러한 숨은

2) 이조용, 제자훈련의 원리와 방법과 모델 (서울 : 도서출판 하나, 1995), 230

3) Mark Sheridan, "Disciples & Discipleship". Biblical Theology Bulletin, Vol. III, Oct, 1973, No. 3, 255

4) 오정현, 열정의 비전메이커, (서울 : 규장, 1997), 255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원리를 성공적으로 판단될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결국 그분의 판단은 옳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세계가 변하였다고 말한다. 불과 열두 명의 손에서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그들을 이은 수많은 제자를 통해 하나님나라가 건설되고 있다는 것이다.

준비된 사람의 원리

제자훈련의 특징적 개념의 두 번째는, '준비된 사람의 원리'이다. 리더가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하며, 좋은 리더가 준비되는 것에 모든 제자훈련의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좋은 리더에게서 좋은 제자로서의 팔로워가 만들어지며, 그 팔로워가 좋은 리더의 반복 재생산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리더가 온전하지 못하면 공동체와 소그룹의 미래는 결코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리더의 최선의 자격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잘 준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리더는 먼저 자신이 철저하게 제자로 만들어진 사람이어야 하며, 그렇게 사람을 준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 자체가 제자훈련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다. 예수님이 막연히 전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를 만들라고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훈련과 준비를 통해서, 때가 되어 은혜가 임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3년을 소비하여 가면서 불과 몇 십 명의 제자를 만드는데 모든 힘을 바치셨는지에 대한 중요한 답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성경의 많은 리더십의 교체를 연구해보면, 두 가지 원리가 설득력있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의 리더십 계승을 연구해보면 더욱 그러하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가운데, 여호수아를 선택했을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종은 몸종과 같은 표현인데, 철저한 시종의 자리, 팔로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팔로워만큼 좋은 준비가 없으며, 좋은 훈련이 없으며, 리더로 세움받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리더인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의 행진을 해 나감을 볼 때, 앞선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포함해서, 소수의 준비되고 훈련된 한 사람의 온전한 리더가 공동체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변혁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의 두 가지 원리.

평신도의 재발견

옥한흠 목사는 교회안에 존재하는 99% 이상의 평신도에 주목하며 제자훈련을 설명한다. 그래서 그의 제자훈련은 ‘평신도의 재발견’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그는 신약 성경에서 당시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사용된 단어가 사도성을 포함하였다는 점의 발견에서 교회를 동력화할 수 있는 힘으로서 평신도에게 제자로서의 훈련을 시작했던 것이다.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의 용어와 의미를 설명할 때, 결코 빼 놓을 수 없는 단어가 ‘평신도’라는 단어이다.⁵⁾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제자훈련의 철학과 전체적인 훈련의 목표와 과정을 이해하게 된다. 평신도는 그동안의 교회내의 어떤 계급적인 구조의 한 축이 아니라, 제자훈련을 통해 교회의 주체로서 활동적 교회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신도라고 하면 그 본래의 의미가 주님을 모신 선택받은 자, 혹은 성도, 혹은 제자, 혹은 믿는 자의 공동체인 전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⁶⁾하는 것이 제자훈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92 옥한흠 목사의 교회론은 평신도의 재발견이라는 전제를 통해 설명된다. 그의 교회론을 살펴보면, 교회 안에는 99% 이상의 평신도가 있기에, 세상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가시적 교회는 교직을 가진 소수의 직분자들의 교회가 아니라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나라 임재를 자신의 삶을 통해 구현하는 평신도의 교회라는 것이다. 그 증거로서,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 사람들이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변화된 새 생활을 구가하던 평신도들이었음을 언급한다. 결코, 평신도들은 교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그들은 교회의 주체라고 설명한다.⁷⁾

이 말의 의미는, 평신도가 직분을 가진 목회자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 에 속한 지체들로서, 그들 모두가 머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명을 위해 성령

5) Stott, J, One People, (IVP, Downers Grove, 1971) 28

평신도를 가리키는 헬라어(Laikos)는 신약성경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라오스(Laos)의 의미와 같다. 단순히 ‘백성’, ‘어떤 백성’, ‘백성의 무리’를 의미하는 말이다. 세속적인 의미로는 헬라시대의 전 시민을 두고 사용하였고 성경적인 의미로는 처음에는 이방인과 대조되는 이스라엘을 의미하였다. 이 용어가 신약의 한 특정한 그룹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 예는 없다. 항상 포괄적으로 어떤 백성 전부를 다 포함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6)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 두란노, 1984), 37

7)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38

님은 각자에게 분수에 맞는 은사를 주셔서 몸의 지체로서 그 기능을 다 하게 하신다. 그러면 옥한흠 목사는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에서 평신도가 잠을 자고 있다고 진단한다. 마치, 엄청난 저력을 가진 거인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들 평신도들을 성경의 관점에서 재발견하고 그들을 깨워야 한다는 것이 그의 제자훈련의 출발이자 중심 철학이다. 그래서 그의 제자훈련의 철학은 ‘평신도의 재발견’이라는 말로 요약이 될 수 있다.

평신도의 사도성

옥한흠 목사는 평신도와 주님이 직접 제자 훈련한 사도들에 대한 사도성의 연결을 한스 쾅의 「교회론」 제4장 ‘교회의 속성’에서 찾는다.⁸⁾ 한스 쾅은 교회는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사도성이 있는데 교회가 진정으로 사도적일 때에만 비로소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을 가질 수 있다고 확언한다. 그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놓는 교회의 사도성은 첫째, 교회가 사도의 터위에 세움을 입었고(엡 2:20; 마16:15~19참조), 둘째, 교회가 사도직을 계승하고 있음에 근거한다고 한다. 야고보가 죽은 후부터 사도직은 더 이상 충원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도들이 부여받은 과제와 사명은 현존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도들의 뒤를 이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계승자로 누구를 세우셨는가? 한스 쾅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하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바로 교회라는 것이다. 전 우주적 교회가 바로 이 사명을 계승해야 할 일꾼이라는 것이다. 교회는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사도적 교훈을 계승하며,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사도적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계승한다는 것이다.

한스 쾅이 말한 교회의 사도적 본질의 해석에 절대적으로 공감한 옥한흠 목사는 이 이론을 지식으로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현장에서 ‘평신도를 깨운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각성시키고 훈련시켜 실질적으로 교회의 사도적 본질을 실천화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고신대학원의 유해무 교수도 이를 은사공동체인 교회에서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서 평신도의 동력화를 이룰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⁹⁾ ‘하나님의 백성은 동일하게 형제, 성도, 제자, 택자로 차별없이 불려진다. 은사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백성들간의 구별을 의도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교회를 ‘평신도’와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에서 차별하는 것은

8) Hans Kung, The Church, 458

9) 유해무, 개혁교의학,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549

성직자 위주의 그릇된 교회관에서 나왔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동등성을 말씀하셨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는 ‘성직자 우위의 직분관은 성경의 교훈이 아니며, 교회사적으로 교회 부패와 무력화의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지적한다.

이처럼 한스 킹과 옥한흠 목사와 유해무 교수의 주장의 공통점은 교회가 근본적으로 은사공동체이므로 성도들이 각양 은사와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대로 함께 교회를 계급적 구조 없이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원리의 실천을 위해서는 목회자가 각자 성도의 은사를 개발하며, 적제적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배치하며, 함께 동역자로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옥한흠 목사를 중심으로 한, 또한 본 교회가 교회초기에 교회를 이루는 목회철학으로 지향하던 제자훈련목회의 중심원리라고 할 수 있다.

전통모델로서의 제자훈련의 한계

한국교회와 한인 이민교회에서의 제자훈련의 전통모델이라고 한다면,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인 이민교회로서, 16년전 개척이 되면서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의 두 가지 원리와 두 가지 특징들을 포함하는 제자훈련 목회원리는 본 교회가 속해 있는 중소도시 이민사회에 필요적절한 목회원리를 제공한다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초기 5년 동안은 철저하게 이 원리를 따르는 목회를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길게는 중고등학생부터 대학(SFC)을 거치면서 가장 몸에 익은 사역의 도구였다는 점과 환경적인 조건에 있어서도 적합한 부분이 있어서 목회방법에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환경적 조건이라는 것은, 본 알칸사 리틀락과 같은 도시에는 교역자 수급의 실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과 삶의 환경이 척박한 때문이기도 하며, 작은 소도시를 기피하는 목회자들의 연약함 때문에 부교역자를 찾기도 쉽지 않은 형편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평신도를 활용하고 잠자는 그들을 깨워서 준사역자로 함께 동역하는 제자훈련은 목회자 개인의 적합성과 지역적 환경을 고려할 때도, 가장 좋은 목회의 방법론이라고 생각되었으며, 많은 사역의 열매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철저한 제자훈련의 두 가지 원리인 ‘소수정예화와 준비된 리더’와 옥한흠 목사의 두 가지 제자훈련 철학인 ‘평신도의 재발견과 사도성’에 대해 집중하는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한계점이 발견되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어려운 시련의 과정을 교회가 지나게 되었다. 여

러 목사님들과의 상담과 논의들을 거치면서, 또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제자훈련 가지고는 안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목회방법론(ex. 가정교회, 두날개, 등)으로 전환하는 과정들을 지켜보았다. 나중에는 언필칭, ‘제자훈련이든, 가정교회이든, 두 날개이든 상관없이 좋은 리더가 있고,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관심만 있다면 목회방법이야 상관없지 않나?’ 라는 단계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물론 고민도 함께 깊어져갔던 것이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고민하며 갈등하는 가운데, 또다른 하나의 방법론이 아니라 성경의 본질회복을 통한 “예배중심의 목회철학의 적용”으로, 제자훈련의 한계들을 많이 제한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예배중심의 목회

개념

암 9:1-15절, 요 4:23-24, 롬 12:1-2 창 1:26-28, 룻 1:1-22, 창 3:1-24, 히 11:1-4 등을 목회의 핵심구절로 방향을 정하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하면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산다”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한다. “예배가 중심이 되는 목회, 예배회복(예배의 본질회복)을 통해 사람을 준비하고 세우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며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의 피 흘려 값 주고 사신 교회를 세워가는 것과 못 영혼들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¹⁰⁾을 목표로 한다.

좀더 부연하면, 성경으로부터 예배의 요소이자 예배가 회복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근거로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예배 자들에게 나타난 공통점에서 그 근거를 찾아 다섯가지를 예배회복의 실천적 도구로 삼는다. 기도와 말씀은 영혼의 호흡과 영혼의 양식으로, 전도와 주일은 성도의 열매로 성수주일은 성령의 교통으로, 온전한 예물생활은 축복의 도리로 이 다섯 가지를 목회의 목표이자 설교와 교육 그리고 선교와 전도 구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목회적 실천에 적용한다.

10) Benjamin B. Warfield "Calvinism". The New Schaff-Herzog Encyclopedia of Religious Knowledge. Ed. Johann Jakob Herzog, Philip Schaff, Albert Hauck. p. 359.

예배중심 목회의 필요성

예배를 경홀히 하면서 제자중심의 성경공부, 가정교회 중심에 목숨 거는 시대, 설교 말씀보다 개인적인 말씀 묵상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시대이다. 교회는 출석하지 아니하며 QT가 예배를 대신 할 수 있다며 혼자 성경을 열어 자신의 마음 중심에 느끼는 대로 해석하며 자위하는 시대,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도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 교회 성장을 위해 예배를 수단화시키는 시대. 분명 예배가 경시되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교회에 점점 스며들어오는 상황이다.¹¹⁾

이러한 현상 속에서, ‘믿어 순종케 된 영혼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잠기고 은혜 속에 자라가게 하는 것’으로서의 예배중심의 목회는 분명한 성경적인 본질회복운동이며 참된 예배자로서의 사람을 준비하고 세우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나라 건설과 확장을 지향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그의 몸 된 교회를 통한 참된 예배자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順命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예배중심의 목회는 ‘주님의 피 흘려 사신 교회와 예배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또한 이것은 ‘예배중심의 목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배중심 목회의 총론(방향성) & 각론(적용)

예배중심 목회의 5가지 총론(방향성)	예배중심 목회의 5가지 각론
새벽기도 목회	영혼의 호흡(새벽기도)
성경중심 목회	영혼의 양식(말씀중심 성경공부 PDP)
영혼구령 목회	성도의 열매(성회와 전도운동)
주일성수 목회	성령의 교통(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헌물헌신 목회	축복의 도리(일조전납)

11) 김병혁 목사(SDG 개혁신앙연구회) 교회 현실과 신앙고백의 가치

예배중심 목회의 특징

특징	개념적 특징
예배중심	회복의 통로(회복의 신학)
	축복의 통로(기업의 회복)
성경통전적 교회중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시122:6)
	성전 & 교회
목회자 중심	수직관계와 수평관계
	운명과 신뢰
	스승과 아버지
	순종과 복종
	기다림의 신학
	전가의 신학
말씀 중심	본문 중심(Fact)
	회복의 관점
	PDP Bible Study
기도 중심	새벽기도
	특별새벽기도회
	금요철야 기도회 PM9 - AM2

예배중심 목회의 현실적 적용

예배의 요소를 크게 나누면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교제와 봉헌과 찬양이다. 예배회복을 위한 다섯 가지는 예배의 요소이면서 동시에 예배회복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

새벽예배가 모든 사역과 헌신의 출발 - 새벽예배의 회복(막 1:35)

새벽예배가 회복되어 교회의 모든 사역과 헌신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 영혼의 호흡의 특징은 쉬지 않는 한결같은데 있다.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 무릎을 꿇었다고 했다. 한결같은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루에 세 번이 왜 한결같은 아름다움인가? 하루 세 번의 고정적인 시간은 의식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있는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한인교회에 허락하신 고정적인 기도시간의 축복이 '새벽기도'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분은 새벽기도회 나오시라고 했더니 자다가 깨면 오겠다고 한다. 평생 나오기가 쉽지 않은 분일 것

이다. 새벽기도는 가장 고정적인 시간에 영혼의 호흡이 가능한 축복의 시간이다. 이 시간은 전날 밤부터 의식하고 긴장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교회에는 새벽기도회가 없는데 왜 미국까지 와서 평양 길선주 목사가 시작한 새벽기도회를 해야 하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다. 잘못된 신앙상식이다. 미국교회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될 수 없다. 주님이 ‘습관적으로 새벽미명에 기도하러 가신 것’을 보면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의식적으로 고정적인 시간에 기도하기를 애쓰셨음을 알게 한다. 물론 예수님이 새벽미명에 기도하러 가신 것에 대해서는 두 곳에서(막1:35; 눅4:42) 언급하셨지만 이 두 번의 기록을 근거로 예수님이 3년 동안 딱 두 번만 새벽기도를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는 예수님이 습관처럼 새벽기도 하셨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365일 주님의 일기책이 아니라는 것과 마가복음 1장이 주님의 하루일과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유일한 소스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국교회의 현실을 뛰어넘는 주님의 삶의 내용을 찾게 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 신앙의 표준이 미국교회라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교회의 동성애 합법화 등의 문제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목회의 열매가 풍성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저희 부부가 30년 동안 새벽무릎을 꿇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민교회도 새벽을 깨우며 고정적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을 본다. 비록 이른 비의 축복이 없더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릎 꿇을 때에 반드시 늦은 비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어야 한다.¹²⁾

예배중심 목회에서 새벽기도회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는 아주 귀한 Tool이라고 보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울 때 반드시 새벽기도의 서약을 받는다. 새벽기도는 영적회복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광야의 백성들이 새벽에 만나를 거둔 것처럼 매일 첫 시간에 듣는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은혜의 방편, 삶의 방편이 되고 성령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갈 것으로 믿는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예배자로, 충성 끈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 받는다. 그러나 지금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목회의 가장 큰 축복과 목사의 목회의 역량을 위해 반드시 한 가지를 꼽아야 한다면 아마 새

12) 육신에 호흡이 필요하듯이 속사람도 기도를 필요로 한다. 거듭난 생명이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스펀전은 말하기를 ‘기도로 새벽을 열고 기도로 저녁을 닫는다’고 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백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벽기도의 회복은 교회와 목회가 새로워지는 여명을 밝히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새벽기도는 한국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숙한 개혁신의신학자는 물론이고 개혁을 꿈꾸던 많은 주의 종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교회가 새벽기도회를 갖는 나라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런 가운데 성인이 되도록 새벽기도회를 가졌던 필자로서는 목회자가 된 뒤에도 새벽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는 아주 귀한 자리라 믿었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부터 새벽기도를 한 주간 내내 인도하였다.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므로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물론 교회가 하나님과의 대화적 면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본질임을 알게 된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라는 것은 이미 죽었다고 하는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적 입장에서 보면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교회의 부흥적인 입장에서 너무나 중요하다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부흥이 멈춘 교회들의 특징은 영혼의 호흡이 없고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없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나 목회적으로 중요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야성은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처럼 교회의 본질적인 부흥운동의 내용 즉 기도는 예배회복을 가져옴에 있어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이나 뜨겁게 기도하는 성령의 열정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상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다.

새벽기도가 왜 본질회복에 중요한가? 새벽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세움을 받는 리더의 마음과 생각이 한 말씀 안에서 매일 매일 적용되어간다고 할 때 은혜의 방편이 되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온전한 하나 됨을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새벽기도로 말씀에 온전히 항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연약함 가운데 놓인다할지라도 반드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예배자요, 충성 끈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교회에서 새벽기도와 금요철야기도회 그리고 특별새벽기도회를 강조함으로 전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어떤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

고 있다. 이와 같은 기도중심의 목회는 결국 전교인의 기도회 참여로 이어졌고 어린아이들은 물론 청소년이나 혹은 청년과 장년들 할 것 없이 모두가 기도회에 모인다는 것이다.

새벽기도와 금요철야기도, 그리고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은 역시 예배가 회복된다는 사실이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하지 않는 자는 신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령이란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하는데 기도 없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수 없고 또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려 하면 예배자가 살아 있어야 한다. 예배자가 살아 있으려면 영혼의 호흡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기도를 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께 드러지는 산제사가 될 수 있는가. 따라서 예배중심의 목회를 하고자 한다면 기도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본문중심 PDP(Positive Dialectic Preaching) 말씀공부 - 말씀의 회복(사 4:16)

말씀연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의 이해가 필요하다.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려운 문제를 만드는 대상들을 보면 전혀 예수를 잘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모태신앙과 부분적으로 신학을 했던 이들이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다. 돌아보면 일부 순종치 못하는 삶의 지식을 가지고서 어려움을 일으키는 이가 초대교회 이후로 있어왔다. 그러나 그러한 온전치 못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회를 세우는 은혜의 방편은 다시 말씀에서 시작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며 말씀 안에서 회복을 보는 것이다. 말씀은 길이자 진리이며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을 때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성도가 하나로 회복된다.

특히 성경공부와 설교말씀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하는 ‘PDP’(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변증)을 권고하고 싶다. QT식의 귀납법적 성경공부도 유용한 면이 많지만 말씀의 본질을 상황 해석화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선포된 계시의 말씀을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더욱 성숙한 순종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말씀의 PDP 접근과 선포는 믿음과 순종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만 귀납적 접근은 믿음과 순종사이에 이성의 이해와 설득이라는 단계를 더 거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의 근본은 믿어 순종케 되는 철저히 영적인 단계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말씀을 안다

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 순종과 복종하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듣고 믿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 지식은 결코 참된 앎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이해하였기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복종했을 뿐인데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성경 본문을 본문으로 공부하며 변증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성경공부나 설교는 아주 구체적으로 본문을 정리하는 편이다. 어쩌면 강해설교가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스스로는 변증적 설교 혹은 변증적 성경공부라고 한다. 그 이유는 성경의 그림자와 실체를 찾아가며 공부하고, 아니면 본문을 구체적으로 배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모든 성경공부 교재들을 보면 철학적인 표현으로 귀납법적인 성경공부나 혹은 설교였다고 본다. 하지만 귀납적인 성경공부나 설교는 사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었으나 연역적 성경공부나 설교는 하나님의 관점에 가장 가까운 접근법을 사용하여 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귀납적인 것보다 연역적인 것을 60:40 정도라고 할까 가능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공부나 설교를 하고 있다.

PDP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변증적 방법이라는 뜻이라고 앞서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첫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문에 접근하고 둘째, 본문에서 본문을 변증하며 셋째는 본문이 그림자라면 실체를 찾고 또한 실체라 한다면 그림자를 찾아 그 본문을 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애독할 수밖에 없고 성경애독과 더불어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원형과 모형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칼빈이 말했듯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고 한 표현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¹³⁾ 그러므로 예배중심의 목회에서 성경공부나 설교가 이렇게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성경중심 말씀중심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영권이 부여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즉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혹

13) '정경'(Canon)이라는 말은 헬라어 "카논"(κάνων)에서 유래한 말이며, 헬라어 "카논"은 히브리어 "카네"(קָנֶה)에서 유래한 것이다. 구약의 히브리어 "카네"는 영어 <킹제임스성경>에서 "reed"라는 말로 스물세 번 등장한다. <한글킹제임스성경>에서 "카네"(קָנֶה), 즉 "reed"는 일반적인 "갈대"의 뜻으로 여덟 번 사용되며, 측량"대", 즉 "측량하는 도구로서의 갈대(자)" 및 길이의 단위인 "리드"(reed)로 열다섯 번 등장. 신약의 경우 "reed"라는 말은 열한 번 나오는데, 그 중 여덟 번은 일반적인 갈대를 뜻하며, 세 번은 "측량하는 도구로서의 갈대(자)"를 뜻한다. 이와 같이 이 단어는 "척도"나 "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표준, 기준" STANDARD, "규범"(norm) 등의 의미를 부과하여 사용함으로써 '정경'이라는 말이 통용되었다

누군가는 카리스마가 생긴다고 할 만큼 그 역사는 놀랍다.

실제 설교는 Preaching이다. 그러나 성경공부는 Teaching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PDP적인 과정을 진행할 때 나타나는 반응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말씀의 권위에 붙들리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또한 양날을 가진 칼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그 칼로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하였으니 에스겔이 말씀만 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도 금식 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신명기의 말씀을 전 하셨다.

아모스서에는 사람이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여 굶주리고 기갈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면 “성경 말씀은 영혼의 양식임이 틀림없다”는 것이다.¹⁴⁾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육신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 영혼 역시 죽은 것이므로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예배회복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경을 애독하고 성경중심의 성경공부 다시 말하면 예화적 설교보다는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성경공부도 마찬가지로 본문 중심의 성경공부를 변증하며 한다면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어 목회적으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성도의 열매로서의 전도

사람의 생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술적인 전도방법을 내놓지만 그 보다 전도자의 신앙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 즉시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를 만났다”, “와보라” 하였다. 그러므로 전도는 성도의 열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관계전도 혹은 인격전도 등의 방법론이 중요하지만 전도의 본래적 원리는 가서 전하는 직접전도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과거 한국에서 행했던 1:1 노방전도 스타일의 전도방법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암8:11“Behold, the days come, saith the Lord GOD, that I will send a famine in the land, not a famine of bread, nor a thirst for water, but of hearing the words of the LORD.”

은혜를 바라보는 순종차원의 전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분명한 회복이 필요하다.

또한 전도는 사명에 대한 명령과 복종이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사명과 그에 따른 명령에 대한 즉각 순종함이 전도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에 바로 복종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듯 보혜사 성령이 임하였던 자리에 함께 있는 120문도는 모두가 전도 전선에 내 몰리게 되었다. 강제성이 있었는가. 아니다. 그들에게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 그들 앞에 죽음이 있다 하였을지라도 그들은 기쁨을 이길 수가 없었기에 순교까지 하지 않았는가. 은혜가 없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전도의 방법을 찾는다. 전도 왕이라고 해서 간증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별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하며 손을 끌었더니 따라 오더라고들 한다.

‘고상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환상의 유혹’이 복음을 가로막고 말씀대로 입을 열어 전하는 증인의 삶을 방해하며 전도하지 않는 삶을 그럴 듯하게 합리화 시켰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입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을 무식한 방법이라고 은근히 무시하고 말보다 행위로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행위의 선함이 중요하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쁘게 자랑하고 고백하는 것에 비례해서 인격과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행하는 선한행위의 완전함으로 상대방을 복음에 굴복케 하겠다는 생각은 굉장한 교만이며 무모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그런 관점들이 사도들이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 라고 하는 증거 했던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핑계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전도가 무엇인가 하고 전도학을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정의로 되어 있으나 예배중심의 목회에서는 전도는 “익은 곡식을 찾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도가 사람의 기술로 전락해 버렸음을 많은 전도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전도는 “나의 신앙고백이며 나의 신앙의 간증이다” 다시 말하면 전도는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 하는 것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전도는 성도의 열매이므로 열매를 얻기 위한 힘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도를 강조하면서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총동원주일이나 전도의 밤 같은 행사를 열어 많은 사람

들을 초청 하여 찬양도 하고 음식도 나누면서 전도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One to One, One by One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초청을 통한 복음전파를 또 하나는 개인 전도를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노방 전도식 One to One 전도방법으로 좋은 열매를 거두고 있다.

노방전도식 전도법에는 중요한 성경적 의미가 있다. 첫째는, 전도는 사명에 대한 명령과 복종이다. 관계전도와 같이 오랜 시간 숙성하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사명의 명령에 대한 즉각 순종이 노방전도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전도는 훈련이다. 훈련은 조건이 없다. 조건과 상관없이 따라가면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는 부담스러운 것이 당연하고 강제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음의 감동만을 따라 전도하려는 경우는 거의 영혼의 열매가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1:1의 교제전도를 중시하는데, 이것은 전도의 고유한 의미가 다수대중의 동시적인 회복도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한 영혼의 온전한 회복을 지향하는 성경의 원리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¹⁵⁾

성도에게 열매는 전도하는 일이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고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대중 전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 전도에 더욱 힘썼던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엔 천하를 얻는 일보다 더 큰 일이다. 성도들이 큰 명예를 얻거나 큰 업적을 남길 만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전도를 통해서 얻은 열매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이다. 왜냐하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매월 마지막 주를 선교주일로 정하여 그 날 만큼은 선교 혹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예수께서 삭개오나 니고데모나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도하신 이유는 인격은 개별적이며 복음은 개인이 받는 것이며 생명은 개인 하나 하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양 일백 마리를 가지고 있는 목자가 아흔 아홉은 우리에게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아다니다가 찾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전도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이다. 양 일백 마리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된 것이다. 천만이 있어도 그중에 하

15) Walking an aisle, raising a hand, or EVEN praying a prayer may tell us that evangelism has happened, but such actions are not what evangelism is. (By J. Mack Stiles)

나가 없으면 전체가 없는 것과 같이 개인전도도 개개인에게 전한 예수님이 쓰시던 전도방법이다.

개인 전도는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와보라” 하고 초청하면 초청 받아 오는 자는 반드시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만난 감격을 억제할 수 없어 “내가 메시아를 보았고 그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그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면서 이 기쁘고 벅찬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고백할 것이다. 그리고 형제에게 “우리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하게 된다. 또한 “나를 좇으라”하시며 개인 전도를 하셨고 “와 보라” 초청하시며 개인 전도를 하셨다.¹⁶⁾ 전도는 롬 10:14-15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하셨고 요한복음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고 전하시면서 “사람을 데리고 오라” 하시며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의 개인 전도를 우리에게 일러주셨다. 그러므로 예배중심 목회의 목회에서 전도는 성도의 열매이며 그 전도의 방법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즉 성경에 나타난 노방전도를 통한 1:1의 개인 전도를 강력하게 표방하고 있다.

성령의 교통으로서 주일성수 - 주일성수 회복(출 20: 8)

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며 교제하는 날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며 세 번째는 주님의 부활의 날이다. 교회는 주일 성수와 함께 부흥하였고 주일 성수와 함께 회복되었다.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귀중하고 아름다운 일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며 성수주일의 신앙은 성경의 중심적인 신앙이며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이다. 특히 구약에서 내려왔던 안식일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성취된 날이기도 하다.

초대시대 교회들이 주일을 성수한 것은 주님의 부활의 날이나 승천하신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도 주일일 것을 믿고 성수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다렸다. 이러한 주일은 점점 신앙이 세속화되어가며 약화되더니 급기야 주일 성수가 무너

16) One-on-one evangelism Paperback - 1978 by James H Jauncey

지고 있다. 개혁 주의적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어느 목회자는 한국교회의 저녁예배를 회복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저녁예배가 오후 예배로 바뀌더니 무섭게 신앙이 퇴보하고 있고 교회는 점점 비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한 것이 저녁예배가 오후예배로 바뀐 199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예배중심의 목회에서 성수주일이 예배회복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날은 주님의 날이자 성령의 교통을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일 성수하며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교회는 활성화되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임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의 교제를 이루는 날이기 때문이다.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살리고자 한다면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의무이자 책임임을 강조해야 한다. 성수주일은 예배를 강조하는 목회자로서 마지막까지 사수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하시므로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다고 하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 일곱째 날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며 그 날을 안식하셨다고 하였고 복을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을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고 안식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렸으니 이는 안식 후 첫날의 역사다.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날 오순절에 교회는 "매일" 모여 예배를 드렸으나(행 2:46) 후에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예배일로 정하고 주일이 예배일이 되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 명령은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었다(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출 20:8).

이 날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며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출25:22) 라고 하신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교통하는 날이 성수주일임을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라고 하셨다.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예배는 곧 성령이 아니시면 형식에 불과한 예식이다. 예배는 성령으로만 성공한다. 성령의 역할은 예배자를 주 안에서 하나(Communion)되게 하시며 교회를 하나(Koinoia)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영이시다. 주일을 성수하는 이들에게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자로서 온전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다.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귀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다. 그것보다 더 귀중하고 더 아름다운 일은 세상에 없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 신앙”은 성경 중심적인 신앙이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이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며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날이자 교제하는 날이다.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많은 것들 즉 구제, 교육, 봉사들은 모두가 사라지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영원토록 계속된다.¹⁷⁾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찌로다 아멘(계 7:12)” 이것이 천상에서 드러지는 영원한 예배 또는 영원한 주일 예배의 모습인 것이다.

칼빈은 “우리가 제 멋대로 아무런 제약도 없이 욕망에 빠져 배회한다면 그것은 곧 주일에 등을 돌려대는 처사라” 했다. 주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주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자와 같다는 것이다. 또한 시 118:24-26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일을 가장 존귀한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될 때 축복하신다. 또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고 했다.¹⁸⁾

주일은 즐거움의 복을 주신다 했다.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하나 되어 누리는 즐거움은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신비한 즐거움이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짐 없이 우리의 안식은 온전할 수 없다.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참된 쉼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에게 영적인 쉼을 주고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17) Are we missing out on God's blessing by the way we celebrate the Lord's Day - are we too legalistic or too lax? Is the Spirit grieved by our disrespect to God or frustrated by our thralldom to unnecessary restrictions? These and other questions are answered in The Lord's Day. Joey Pipa is known for his warm pastoral application of Scriptural principles. Here, he takes an authoritative look at the 'first day.' (Joseph A. Pipa 1996)

18) The Day of the LORD is at Hand: 7th Edition - Behold, he cometh with clouds: and every eye shall see him, and they also which... Dec. 23, 2014 by Benjamin Baruch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우리를 초대하셨다. 영적인 쉬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주일에 주님 전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배드릴 때 진정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니라” 주일성수와 국력은 비례한다. 미국은 불과 50년 전만 해도 청교도적인 전통을 엄히 지키며 주일이면 온 가족이 정장을 하고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다. 모든 직장과 거리는 철시를 했었다. 그때 미국은 도덕적으로나 정치, 경제적으로 세계 최강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주일이면 산과 바다로 흩어지고 거리의 상점은 문을 열고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교회는 점점 비어가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땅에 떨어져가고 있다.

예배중심의 목회는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는 것을 강조한다. 순교적 사명이라고나 할까. 주일이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외쳐 대며 심방을 하는 것조차 그 가정을 말씀으로 위로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성수주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목회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주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예배중심의 목회는 성도와의 상담서부터 교회 행사 등 모든 것들이 성수주일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것은 성수주일하면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는 말씀처럼 땅과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 있다 개인, 가정, 사업, 회사, 나라도 하나님이 크게 하셔서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주일을 성수 하는 것은 나와 가정과 나라를 크게 하는 길이다. 미국의 독일 전쟁 때도 주일은 꼭 쉬게 했고 남북 전쟁 때도 주일은 전쟁을 멈추었으며 윌슨 대통령도 주일에는 일을 시키지 말고 공중 예배에 참석시키라 명령을 내렸다.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온 세계 불의의 세력과 싸우며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케네디 대통령 때 학교마다 채플(chapel) 시간을 없애고 성경 교육시간을 없애 버렸더니 그 후부터 장발족과 히피족이 생기고 마약 복용 자가 많이 생겨나며 총기난사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신학자 마르바 던은 주일을 지키지 않고 서부 오레건으로 가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한 그룹은 주일을 지키며 여행을 하였고 다른 그룹은 주일을 지키다가는 겨울이 돌아와 동사할

것을 우려 서둘러 목적지로 향하였다. 그러나 주일을 지키는 그룹이 오히려 예정 했던 날 보다 더 안전하게 먼저 도착을 했다.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신다.” 주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볼테르(Francois Marie Arouet Voltaire 1694-1778)는 “나는 기독교의 주일을 먼저 파괴하지 않고는 기독교를 때려 부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¹⁹⁾ 실제로 불란서 혁명 때 교회를 파괴하는 방법의 하나로 주일을 못 지키도록 10일에 하루씩 안식하게 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노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자 다시 주일에 쉬도록 법을 개정했다. 복한은 주일이 없다. 그런데 그들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안식하지 않고 일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그토록 찬란하던 유럽교회처럼 술집으로 타락하는 원산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성수를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은 구약의 명령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주일성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들은 성령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며 그림자와 실체(히 10:1) 곧 원형과 모형이 있다는 것에 무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도 전에 율법과 복음이라는 무식한 소리들을 한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까지 “율법적으로는 안 돼, 복음적이어야 해”라는 말로 하나님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외에 누가 풀 수 있겠는가. 그래서 칼빈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라고 말했다. 심지어는 성수주일에 관하여 주님의 날이 어찌 그 날뿐이겠는가 하며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니 어느 날 하루를 정하여 지키면 된다는 사람도 생겨났다. 그런가 하면 모든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환경에 따라 주일 대신 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어느 날 하루를 정하여 예배드려도 상관없다고 까지 말한다. 주일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이며 정하신 날이다.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것보다 자신의 편리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날(창 2:1-2)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므로 한 주간이 칠일씩 되어 있는 것이

19) Francois Marie Arouet Voltaire: Contrary to the idea that Voltaire wrote the Letters in English, they were written in French and then translated into English by John Lockman.

아니겠나. 그러므로 창조의 질서를 망각한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날을 피조 된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목회를 하면서 성수주일은 마지막 보루이다. 이 선이 무너지면 목회는 어려워질 뿐 아니라 그 모임은 예배라는 공동체적인 성도들의 Worship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Meeting에 불과한 것이다. 무엇이 다르겠느냐며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내 이름으로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하셨는데 무슨 잘못된 것이 있겠느냐 하고 말할 것이다.

그렇지만 예배와 모임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날이며 하나님이 안식하시며 함께 더불어 안식하시기를 원하시는 날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언제든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모임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의 모임과 주님의 날에 예배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구별하지 않으려는 무지한 사람들로 인하여 성수주일이 무너지고 있는 실태이다. Nyskc 목회는 본질적으로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주일 성수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고 오히려 명령을 지키라며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다. 이 명을 받들어 섬기면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이고 거절하면 주님에게 대적하는 것이다.

예배중심의 목회는 더 나아가, 내가 섬기는 본 교회에서는 정한 예배시간에 드려지는 예배에 초점을 취 성수주일을 가르친다. 주일 성수는 그리스도인에게 생명과 같은 일이며 직분자로서 사명을 받아 세움을 입을 때 주일의 분명한 예배생활은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도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므로 삶이 변화되고 삶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으며 교회의 본이 되어 초신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실제 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주일에 일하는 사람이 없으며 여행을 떠나거나 놀러가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주일의 출석교인이 교회의 등록교인과 동일하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4-25)”

온전한 헌금 생활의 회복(말 3:10)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후에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영적인 예배의 훌륭한 모형이었다. 이 제사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는데 밖으로는 제사에 관한 모든 법도를 준수하는 것이었고 안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정성스러운 제물이어야 하며 제물을 바치는 헌제자의 마음과 제물의 정성스러움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심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도 함께 받으시는 것이다.²⁰⁾

바울은 매주 정기적인 헌금을 권장하였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전 16:1-2) 그것은 구약시대에 실행된 바와 같이 하나님에게 헌금한 것이 아니라 모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연보였으나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며"(고후 9:7)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13) 때문에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던"(고후 8:5) 마케도니아 교회의 모범을 따라 예배의 한 형식으로 인정되었다.(고후 9:7)²¹⁾

교회는 분명한 헌금생활을 강조해야 된다. 드러지는 헌금생활은 자신의 신앙고백일 뿐 아니라 또한 마땅히 할 것을 함으로서 예배에 기쁨이 넘치게 되며 감사가 되어 예배에 승리하기 때문이다.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산다. 헌금 생활을 통해서 예배가 승리하면 결국은 삶의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헌금생활도 훈련이기에 훈련이 되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가운데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것이다.

20)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함으로써 예배와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 앞으로 우리가 살피볼 레위기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제사)에 대해 가르치는 책이다. 또한 레위기는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레 19:18)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과 기독교의 주요 교리, 죄와 인간에 대한 이해, 구원의 개념,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거룩에 대해 가르친다. 해리슨은 이를 가리켜 "이 책에서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기초가 발견 된다"라고 표현했다.(R. K. Harrison 1980: 9)

21) What does the Bible teach about tithing? Why should the believer tithe? 1.The believer should tithe because of the nature of God our Father, and Jesus our Savior and Lord. 2.The believer should tithe because he has received so much. 3.The believer should tithe because he needs a regular reminder that all of his life and possessions belong to God. 4.The believer should tithe because the Bible says he should. 5.The believer should tithe because this is God's plan to finance the work of the church. 6.The believer should tithe because if he does not, he not only robs God, but also robs himself of many blessings.

목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헌금 문제이며 헌신의 문제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목회가 잘되기를 원하고 있고 가능한 헌금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한다. 그러나 예배를 강조하고 이 방향으로 목회를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관문이라고 생각한다.²²⁾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었다. 그 제물은 구별된 것이어야 하며 1년 된 흠 없는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수가 있었다. 제사에 제물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성경의 레위기를 조금만 읽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창세기를 보면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그 제사는 실패한 것으로 결론 지어져 있다. 이로서 제물과 제사자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이미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가죽옷의 사건은 하나님의 용서와 관용 그리고 이해와 사랑이었다.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말로만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로서 보여주셨다는 뜻이다. 물론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릴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거절된 제사와 제물을 알고 거부하신다. 그러므로 제물이 아무리 흠이 없고 귀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 중심부터 구별된 제물이 아니라면 천 번제를 드려도 허사이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는 제사가 성립될 수가 없어서 “고운가루, 산비둘기” 등을 준비하여 드리라고 하셨다. 없어서 못 드리는 것조차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먼저 백성을 축복하신다. 그리고 축복받은 백성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에 감사하며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온전한 헌금생활이다.

그러므로 예배 중심의 목회에서는 “받았으니 드려라” 하는 것이 예물에 대한 신앙이어야 한다.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이미 받았음에도 드리지 않았던 것을 전제로 하나님께 마땅히 도리를 다하여야 할 백성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림으로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한 것이

22) Keeping everything in context is necessary, especially when we look into Malachi 3:8, we immediately notice that it has much to say about our TITHES and OFFERINGS. The Hebrew word for TITHES is MAASER, and for OFFERINGS, it is MINCHAH. TITHING first appears in the Holy Bible in Genesis 14:20 in connection with Abraham and Melchizedek. A similar portion of Scripture in The New Testament is found in Hebrews 7: 4-10, where we are also made aware of the wonderful opportunity to please the Almighty God in presenting our TITHES to Him. (By Dr. Elias E. Hidalgo)

다” 이것을 율법적 신앙 혹은 기복적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받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면서 “그 중에 십분의 일은 내 것” 이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라기서는 “도적질 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이 더 많은 열 중에서 아홉을 주시고 하나는 내 것이라고 구별하시며 “거룩하다” 하셨다. 그래서 거룩한 예물, 구별된 헌물이기에 봉헌하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하신 하나님의 법이다. 예컨대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 한분만을 섬겨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니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이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율법을 정하신 것은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만드신 것이다. 이것을 세상의 학문적 표현으로 법철학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인들은 십일조는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거부한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Tax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하여졌으니 이제는 십일조를 드릴 필요가 없고 “억지로 내지 말라” 는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 드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십일조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반납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오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물건을 팔 때 Tax가 붙어 있기 때문에 Tax를 받으며 받은 Tax를 돌려주는 것이 조세법이다.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떼먹은 것이며 훔친 것이 되니 도적질 한 것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중 한 부분만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그 것은 구별하라고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갖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헌금 생활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리(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를 다하는 것이다.

예배가 실패하는 경우를 구약에서 본 바와 같이 가인이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말라기에 나오는 제사장들, 신약에 나오는 제사장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은 그 제물이 그를 말한다고 하셨다. 따라서 일조전납(십일조) 생활이 온전치 못한 데서 예배가 실패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공부 시간을 통해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고 있다. 진정한 예배회복을 원한다면 이 부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초신자들을 위한 15주 성경공부의 30%인 5주를 제사와 제물, 예배와 예물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다. 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거룩한 십일조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으로 많이 듣게 된다.

예배중심의 목회를 접근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축복의 도리를 다할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으며 교인들이 따르거나 아니 따르는 문제는 그들의 신앙의 문제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헌금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나면 교회에도 충성하고 헌신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시간의 십일조, 물질의 십일조, 삶의 십일조” 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제물에는 하늘에서 불이 임하지 않던가 말이다. 그리고 완전히 사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뉴욕의 어느 분쟁하는 교회를 보니 “내가 드린 헌금 다 내나라” 하는 성도가 있었다. “내가 피땀을 흘려 번 돈을 다 내놓으라” 고 한다. 그럴 때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목회적으로 볼 때 아주 고통스럽지만 “내어줄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달라하느냐는 것이고 둘째는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미 다 살라 버렸다고 말해야 한다.

헌금생활이 온전하지 못하면 예배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교회의 직분을 맡길 수 없다. 예배와 예물의 관계는 비례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헌신과 비례한다. 이러한 함수관계는 목회자라면 모두가 인정할 줄로 안다. 바울은 정기적인 매주 헌금을 권장하였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전 16:1-2) 그것은 구약시대에 실행된 바와 같이 하나님에게 헌금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연보였으나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며”(고후 9:7)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13) 때문에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던”(고후 8:5) 마게도니아 교회의 모범을 따라 예배의 한 형식으로 인정되었다.(고후 9:7)²³⁾

이처럼 예배중심의 목회에서 헌금생활이 온전한 사람들을 보면 대개 교회를 향한 헌신과 충성이 잘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다. 예배중심의 목회에서는 매번 정기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리고 집회 시에도 헌금을 드리는 훈련을 한다. 헌금생활도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축복의 도리를 하는 자의 관

23) 고후9:7“Every man according as he purposeth in his heart, so let him give: not grudgingly, or of necessity: for God loveth a cheerful giver.”

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반납하는 것이다. 이런 은혜가 주어질 때 그는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일꾼이 된다. 그리스도인이란 상식이나 계산에 의해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존재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삶의 규범인 성경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성경은 십일조와 헌금생활을 명령하고 있다. 신명기 14:29이나 말라기 3:10을 보면 십일조의 의무를 말하고 있고 십일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앞선 자로 세워진다고 할 때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할 것이다.

그래서 예배중심의 목회는 분명한 헌금생활을 강조한다. 헌금생활도 훈련이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과정이라고 할까 아니면 믿음을 갖는 과정이라고 할까 내가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보았던 헌금에 대한 가치관과 신앙관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될 때 헌신은 자연스러운 열매가 된다. 그래서 성경은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셨다. 헌신이 억지로 된다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겠는가. 따라서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것이 헌신이지 마지못해 하는 것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나 죽지 못해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예배중심의 목회를 하는 과정 중에 가장 어렵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헌금에 관한 것이며 헌신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요즘 교회의 헌신자들은 다 사라지고 교회에서 시간당 수교료를 받으며 일하는 용역하는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은 예배가 무너진 실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예배중심 목회의 지향점

교회 제일주의 신앙의 회복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과연 교회를 구약에 나타난 성전의 원형으로 보는가 하는 것은 예배중심 목회에서 방점을 찍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예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배에 있어 성전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배자들의 구심점이 되었고 그것은 상징적으로나 모형론(typology)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예배회복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교회에서는 성전에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며 설교 역시 성전과 교회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한다.²⁴⁾

24) L. Berkhof,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Baker, 1984), p.144.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된 단과 제사의 시작은 노아와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모세를 세워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시고 “거기서 내가 만나리라”²⁵⁾ 하신 뒤에 성막의 제사로 드러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막 안 지성소 시온 좌에 임하셔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후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세워졌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는 회당이 세워지기도 하였고 헤롯 때 정치적인 의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복원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을 헐고 다시 사흘 만에 세우시겠다고 하심으로 성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임을 확인시켜 주셨으며 주님께서 “너희의 몸이 성전이라고”하셨다. 이것이 성전에서 교회로 발전되었다.

예배중심 목회가 성전중심 교회중심이라는 것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 너무나 중요하다. 물질의 세계에서 교회는 천상의 것을 예배함을 모르고 단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랄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만 매여 있게 됐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만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자유주의 신학이나 개혁신학이 극단적인 부분만이 조명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가톨릭의 경우 성전을 거룩하게 보았기 때문에 성전을 우상화하는데 까지 이르게 되었을 정도였다. 따라서 종교개혁주의자들은 이미 주님이 허물어 버린 성전은 성경적으로 전혀 필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물질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지상에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훈련에 있어 천상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

그러서 예배중심의 목회원리에서는 성전과 교회를 동시에 가르치고 있으며 언제나 성전의 중요성을 말하면 신약에서의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만약 지상에서의 성전이라는 구심점이 없다면 예배당은 필요 없을 것이며 교회라는 구심점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 죄인 된 인간들이 자기 편리대로 아무렇게나 예배할 것이 분명하다. 그 증거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점점 없어지는데 통계를 내보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하는 이들은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중심의 신앙생활을 거부함으로 교회는 점점 비어가고 있고 출

25) 출25:22 “And there I will meet with thee, and I will commune with thee from above the mercy seat, from between the two cherubims which are upon the ark of the testimony, of all things which I will give thee in commandment unto the children of Israel.”

석하는 교인에 비해 등록교인이 훨씬 더 많다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교회를 중심으로 더 이상 모이지 않는 주님께서 말세에 대해 염려하신 현상들이 눈에 띄게 드러난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므로 교회가 비어가는 현상을 직시해야 한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전과 교회에 관한 신학적인 것이 목회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정립되어 성전과 교회를 동시에 가르치며 그에 따른 성경공부를 강화하며 강단에서의 설교도 마찬가지로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사역과 삶의 일들을 재편해야 한다. 교회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런 곳이 어디 있으며 또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 밖에 또 어디에 있겠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인생의 삶은 복되고 존귀함을 누리게 된다.

예전에는 교회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교회가면 하나님을 만난다. 교회 가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을 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기복적인 말, 무식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한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교회를 가지 않고도 사이버 처치 같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 제물 된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면 된다는 것이다. 꼭 몸이 갈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제물이 없이 예배가 성립되는가? 정한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산 제물(Living Sacrifice)된 몸을 드려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열납 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데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영적금치산자같이 생활하는 많은 사람을 보게 된다. 교회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이 교회에서 드러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귀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몸이 오지 않고서 영으로서만 예배가 될 수 있는가?

따라서 예배중심 목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며 교회를 따르고 교회를 붙드는 것이 신앙임을 강조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듯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회복되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라는 것이 율법적이지요 교회주의자 같은 얘기라고 비판한다면 얼마든지 율법주의자가 될 마음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칼빈의 말처럼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그저 찾아가서 안기기만 하면 어머니의 품안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자람과 성숙을 맛보게 될 것이다. 주님과 교회를 한 몸으로 보고 어머니처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늘 문이 항상 열려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지고 좋은 것을 넘치게

받는 교회와 성도들로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²⁶⁾

아모스서는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일으키라 하였다. 그 이유는 무너진 다윗의 천막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세웠던 성막이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전신이다. 그런데 다윗의 천막이 무너졌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일으키라고 하신 뜻이 무엇일까. 다윗이 천막을 세웠을 때 그 안 하나님을 상징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다. 그리고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처럼 제사장과 찬양대를 반차로 정하여 성막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으며 제단에는 제물의 향기가 온 예루살렘 성내에 가득하였던 것이다. 지금이 무너진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다시 일으킬 때다.

‘보는 예배에서 드리는 예배로 회복’

예배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예배는 섬김의 대상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예배를 하나님을 사랑, 사회적 사랑이라고 정의하며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함이 가장 아름답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보는 예배”가 되는 순간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유는 드러지는 예배 안에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드리는 것을 보는 것으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배 드리는 것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된다면 예배는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보는 예배’는 객관적인 평가의 대상으로 예배를 전락시킨다. 설교자와 소수의 인도자를 보면서 평가하고 자신의 기준에서 설교를 중심으로 예배를 잘하고 못함을 평가하는 흠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인터넷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마치 구약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기 나름의 신을 섬기듯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신의 호불호를 따라서 자기 기준에 합당한 설교 목사를 발달문명의 기계 속에 세워두고 생명 같은 예배를 스스로 망치는 것을 보게 된다. 성경 없이 스마트 폰이나 아이패드 등을 들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하더

26) 종교개혁자 칼뱅은 자신의 책 '기독교강요'에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고, 낳고, 기르시는 것처럼 교회는 신자들의 영적 생명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라도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이상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배 중에 다른 것들을 검색하며 들여다보는 경우들이 많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궁금하고 어려운 것들은 그 자리에서 포털사이트로 들어가 검색하는 것도 이제는 너무나 자유로운 일상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기기에서 인터넷을 통해 세상의 음란과 저급한 세상문화가 함께 쏟아져 나온다. 또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설교자의 여러 웹을 띄워놓고 입맛에 맞게 설교자를 선택한다.²⁷⁾ 친정 목사님, 아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상담 목사님, 담임 목사님... 등 대부분 서너 명의 담임목사를 모시고 사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이들은 설교 말씀을 자신의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을까? 결국 자신의 영혼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설교는 강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다. 설교자의 예화가 맞는지 확인하는 등의 행위는 예배 자가 가져야 할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교회를 온전한 믿음으로 섬겼던 분들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당신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다. 저들이 동일하게 확신한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과 그곳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었다. 이런 자들은 교회의 작은 물품 하나 마저도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생각하였으며 눈에 보이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피 같은 물질도 아낌없이 그리고 마침내 삶의 전부를 다 드린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헌신의 섬김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넉넉히 되갚아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전성시대, 믿음의 명문가문들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

예배의 형식과 질서의 회복

참된 예배에는 사람의 편리를 따르지 않는 질서와 형식이 있다. 다양성을 강조하는 세대 가운데 질서와 형식을 말하면 율법주의처럼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는 편지가운데 예배의 형식으로서 “머리에 쓰는 것”을 가지고 “남자는

27) 인터넷이나 TV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생각은 교회를 중시하지 않는 무교회주의자의 관점과 같다. ...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아니다. 광선희 목사의 설교 중에서

머리에 쓰지 마라. 여자는 써라.”라고 하면서 서로 남녀의 다름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음을 본다. 남녀가 서로 구별이 될 때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자는 여자로서의 영광, 남자는 남자로서의 영광이 있는 것이다. 서로 보완되는 성질의 관계로서 그런 가운데 남녀는 더 동등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속살을 보이지 마라. 배꼽보이는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지 마라. 너무 짧은 치마는 입지마라.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예배를 드리지 마라. 등등’의 말씀들을 꽤 한 것으로 기억된다. 이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올 때는 갖추어야 될 형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올 때 1년 된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 등등.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에는 드리는 자의 마음 중심과 더불어 현재 상실되어가는 분명한 형태가 있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배가 너무나 인간의 형편을 따라 너무 멀리 자유롭게 나아간 것을 본다.²⁸⁾ 말씀만 듣고 헌금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아주 작은 부분 하나까지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문명의 기계 말고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십시오. 옷은 가장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으셔야 합니다. 거울에 비추어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할 정도로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은가 보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제물입니다. 미리 정성껏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개를 드시고 설교자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줄지 마셔야 합니다. 줄리면 뒤에 서서라도 예배를 성공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잔소리(?)들이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열정만큼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예배는 분명한 형식과 질서를 따라 드려야 한다. 특별히 주일 예배 만큼은 우리의 유전대로 하자는 것이다. 개혁과 변화라는 것을 굳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기준이 있을 때 변화와 적용의 원리도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예배가 일반 강연이나 치유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이다. 거룩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참된 마음은 ‘말, 행위,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속일 수 없이 드러나게 되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것이다. 속사람의 온전함으로 예배할 뿐 아니라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서도 상호간에 덕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서로 주의함이 덕이 된다.

28) Comm. on Col. 2:14. In his Comm. on Dan. 9:25, it is said that true expiation was “suspended” until Christ’s manifestation; cf. Comm. on Heb. 9:15.

주의 종의 권위의 회복

주님이 목회자와 성도에게 주신 사명은 각각 다르다. 사람은 같을 수 있으나 사명은 다르다. 성경에는 계층이 없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있고 구별이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 질서가 깨어지면 예배가 깨어지는 것이다. 오히려 너와 나를 강조하면 파당을 짓는 것이 된다. 그러나 구별을 강조하면 거룩한 공동체로 집약이 되고 교회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된다. 예배중심의 목회는 “목회자 중심”이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외시켰다든지 혹은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1은 하나님 중심, 그 다음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 다음은 목회자 중심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 그렇게 놀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벗어날 수 있었는가. 모세가 아니었던가. 사람들의 모임에도 리더가 있기 마련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 중심이라고 말만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교주들로부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에게 그 자리를 내어 주는 것과 같다. 따라서 예배중심의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성경적이며 신학적으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도들에게 밝혀야 한다. 예를 들면 질서적으로 볼 때와 하나님 앞에 자녀로 볼 때 하나는 수직적 관계성을 가져야 하고 또 수평적 관계성을 말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은 주의 종의 권위와 그의 역할에 대해서 순종적이며 복종적으로 따르며 서로 섬겨가지만 예배에 실패한 성도들을 보면 목회자를 평신도의 한 사람으로 취급한다.²⁹⁾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주님도 아니고 목회자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권한이 중직자들에게나 성도들에게 넘어가 있어 마음에 드는 목사를 자기들이 세우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없는 교회는 청빙위원회가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들이 녹음된 설교를 듣고 판단하며 인터뷰를 하거나 목회자의 서류를 보고 판단하여 선택하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유럽의 한인교회들 가운데 여건이 되면서도 담임목사를 세우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세우더라도 위임까지는 길고 지루한 과정을 지나간다. 왜냐하면 100불정도이면 한주간 적

29)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책임 (God's Absolute Sovereignty and Human's Responsibility) 김봉환 교수 (칼빈 목회연구원장)

당한 강사 유학생 목사들을 자유롭게 세울 수 있고 교회는 얼마든지 평신도 중심으로 운영이 될 테니까 부담스러운 일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직접적인 형편이 어려운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영적 지도자를 세우고 따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사단이 틈타기 좋은 통로가 된다. 이유가 무엇일까.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예배인도자를 자신들이 마음껏 조종하려고 할 때 결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다. 과연 그 결말이 무엇인가. 허물어지는 교회의 기초 위에 몰락의 위기 가운데 회개할 일들만 쌓아가게 될 것이다.

많은 목회자들에게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는 말을 가장 많이 듣게 된다. 그러나 좀 더 들어가 보면 결국 말씀을 증거 하는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구별되게 대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통로가 막혀지고 말씀에 막혀지니까 순종과 헌신의 삶이 결여된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다. 육신의 아버지가 육의 양식을 공급하듯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영적 아비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다. 요즘 시대에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전에 믿음의 삶에 지극히 성실하였던 분들의 신앙은 이와 같았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을 때 지금은 어려워도 미래가 있듯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반차가 분명히 있고 이것을 온전히 좇을 때 교회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아무리 가난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 들기를 기다리는 집안을 보면 가난하지만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증거로 보고 혼사가 오간다는 말이 있다.

교회의 미래가 무엇인가? 오늘날의 교회는 주의 종들의 영적 아비의 위치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버지 됨을 가르치고 설득해서 아버지 되게 할 수 있겠는가? 자식에게 내가 아버지라고 설득시키는 아버지는 너무나 불행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난제가 바로 주의 종의 권위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교회를 중심한 예배의 회복

야곱의 생애를 관통한 루스와 세겜같은 세상의 빈들에서 우리는 벤엘을 찾아야 한다. 오늘날의 루스와 세겜 그리고 벤엘이 어디인가? 세상의 빈들 광야에는 평안이 없다. 엄청난 기계문명속에서 영적인 기제들이 범람하듯 밀려들고 있지만, 홍수날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처럼, 교회도 신학교도 목회도 넘쳐나는 이때에 세상은 더욱 더 갈증의 몸부림속에서 목이 마른 정도를 벗어나 타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세상의 빈들에

서 우리는 뱀엘을 만나 그곳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야 한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의 언약을 확인하고, 그분앞에서 삶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결단하며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로 연약해진 갈증난 인생을 만나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더불어 마침내 서원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날 루스와 세겔이라는 이민자의 길 잃어버리기 쉬운 인생살이에, 당신의 뱀엘이 어디인지 묻는다면 어디를 말해야 할 것인가? 본질적으로는 영원한 본향 천국도성이다. 그러나 지금 이땅에서 그 뱀엘을 찾고 구한다면, 그곳은 바로 내가 섬기는 로컬 처치, 나에게 있어서는 알칸사 리틀락의 제자들 교회이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드러지는 예배가 인생의 회복의 길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사막 광야같은 이민생활, 풍랑많은 인생의 밤에 그 풍랑을 밟고 찾아오실 주님안에서 인생의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보면 대개 공통의 답을 말한다. '나에게 영적인 것을 말하지 마세요, 살아 있음의 순간 순간이 고통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잔뜩 고통과 절망에 짓눌린 채로 '아프다'고 말하기에 급급하면서 그 아픔에 대한 위로만을 찾아 피하기에 급급할 뿐, 그 고통의 풍랑을 허용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대해서는 지극히 무디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를 더욱 재촉하는 일들이 오늘날 인터넷 문명속에서 동냥젓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이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유를 사고파는 '동냥젓'이 세간에 알려졌다.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하며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 흡수에 좋은 모유를 인터넷에서 구입해 먹이는 일들이 엄마들에게서 성행한다는 것이다. 위험한 행동이다. 바이러스 감염 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들에게는 한층 더 위험하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세계에도, 말씀의 진지한 배움없이 인터넷 사이트등에서 마구잡이로 설교를 선택하거나 다운 받아 듣는 설교동냥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건강에 유익하지 못함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몸을 드리는 예배의 회복

예배를 위해 거룩한 장소로 나아와야 한다. 어디가 거룩한 장소인가? 예루살렘이 성지 Holy land Tour를 다녀와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따지는 자들은 예배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이 삭막한 광야 한 가운데 천막이라 할 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면,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찬란하게 꾸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보통 장소인 것입니다.

건물을 이상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교회는 건물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니, 그 곳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절대로, 건물이 거룩하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잘못된 전통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이 예배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몸이 교회로 오지 않는 편리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한다. 몸을 산제물로 주님앞에 가져 오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말세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였는데, 몸을 움직여 모이지를 않고 귀신도 아닌도 몸 없는 예배, 그런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다. 꼭 내가 몸을 움직여 교회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말씀듣고, 필요하면 헌금은 체크로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나중에는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의 일들도, 로봇이나 돈으로 고용된 일꾼에 의해 감당케할지 모를 일이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예배의 회복

회개를 통하여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교회 안에 들어 오는 자마다,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위로 쏟아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철저한 회개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 생명을 얻어 기뻐하는 잔치와 같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는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 돌이키는 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씻어 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옷을 입혀 주시고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무너졌다고 말할 때, 회개가 없는 예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만을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때,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하여 교회 안에 사람 조차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진정한 변화인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신령과 진정이 없는 무너진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고, 하나님께로 진실되게 돌이키는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물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

거듭된 재앙의 고통 가운데, 마지막으로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찌니라’고 말한다. 예배에 드릴 제물은 두고 빈손으로 가라는 것이다. 교회에 은혜가 떨어지면 재정문제가 시험거리가 되듯이, 남자가 신앙 떨어지면 돈부터 말해서 하나님앞에 빈손으로 가게 한다.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게 하는 것이다. 은혜는 받았는데, 드릴 것이 없으면 마음이 냉랭하게 차가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앞에 공수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사단은 십일조의 말씀을 교회에서 돈 이야기 하지마라고, 왜 부담주느냐?고 반박하는 지혜를 가지고 신자를 유혹한다.

바로왕의 소리는 사단마귀의 소리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유월절 재앙을 통해서도 반드시 그 백성들을 자신이 원하시는 구별된 자리로 이끌어 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많이 불편해도 부담이 되어도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말씀 그대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신앙해야 한다.

신앙의 소비자중심주의 거부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다. 교회의 존재목적의 가장 첫 번째가 예배이다.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예배를 잘 못드리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다. 좋은 교회는 예배 잘 드리는 교회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은 예배 잘 드리는 성도이다. 소비자 중심주의 태도를 없애야 한다. 마치 물건을 자신의 기호에 맞게 사듯이, 자기 만족 기쁨 편안함이 목적인 소비자 중심의 소비주의가 되면 안된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하늘문을 열고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누릴 만족과 기쁨이다.

앞으로 미래는 예배의 장소뿐 아니라, 시간도 마음대로 정하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중심이 아닌, 예배드리는 소비자형태의 성도중심으로 편리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도 이에 발맞추어 모든 상황들이 주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로 변경시켜 갈 것이다. 그 뿐인가? 예전에는 교회가는일 때문에 교회봉사하는 일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자식과의 싸움이 되었는데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선을 위해지나가는 아픔의 시간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이러한 고통을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할 틈도없이 너무나 잘 알아서 해결하고 타협하더라는 것이다. 스스로 알아서 적당히 타협하고 이해하니,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도 없고 더불어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도 없어지더라는 것이다.

신앙의 편리주의 현상의 극복

몇 가지 현상들을 살펴보면, 이미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되지 않느냐, 꼭 교회에 가야만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는가? 라는 편리주의가 일반화되어 가는 것을 본다. 그 한가지 예로, 1부예배가 드려지게 된 것은 교사 등 봉사를 해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예배를 빨리 드리고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가 많음을 본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드려지는 것인데... 사랑은 시간 떼우기가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는 데,,, 주일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

도록 정하신 날과 시간인데...등등' 다른 약속과 목적을 취하는 데 있어서 편리를 도모하도록 이용되는 예가 많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 사랑이라는 기본을 빼놓고 드리는 예배에 은혜가 없으니까, 반대로 은혜받지 못하는 자신을 타당화시키기 위해 교회의 다른 문제를 핑계하거나, 과거에 나도 은혜를 입을 때가 있었다며 추억의 신앙으로 전향하는 것을 보게 된다.

아마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예배하는 최소도 필요없다는 예배당무용론에 도달할 것이다. 극단의 예일지 모르지만, 너무나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 예배당에서 유행가 가수의 쇼가 펼쳐지든지, 술과 재떨이를 두고 예배하는교회도 생기지 않겠는가? 아니면, 아예 술집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시작할지도 모르겠다. 정말 그렇게까지 되기전에 주님이 오셔야 할 것 같은데, 들려지는 말로는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는 이미 초신자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교회당 한쪽에 재떨이를 두었다고 하니, 구별됨의 장소로서의 교회는 이미 무너져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회가지마라, 예배드리러 가지마라, 편하게 편리하게 신앙생활하라는 것은 결코 성령의 음성이 아니다.

신앙생활, 예배는 편한 것이 아니다. 예배는 시작부터 마치기까지,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며 마음이 축축해서 드러지는 시간이다. 예배는 편하게 하는 게 아니다. 죄성을 거스르며 성령과 말씀이 내 영혼을 조명하며 철저히 말씀에 초점 맞추어 겔 36:22-25의 말씀처럼, 영혼의 불순물이 씻겨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영혼이 수술받는 구별된 시간이다. 불편할지라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배의 구별이 온전히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연히 구별된 복장도 필요하다. 댄스홀에 왔는지 예배당에 왔는지 구별되지 않거나, 극장에서 영화보는 것인지 어떤 지 모를 자세로는 도저히 구별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인터넷을 보면, 십일조나 주일성수를 강조하는 목사님을 향해 율법적이라고 공격하는 일들이 많음을 본다. 예배하는 날로 정하신 주일도 마음대로 바꾸고, 교회예배당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선각자처럼 대우받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 저것 편리하게 다 바꾸게 되면, 나중에는 편안하게 팬티바람으로 집에 앉아서 다 할 것이다. 망하는 세대, 타락하는 세대의 모습이다. 이 악한 세대는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려는 우리에게 요구한다. '편하게 믿어라. 뭘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 하느냐고 말한다. 적당히 섞여 살아라'라고 말한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말씀대로 지키자고 하면, 율법적이라고 말한다. 그 내면속 깊숙

한 곳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과 멀어지게 하는 바로의 소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신앙은 편리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악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편리하고 편한 것만이 발전과 성숙은 아닌 것이다.

나가는 말

예배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며 예배를 통해 신앙의 본질로 접근하게 된다. 그래서 본질과 만나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예배를 체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예배회복이라는 말을 하면 그러면 지금 예배가 무너졌느냐 하는 질문을 받게 된다. 과거에 아주 좋았던 것이 무너졌거나 망가졌거나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일으켜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 방향에 대한 생각이 앞서 있기에 하는 질문일 것이다. 하지만 회복(recovery or restoration)이라는 단어는 과거적 돌아가자는(return) 방향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를 테면 근본주의나 원리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본질로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본질이나 근본이나 원리나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본질이라는 것은 사실 적이면서도 문자적인데서 더 깊은 중심적 사상을 말한다. 그렇다면 왜 예배회복을 주장하고 예배중심의 목회의 필요성을 강조하여야 하는가. 그것은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살기 때문이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중심이며 종합이다. 그러므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이 산제사로 드러져야 한다. 우리 몸을 제대로 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⁰⁾ 예배의 회복은 곧 기업의 회복이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모두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30) What is the nature of true worship? What are we actually doing when we meet together for 'church' on Sundays? And how does that connect with what we do the rest of the week? (True Worship December 1, 2001 by Vaughan Roberts)

예배란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이며 예배회복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기업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예배중심 목회의 방향은 교회의 회복이다. “다윗의 천막”이라는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건설하였던 하나님의 성막이었다. 이 성막은 다윗이 잃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천막이었다. 물론 다윗의 왕위의 왕성함을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천막이 무너졌고 그 틈이 벌어졌으며 퇴락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고 하신다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형이요 영적인 의미의 말씀임을 깨닫게 된다. 실제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복음이 확산 되는 한편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그 화려한 유럽의 교회가 다 무너졌으며 세계 신앙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한국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틈이 벌어지고 있으며 기둥들이 퇴락되고 있다. 다윗의 천막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틈이 벌어지고 퇴락한 것들이 생기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그 배후에 예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와 예배는 동전의 앞뒤 면과 같은 것이다.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동전이듯 예배와 교회는 하나인 것이다. 예배중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본이요 본질이며 전부

31) Everyone is in need of redemption. Our natural condition was characterized by guilt: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Romans 3:23). Christ’s redemption has freed us from guilt, being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Jesus” (Romans 3:24).

The benefits of redemption include eternal life (Revelation 5:9-10), forgiveness of sins (Ephesians 1:7), righteousness (Romans 5:17), freedom from the law’s curse (Galatians 3:13), adoption into God’s family (Galatians 4:5), deliverance from sin’s bondage (Titus 2:14; 1 Peter 1:14-18), peace with God (Colossians 1:18-20), and the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1 Corinthians 6:19-20). To be redeemed, then, is to be forgiven, holy, justified, free, adopted, and reconciled. See also Psalm 130:7-8; Luke 2:38; and Acts 20:28.

The word redeem means “to buy out.” The term was used specifically in reference to the purchase of a slave’s freedom. The application of this term to Christ’s death on the cross is quite telling. If we are “redeemed,” then our prior condition was one of slavery. God has purchased our freedom, and we are no longer in bondage to sin or to the Old Testament law. This metaphorical use of “redemption” is the teaching of Galatians 3:13 and 4:5.

Related to the Christian concept of redemption is the word ransom. Jesus paid the price for our release from sin and its consequences (Matthew 20:28; 1 Timothy 2:6). His death was in exchange for our life. In fact, Scripture is quite clear that redemption is only possible “through His blood,” that is, by His death (Colossians 1:14).

The streets of heaven will be filled with former captives who, through no merit of their own, find themselves redeemed, forgiven, and free. Slaves to sin have become saints. No wonder we will sing a new song—a song of praise to the Redeemer who was slain (Revelation 5:9). We were slaves to sin, condemned to eternal separation from God. Jesus paid the price to redeem us, resulting in our freedom from slavery to sin and our rescue from the eternal consequences of that sin. (Recommended Resource: Making Sense of Salvation by Wayne Grudem.)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쉬운 것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예배이다. 교회중심, 예배중심을 언급하기에 이 시대는 너무나 멀리와 있음을 본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회복자 (redemption) 예수 그리스도,³¹⁾ 회복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할 때 처음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는다. 결론적으로, 예배중심 목회의 방향은 예배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통한 삶의 전인적인 회복을 지향하는 것이다.

목회와 영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교회 제자양육 훈련

오승균 목사(한국 총회, 마산성산교회)

각 국가 뿐 아니라 교회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한 두려운 생각이 있다. 최첨단 기술의 시대이지만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4차 산업시대는 기성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에기에 기대 못지않게 염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각 나라마다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하는 것 같다. 교회 역시 4차 산업시대를 피해 갈 수 없다. 따라서 교회는 앞으로 곧 닥칠 4차 산업시대를 맞을 적절한 준비를 해둬야 할 것이다. 그래야 대사회적 사명과 책임을 더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이를 통해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이 기존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로봇, 생명공학, 나노 기술 등 여러 분야의 신기술이 결합되어 세상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할 것이

다. 따라서 기존 산업혁명(1차-3차 산업)에 비해 현저히 빠른 속도로 사회의 전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사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 1) 지식기반사회: 지식 자체가 하나의 가치를 만들어 경제적 기반이 된다.
- 2) 정보화와 세계화: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모든 국가가 하나로 통합되는 세계화를 가속화한다.
- 3) 인공지능(AI)과 노동시장의 변화: 2050년에는 인간의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대체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는 1-5%에 불과할 것이다.
- 4) 다원주의와 거짓 가르침의 증가: 다양한 가치 추구 사회로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거짓 진리와 거짓 가르침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 5) 가상사회와 개인주의: 최첨단 과학기술과 통신기기의 발달로 가상공간을 만들어 각자 자신만의 세계와 삶을 추구한다.
- 6) 영적 가치의 빈곤: 인간의 기술과 과학을 절대시하며 우상화한다. 결국 영적 빈곤이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

4차 산업사회에 요구되는 역량(한국의 100대 기업)

- 1) 창의성: 상상, 창의, 독창, 가치창출
- 2) 전문성: 자기개발, 실력, IT활용능력
- 3) 도전정신: 개척, 모험, 도전, 변화, 선도
- 4) 도덕성: 도덕, 정직, 신뢰, 기본원칙
- 5) 팀워크: 협력, 공동체의식, 배려
- 6) 글로벌 역량: 열린 사고, 국제적 소양, 어학능력

7) 열정: 열정, 자신감

8) 주인의식: 책임의식, 주인의식, 자율, 성실성, 사명감

9) 실행력: 신속한 의사결정, 리더십, 추진력

4차 산업사회에서의 교회의 준비와 역할

자아 정체성과 자존감 세워주기

교회는 신자 각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도록 가르치고 잘 훈련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시 139:13, 14)

재능(은사)과 창의성에 주목

4차 산업시대는 다른 시대와 다르지 않다. 변화와 방법이 다양하고 속도가 다를 뿐이다. 따라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때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개발하도록 돕고, 각자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영성의 깊이에 이르도록 지도해야

인공지능(AI)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영성이다. 4차 산업사회의 가장 어두운 면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마다 영적 빈곤에 허덕이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은 자명한 것이다. 그것은 영성의 깊이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공동체 정신과 인간상호관계성을 훈련해야

전문가들은 미래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10대 기술로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창의성, 협업능력(공동체 정신과 상호관계성), 감성지능 등을 꼽는다. 특히 공동체 정신과 인간상호관계성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이다. 교회의 강점이 무엇인가? 공동체 정신과 관계성이다. 교회는 자신의 강점을 잘 살려서 미래시대를 선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도록 지도해야

4차 산업사회는 다양성의 사회이다. 따라서 절대 진리를 거부한다. 영적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여러 다양한 종교와 가르침과 방법을 수용한다. 자연히 영적으로 혼란스런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크리스천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성경과 복음을 가르치는 제자 삼는 교회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교회는 성도에게 신앙생활의 기본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미국 6개주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선택과목으로 가르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교회는 교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을 주요 사명으로 여겨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살릴 수 있다. 제자훈련과 성경공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훈련은 바이블키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교육 포럼

- 목회자의 스트레스와 탈진의 문제 : 이민 교회 목회자 탈진(김영준)
- 목회와 교육 좌담회 : 한인교회의 목회와 교육
(나삼진, 강상석, 전상철, 최규태, 한태일)
- 디아스포라 시대 목회 협력 방안 (정지호)

목회자의 스트레스와 탈진의 문제

이민 교회 목회자 탈진

김영준 목사(재미총회, 알칸사 제일장로교회)

들어가면서

탈진은 북미(North America)에서 여러 분야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있는 심리적 증상입니다(Maslach & Leiter, 1997). 특히 소위 ‘휴먼 서비스’ 직종(Human Service Work), 예를 들어 사회 복지사, 간호사, 교사, 목회자들에서 탈진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Maslach, 1993). 북미의 한인 교회에서 사역하는 다수의 평신도 사역자 혹은 목회자들도 종종 탈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 목회자들은 스스로 탈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탈진을 경험하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무기력 해지고, 사람과 사역에 관해 냉소적인 태도를 나타내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이러한 탈진 증상과 요인들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 가족과의 갈등을 일으키거나, 사역지를 옮기거나, 쌓아온 목회 경력을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 들기 쉽습니다(Kim, 2018).

그동안 미국의 한인 1세 목사들은 언어 및 문화적 이질감, 경제적 어려움, 과중한 사역, 리더십 간의 갈등, 사역 성취감 저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탈진을 자주 경험합니다

(Lee, 1994; Han & Lee, 2004). 이민 교회 부교역자들, 특별히 1.5세 혹은 2세 부교역자들의 경우, 유교 문화에서 비롯된 이민교회의 수직적 리더십 구조, 이민 교회 내의 한국어 목회와 영어 목회 사이의 괴리감, 적은 사례비, 과중한 사역, 사역 외적인 업무 부과 등이 주요한 탈진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Kim,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 교회는 목회자 혹은 평신도 리더들의 스트레스와 탈진 대하여 별로 주목하지 않았고, 그들 스스로의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로만 인식했습니다. 언급한 문제에 관하여, 탈진의 원인, 증상, 영향에 다양한 이론과 더불어 성경적 관점 및 사회과학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 볼 것입니다. 이러한 문헌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해결책들을 살펴 볼 것입니다.

탈진 이론

정의

탈진은 정신적 스트레스, 부담을 주는 업무 환경에서 경험하는 육체적, 정서적, 심리학적 소진을 뜻합니다 (Pines & Aronson, 1988). 탈진은 스트레스가 만연한 업무환경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고갈, 냉소적인 태도, 혹은 무기력감등을 포함하는 심리적 상태를 뜻합니다 (Maslach & Courtois, 2008).

탈진 증상

프루이텐베르크 이론. 심리학자 프루이텐베르크는 탈진의 다양한 육체적, 행동 증후군을 소개 하였습니다 (Frueденberger, 1974). 육체적 증상으로 피로, 소진, 만성적 감기, 잦은 두통과 위장 장애, 불면증, 호흡 곤란 등을 포함합니다(Frueденberger, 1974).

행동증후군

탈진의 다차원 모델(Multidimensional Model of Burnou). 잭슨과 메슬렉은 심리측정 연구를 통해 탈진의 다차원 모델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탈진은 세

가지 차원의 심리적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정서적 소진(Emotional Exhaustion), 비인격화(Depersonalization), 그리고 개인적 성취감 저하(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으로 나타납니다(Maslach, 1993).

정서적 소진:

비인격화:

개인적 성취감 저하:

세가지 차원의 관계:

탈진 원인

메슬랙과 리이터(Maslach & Leiter, 1997)는 탈진을 일으키는 여섯 가지 요소 발견하였습니다. 이 요소들이 주로 대인관계의 갈등 보다 업무 환경과 조직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요소들은 과중한 업무, 적절하지 못한 보상, 공동체성 파괴, 통제 결여(lack of control), 공평성의 부재, 그리고 가치 갈등을 포함합니다.

자원보존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 Theory). 자원보존이론은 홉폴(Hobfall, 2001)에 의해 고안된 탈진 이론이며, 자원의 보존과 부재가 스트레스와 탈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주목하는 이론입니다. 홉폴은 업무에 필요한 필수 자원들의(시간, 에너지, 승진 기회, 돈, 가족 및 동료들과의 친밀감) 손실로 인해, 스트레스가 과중된 업무환경의 극복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결국 탈진을 경험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회적 인정과 적절한 보상 등의 주요 자원의 획득은 개인적 성취감을 높여주고, 이는 스트레스와 탈진의 예방으로 이어집니다(Hobfall & Freedy, 1993).

자기정체성 이론(Existential Model of Burnout). 심리학자 파인(Pines, 1993)은 사람이 자기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자기의 일에서 발견하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할 때, 탈진을 경험한다고 주장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가치를 신과의 관계, 종교적 믿음에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일과 성취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주장합니다(Pines, 1993). 파인에 따르면, 실존에 대한 딜레마에 대해 일에서 얻는 성취보다 종교적 믿음이 더 만족할 만한 답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일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으려는 사람은 신앙에서 그것을 찾으려는 사람보다 더 쉽게 탈진을 경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생태계 이론(Ecological Model of Burnout). 캐롤과 화이트(Carrol & White, 1982)는 탈진의 원인과 관련된 사회적 생태계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이론에 따르면, 다양한 사회적 집단들 속에서 각 집단에 존재하는 환경적 변인 들과 개인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탈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태계: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스트레스와 탈진의 관계

다양한 사회과학 연구 결과, 스트레스와 탈진은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주장이 증명되었습니다. 스트레스와 탈진을 일으키는 원인들도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만연된 스트레스가 항상 탈진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는가에 따라 탈진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Yu et al., 2015). 또한, 모든 직원이 스트레스를 받지만, 삶의 가치와 존재감을 종교적 신앙에서 찾는 직원들은 탈진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ines, 1993).

사회 과학 연구 리뷰- 목사 탈진

복미 목사들의 탈진

골든 외(Golden et al., 2004)은 321명의 미국의 감리교 소속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탈진, 영성과 업무 환경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SPSS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피어슨 상관관계 및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 결과, 탈진은 각각 기도의 성취(Prayer fulfillment)와 성도와의 영적 애착 관계(Connectedness)와 유의한 음의 관계에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기도의 성취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며, 기도의 성취감이 높아질수록 탈진을 적게 경험하고, 또한 성도간의 영적인 친밀감이 높아질수록 탈진 증상도 줄어든다고 주장합니다(Golden, et al., 2004). 반면 업무량이 과중해 지거나 (over workload), 역할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수록(role ambiguity), 정서적 소진, 비인간화, 개인성취감 저하등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Golden, et al., 2004).

챌들러(Chandler, 2009)는 탈진이 영적 쇄신(spiritual renewal)과 충분한 휴식, 그리고 지원체계(support system) 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 복미 20개의 교단에 소속된 목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피어슨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통해 영적인 메마름(spiritual dryness)과 하나님과의 시간을 방해하는 바쁜 사역 환경이, 각각 정서적 소진과 비인간화 와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에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챌들러는 지속적인 영적 갱신이 정서적 소진을 예방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며, 바쁜 사역 탓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록, 정서적으로 소진되고, 성도를 향한 더욱 냉소적으로 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잦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두리틀(Doolittle, 2010)은 몇개의 행위 변인(behavioral factors) 들이 탈진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으며, 이 변인들이 탈진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뉴욕 컨퍼런스에 참여한 연합감리교회 소속 222명의 목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꾸준한 성경 공부의 실시 할 수록 비인격화 증상은 적어지고, 정기적인 멘토와의 만남, 일년에 두차례 리트릿의 실시, 가족과의 정기적인 시간 갖기, 일주일에 세번의 운동, 그리고 자신의 영적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록 정서적 소진은 낮게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영적생활 만족도가 높고,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횟수가 많을 수록 개인성취감이 증가하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두리틀은 탈진을 인식한 사람은 멘토나 카운슬러를 만나서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고, 가족구성원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사역과 사역 외적인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고, 일정 시간이나 사역의 부담으로 부터 벗어나서 다른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정서적인 재충전 하는 것이 탈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Doolittle, 2010).

스캇과 로벨(Scott & Lovel, 2015)은 시골목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들, 외로움, 고립감, 탈진등을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시골 목회의 전문성과 웰빙을 진작시키는 법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54명의 시골교회 목회자들은 이 연구자들이 창안한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설문에 응했습니다. 연구 결과, 많은 참여자들이 고립감과 슬픔을 자주 느끼며, 사역과 삶의 균형 잡기에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골이라는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 다른 사역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 단체들로 부터 지원을 잘 받기 힘들어서 참여자들이 탈진을 경험한다고 주장했습니다(Scott & Lovel, 2015). 한편, 시골교회 목사들은 사회 복지사(Social Worker)와 같은 역할도 이행해야 했는데, 큰 정서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사역과 개인적 삶이 적절하고도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는 점이 정서적 소진을 야기 하였습니다(Scott & Lovel, 2015).

브루어(Brewer, 2016)는 하나님의 성회에 소속된 사역자 들의 탈진의 원인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21명의 사역자들이 인터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원인들을 발견하였는데, 사역 성취에 대한 비 실제적이고 과도한 기대감과 과중한 사역(Heavy Workload)이 정서적 소진과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 졌습니다. 참여자들

은 탈진의 증상으로 불면증, 만성피로, 매너리즘, 대인 기피,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소원해짐 등을 경험하였습니다. 브루어가 말하길, 몇몇의 참여자들은 너무 많은 사역 임무를 다른 사람과 적절히 나누어 처리하려 하기 보다 스스로 완수하려 하는 가운데 탈진을 경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적은 사례금으로 인해 사역에 집중하지 못한 결과 탈진을 경험하게 되었고, 30프로 이상의 참여자들은 교회내 소위 파워게임과 갈등으로 인해 탈진과 사역지 이동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Brewer, 2016).

한인 이민 교회 목사들의 탈진

한국 총신대 이관직(Lee, 1994) 교수는 미국 문화에서의 개인의 삶을 영위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한인 목회자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탈진의 단계와 그 원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카고, 뉴욕, 남가주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73명의 한인 목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25%의 참여자들이 극심한 탈진을 경험했습니다. 이관직 교수는 스트레스와 탈진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영어, 미국 문화 적응, 인종 차별, 사회 복지사의 역할, 교회 내 한인 가족과 다문화 가정 사이의 갈등 혹은 문화적 차이, 임차한 교회 건물 주인과의 관계,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Shin(2012)은 목회자 가족이 겪는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사회적 지원에 속한 변인들이 목회자 가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탐구하기 위해 320 명의 한인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회자 배우자의 경우, 사회적 관계성과 관련된 변인들 즉 고립감, 갈등, 동료의식 부재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목회자들은 구체적인 사안, 즉 불충분한 사례, 좋지못한 건강/컨디션 등이 스트레스를 유발했습니다. 연구자는 한인 목회자들이 업무 시간과 휴식 시간을 분명히 구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연구자는 한국 이민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유교문화의 부작용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주장했습니다.

Han & Lee(2004)는 이민교회를 섬기는 한국인 목회자들이 느끼는 사역에 대한 요구들(ministry demands)과 사역의 결과물(i.e., 웰빙,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194명의 이민 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결과 분

석을 기초로, 한인 교회 구성원 계층간의 경계가 모호해 질수록, 또한 사역 결과에 대한 성도들의 기대감을 더욱 인식할 수록, 웰빙을 적게 경험하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교회의 수직적 리더십 구조의 영향으로 목회자 그룹과 평신도 그룹이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만약 이런 구분이 모호하게 되면, 그 자체가 한국교회 내의 사회 문화적 규범을 위반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한국 목회자들의 웰빙에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됩니다(Han & Lee, 2004). 한편, 연구자들에 의하면, 한국의 문화적 요소가 삶의 만족과 과중한 업무 부담에는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의식에 흐르는 순교자 정신과 운명론적 믿음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Han & Lee, 2004).

Oh(2013)는 소명의식이 한국 청소년 목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200명의 청소년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SPSS를 사용하여 다중 회귀 분석과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소명이 청소년 사역자들의 탈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초월적 부르심(Calling-transcendent)과 삶의 목적과 의미(purpose & meaningfulness)를 분명히 인식할 수록, 탈진 증상이 줄어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한, 사역에 있어서 타인 지향적인 가치나 목표가 뚜렷할 수록(prosocial orientation), 탈진증상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Oh, 2013).

김영준(2018)은 캘리포니아의 한인교회에서 사역하는 청소년 사역자들이 경험하는 탈진의 원인, 증상, 그리고 효율적 관리를 탐구하기 위해 20명의 청소년 사역자들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자의 80%는 1.5 세 혹은 2세 사역자들이었고, 나머지는 1세 사역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대면 및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취합한 데이터를 Nvivo 11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분석하여, 네개의 주요 카테고리(다차원적 탈진 요인, 증상, 긍정/부정적 영향, 해결방법)와 여러 개의 하부 개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차원적 탈진 요인:

탈진 증상:

긍정적/부정적 영향:

해결책:

제안:

탈진의 성경적 관점

엘리아의 탈진 증상과 회복 과정

열왕기상 19:1-4. 엘리아는 이세벨의 위협으로 인해 우울함, 깊은 절망, 무기력함, 무능력함 등의 탈진과 비슷한 증상을 느꼈습니다(Wiseman, 1993; Auld, 1986). 엘리아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그가 느낀 육체적 소진, 정신적 고갈, 실패감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Keil, 1965; Auld, 1986; Iorg, 2009; Sweeney, 2007; Konkel, 2006).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왕상 19:12-13):

엘리아의 사명/소명을 갱신(왕상 19:15-18):

모세의 탈진 예방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듣고, 다른 리더들에 과중한 재판관의 역할을 위임하고, 자신의 본연의 직무인 중보 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출애굽기 18:20) (Kaiser, 2008). 그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 준수와 탈진의 관계

통합

앞에서 살펴본 탈진의 성경적 관점은 여러 탈진에 관한 사회과학적 이론과 연구 사례와 통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요약 및 결론

위에서 살펴본 탈진에 관한 다양한 이론, 사회과학 연구 결과, 그리고 성경적 원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첫째, 목회자들은 다양한 목회 환경적 요인, 대인관계와 관련된 요인, 또한 영성과 관련된 요인들로 인해 탈진을 경험합니다. 주요 원인으로 (1) 과중한 업무량 (불명확한 역할 구분), (2) 업무 위임의 실패 (failure of delegating workloads), (3) 적은 사례, (4) 문화/언어 차이, (5) 수직적 리더십 구조, (6) 이민교회 내의 Korean Ministry 와 English Ministry 의 괴리감, (7) 사역의 결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감, (8) 지역적 고립감, (10) 리더십 갈등 (담임목사 와 부목사/ 담임목사 와 장로) 및 성도와

의 갈등, (11) 하나님과의 건강하지 못한 관계 인식, (12) 영적 고갈, 그리고 (13) 불만족스러운 경건 생활입니다.

둘째, 한인 목사들이 탈진을 겪을 때, 정서적 소진, 만성피로 및 다양한 질병, 분노, 회피, 냉소적인 태도, 비인간화, 무기력감, 개인 성취감 저하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탈진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가족구성원 간의 불화, 빠른 임지 이동, 사역의 질적 저하 등의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반면, 탈진을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 설정함으로써 내적 소명을 재인식 있고, 탈진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계발 할 수 있으며, 다른 사역자와 습득한 지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인 목회자들이 탈진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Resolution of Burnout) 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정기적인 쉼과 안식의 기간을 (안식일/안식월) 꼭 가져야 합니다. 안식일(월)에는 철저히 사역으로 자신을 분리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역자들의 실제적인 안식일인 월요일에, 사역 관련 비상 상황 외에 긴급적 전자우편,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의 사용을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과 시간을 보내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개인적인 리트릿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업무 보충을 위해 안식의 기간을 활용하면 안됩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위해 개인 경건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 조우하여 탈진 증상에서 회복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임을 재확인하고, 소명/사명감을 회복 할 수 있습니다(Pines, 1993; Oh, 2013; 1 King 19).

셋째, 동료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자주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료들과 허심탄회하게 고충을 나누고, 서로 도전을 주고 받고, 기도해 줌으로써 정서적이고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회 주관 하에 여러 세미나나 목회자 모임 등을 기획하여 정기적 모임

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교파를 초월한 지역 교회 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목회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서 모임과 같은 그룹 활동을 통해 동료의식을 배양하고, 사역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탈진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역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역 외의 업무들 (i.e., 사회 복지사들의 역할, 라이드, 통역, custodial work, etc.)을 줄여야 합니다. 물론 이민 교회 특수성을 고려할 때, 성도들 다양한 필요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서적으로 소진되고, 에너지가 고갈되고, 성도들을 회피하거나 냉소적인 태도가 심해지면, 사역 외적인 업무들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과중한 사역을 줄여야 합니다. 동료 사역자나 신실한 평신도들을 신임하여 사역의 일부를 위임할 필요도 있습니다(모세의 탈진 예방).

마지막으로, 동역하는 영어권 사역자들의 사역과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인 교회내 영어권 사역자들은 1세 사역자들과의 여러가지 문화적인 갈등으로 인해 탈진을 경험합니다(Kim, 2018). 그 결과, 자주 사역지를 옮기거나, 사역을 그만두는 사례가 많습니다. 영어권 사역자들의 탈진과 잦은 임지 이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례, 분명한 job descriptions 제시, 교단 차원의 지원 및 관리, 수평적 리더십 구조 지향, 그리고 Korean Ministry와 English Ministry협력적 관계 구축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영어 목회 사역자들에게 모든 사역의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되고, 무리하게 한국 목회의 많은 이벤트나 프로그램 참여를 요구하는 것도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세 목사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 대한 걱정을 접어두고, 영어권 사역자들과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영어권 사역자들의 의견을 집중하여 듣고, 존중하는 노력을 보인다면, 그들은 1세 사역자들의 목회 철학에 더 쉽게 동의할 수 있고, 오랫동안 건강한 관계 안에서 동역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평가 및 나눔

1. 나는 어떤 탈진의 증상과 영향을 경험했는지 적어봅시다.
2. 내가 경험한 스트레스와 탈진의 주요 이유 세가지만 적어 봅시다.
3. 스트레스와 탈진을 극복한 자기만의 방법 등이 있으면 적어 봅시다.
4. 위의 작성한 문항에 대해 나누고 싶은 분은 자발적으로 나눠주세요.

참고문헌

- Auld, A. G. (1986). I & II Kings. In John C. L. Gibson (Ed.), *The daily study Bible* (Old Testament). Philadelphia, PA: The Westminster Press.
- Brewer, E. D. (2016). *Burnout among assemblies of God clergy with implications for support from church and denominational leaders* (Doctoral dissertations). Retrieved from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Global. (1787830648).
- Carroll, J. F., & White, W. L. (1982). Theory building: Integrating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factors within an ecological framework. In D. Whiton Stewart Paine (Ed.), *Job stress and burnout: Research, theory, and intervention perspectives*. (pp. 41-60).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Chandler, D. J. (2009). Pastoral burnout and the impact of personal spiritual renewal, rest-taking, and support system practices. *Pastoral Psychology, 58*(3), 273-287. doi:10.1007/s11089-008-0184-4
- Doolittle, B. R. (2010). The impact of behaviors upon burnout among parish-based clergy.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49*(1), 88-95. doi:10.1007/s10943-008-9217-7
- Freudenberger, H. J. (1974). Staff burnout. *Journal of Social Issues, 30*(1), 159-165.
- Golden, J., Piedmont, R. L., Ciarrocchi, J. W., & Rodgerson, T. (2004). Spirituality and burnout: An incremental validity stud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2*(2), 115-125. Retrieved from <http://search.proquest.com/docview/223669572?accountid=8624>
- Han, J., & Lee, C. (2004). Ministry demand and stress among Korean American pastors: A brief report. *Pastoral Psychology, 52*(6), 473-478. doi: 0031-2789/04/0700-0473/0
- Hobfoll, S. E. (2001). The influence of culture, community, and the nested-self in the stress process: Advancing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0*, 337-421. doi:10.1111/1464-0597.00062
- Hobfoll, S. E., & Freedy, J. (1993). Conservation of resources: A general stress theory applied to burnout. In Wilmar B. Schaufeli, Christina Maslach, & Tadeusz Marek (Eds.), *Professional burnout: recent developments in theory and research*. (pp. 115-133).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Iorg, J. (2009). *The painful side of leadership: Moving forward even when it hurts*. Nashville, TN: B&H Publishing Group.
- Kaiser, W. C. (2008). Exodus. In Tremper Longman III & David E. Garland (Eds.),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Genesis -Leviticus* (Vol. 1, pp. 333-562). Grand Rapids, MI: Zondervan.
- Keil, C. F. (1965). The books of the Kings. In C. F. Keil, & F. Delitzsch (Eds.),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Kim, Y. (2018). The causes, symptoms, and management of burnout among youth workers in Korean immigrant churches in California (Doctoral dissertations). Retrieved from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Global. (2154847134).

Konkel, A. H. (2006). 1 & 2 Kings. In Terry Muck (Ed.),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MI: Zondervan.

Lee, K. (1994). Stress and burnout among Korean American pastors in American culture: Implications for pastoral care (Doctoral dissertation). Retrieved from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Global. (304142798).

Maslach, C. (1993). Burnout: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In Wilmar B. Schaufeli, Christina Maslach, & Tadeusz Marek (Eds.), *Professional burnout: Recent developments in theory and research*. (pp. 19–32).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Maslach, C., & Courtois, C. A. (2008). Burnout. In Gilbert Reyes, Jon D. Elhai, & Julian D. Ford (Eds.), *The encyclopedia of psychological trauma* (pp. 103–107). Hoboken, NJ: Wiley.

Maslach, C., & Leiter, M. (1997). *The truth about burnout: How organizations cause personal stress and what to do about it*.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Oh, Y. (2013). The effects of calling and ego-resilience of Christian youth workers on burnout. *The Gospel and Counseling*, 21, 190–221.

Pines, A. M. (1993). Burnout: An existential perspective. In Wilmar B. Schaufeli, Christina Maslach, & Tadeusz Marek (Eds.), *Professional burnout : Recent developments in theory and research* (pp. 33–52).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Pines, A. M., & Aronson, E. (1988). *Career burnout: Causes and cures*. New York, NY: Free Press.

Scott, G., & Lovell, R. (2015). The rural pastors initiative: Addressing isolation and burnout in rural ministry. *Pastoral Psychology*, 64(1), 71–97. doi:10.1007/s11089-013-0591-z

Shin, M. (2012).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lergy family stress among Korean American Baptist pastors and their wives. (Doctoral dissertation). Retrieved from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Global. (1286715385).

Sweeney, M. A. (2007). I & II Kings: A Commentary. In William P. Brown, Carol A. Newsom, & David L. Peterson (Eds.), *The Old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KC. Westminster John Knox Press.

Wiseman, D. J. (1993). 1 and 2 Kings: An introduction & commentary. In Donald J. Wiseman (Ed.),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Downers Grove, IL: Inter- Varsity Press.

Yu, X., Wang, P., Zhai, X., Dai, H., & Yang, Q. (2015). The effect of work stress on job burnout among teachers: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2(3), 701-708. doi:10.1007/s11205-014-0716-5

디아스포라 시대 목회 협력 방안

정지호 목사(재미총회 총무, 전 재미총회 교육위원장)

오늘날 세계로 눈을 돌리면, 지구상에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자신이 출생한 땅을 떠나 해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는 디아스포라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디아스포라 시대

한인 디아스포라 상황

이 흩어짐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뜻이 있음을 보게 된다. 한국인은 구한말 일제하에 핍박과 대기근을 피해 만주와 연해주로 흩어지기 시작하여, 1903년에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1진 102명이, 1905년에는 1,031명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있는 에니깡 농장으로 흩어져 갔다. 1937년 연해주의 고려인 18만명은 스탈린에 의해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쫓겨나 흩어지기도 했다. 해방 이후 정치적 혼란과 6·25 전쟁 등으로 민족이 다시 흩어지기 시작했고, 60년대와 70년대는 광부와 간호사로 국가적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서독을 중

심한 유럽으로 흩어졌고, 계속해서 농부는 남미로, 어부는 원양어선을 타고 남태평양 등지로, 건설 노동자들은 중동으로 나아가기도 했다.

현재는 유학이나 사업 혹은 주재원으로 전세계로 흩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목적으로 동남아 등지로 이주하기도 한다. 그 결과, 2018년 기준으로 약 750만 명 이상의 한인들이 전 세계 175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다.1)

가장 많은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며(255만) 이어서 미국(249만), 일본(82만), 독립국가 연합(구소련, 35만) 캐나다(24만) 등지에 전체 한인 디아스포라의 약 90%가 거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세계 디아스포라 현황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억명의 1세대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 그들의 2세와 3세를 포함하고, 일시적으로 이동 중인 인구까지 합하면 약 10억 명의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이다. 그 중 약 4천 만명의 이민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독립국가 연합(러시아포함)에 1천 2백만명, 그리고 독일에 약 1천 만명의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민족이 옮겨와서 살아 가고 있다. 전통적인 선교의 패러다임에서 ‘선교지’라고 할 만한 지역의 이민자들이 지금은 미국 러시아 독일 등으로 흩어져 와서 한인 디아스포라들과 이웃으로 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호성기 목사 같은 분은 지금이 선교의 1시대 연안 선교시대, 2시대 내지 선교시대, 3시대 종족선교시대에 이어 제 4시대 디아스포라 선교시대라고 칭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바로 선교지라는 것이다. ‘Here and Now’ 선교운동을 강조한다.

세계가 함께 공존하는 이런 시대에 개혁주의 세계 교회 건설을 추구하는 세계고신 교회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해외동포 목회와 교육 정책 협의회’가 15년전에 만들어지고 함께 협력을 모색한 일은 아주 의미 있고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15회를 맞이하면서 협의회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보고 더 나은 협력과 발전의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해외동포 교육과 목회정책 협의회의 진행방향 점검

제 1회는 해외동포 신앙교육정책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2005년 한국총회가 주관하여 “해외 한인교회의 목회와 교육”이라는 주제로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2007년에 목회를 추가하여 “해외동포 목회와 교육정책 협의회”로 개칭되어, 지금까지 한국총회(5회), 재미총회(3회), 대양주총회(3회), 유럽총회(2회), 일본(1회), 남아공(1회)을 거쳐 오늘 제 15회 “4차 산업혁명시대의 목회와 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협의회 방향 점검

이제 15회를 맞는 시점에서 앞으로 더 나은 방향의 협의회 진행을 위해 지난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지난 1회에서 10회까지 10년 동안의 과정은 제11회 협의회에서 발표한 “해외동포 목회와 교육정책협의회가 걸어온 길” 나삼진 집필,을 참조하면 좋겠다). 이를 위해 제10회 협의회 “해외동포 목회와 교육 정책협의회 10년과 미래전망”을 주제로 진행한 후에 발표한 ‘시드니 선언문’을 기초로 지난 5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진행을 생각해 보려 한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시드니 협의회에서 모든 참석자들은 “해외동포 목회와 교육정책 협의회가 고신의 세계화와 교단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초교파적으로 고신교단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고신 교회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각 총회간의 상호 이해와 실질적인 협력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 … 또 타 교단이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협의회로 해외 동포의 신앙과 삶에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시도임이 타 교단에 속한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의의가 있고 선한 영향력을 확인한 바가 있다”고 협의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기여점을 바탕으로 참석자들은 해외동포 목회와 교육정책 협의회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모임의 요구들을 재확인하였으며, 협의회의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하였다.

1. 한국 총회와 해외 총회 간의 실질적인 교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도록 한다.
2. 각 총회는 이 모임을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도록 한다.

3. 차세대 지도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훈련시키는 일에 주력하기로 한다.
4. 각 총회가 필요로 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5. 효과적인 협의회의 진행을 위해 각 총회에서 파송된 대표들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기획위원회를 통해 차기 3년 동안의 개최 장소 및 주제를 결정하도록 한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이 모임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고신 교단에 주신 귀한 선물임을 인식하면서 본 교단의 세계화는 물론 열방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협의회가 될 것을 마음 깊이 다짐하고자 한다. (2014. 5. 29 참석자 일동)고 선언문을 채택했다.

평가

무엇보다 협의회를 통해 각 총회의 서로 다른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간의 협력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총회 교육원의 노하우와 교재를 활용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제로 주어진 상황이다. 그 동안 큐티 교재인 ‘복있는 사람’의 보급이 점차 확대되는 점, 각 총회가 필요로 하는 실제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으로 해외 총회에 설교 세미나(대양주)나 바이블키 지도자 세미나(재미, 대양주)가 진행된 점은 그 동안의 노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교재번역 과제는 현재 번역 출간된 한 영 세례문답지 외에 대양주에서 바이블 키가 번역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재 번역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좀더 실제적인 준비, 즉 재정과 번역진이 포함된 조직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협의회 기간과 개최 국가는 사전에 미리 3년정도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준비하는 데 좀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디아스포라 시대 이민교회 상황

이동성이 강하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급급하다.

인내하지 못하는 성도들

정보, 교육의 부재

이민자의 급격한 감소 추세(조기 이민 감소, 노년층의 역 이민 증가)

외부적 수혈이 필요한 상황

한국에서도 고신이 상대적으로 숫자적으로 작은 교단이기 때문에, 해외에도 고신 출신 교인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혼자 개척을 시작하는 경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귀한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계승하는 일에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목회 협력 방안

1) 인적 Network 정보 연결

디아스포라 시대에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도 예전처럼 한 번 등록하고 죽을 때까지 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다국적 기업을 따라, 사업을 위해, 주재원으로, 연구 및 유학 등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 특별히 이민교회의 이동은 더욱 심하다. 교회에 올 때부터 1-2년 후에 떠날 예정인 경우가 아주 많다. 대학을 배경으로 하는 유학생 교회나 군인지역의 경우는 움직임의 정도와 편차가 아주 크다.

2) 노회간 자매결연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진행이 요청된다.

3) 교회 지원 및 개척 사업 협력이 필요하다.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진행 사례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의 준비, 공적인 채널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하다.

4) 각 대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활용한 상호 교류 프로그램 개발.

유럽지역에서는 유럽 교회사, 종교개혁지와 연관한 세미나와 탐방,

미주 지역에서는 언어연수, 문화체험, VBS ...

대양주, 일본, 중국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5) 안식년이나 영적 재충전을 위한 교향 묵회와 묵회자 세미나 교류 등.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고신 교회와 한국의 고신 교회가 아름다운 협력과 상호 연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개혁주의 세계 교회 건설과 세계 복음화에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계속되기를 소망한다.

부록

- 영상강의 PPT 자료

제4차 산업혁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만날 미래 (김종수)

제4차 산업혁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만날 미래 (김종수)

제4차산업혁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회가 만날 미래

김종수 목사

일상생활사역연구소 / 생텍고육공동체_에듀컬 코이노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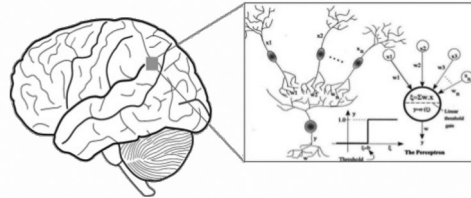


1202개의 CPU(중앙처리장치)와 176개의 GPU(그래픽처리장치)
1000개의 서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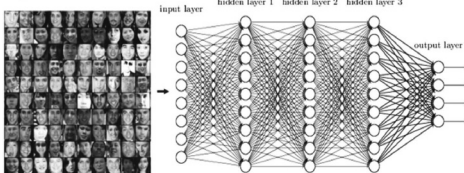
1202:1

Deep Learning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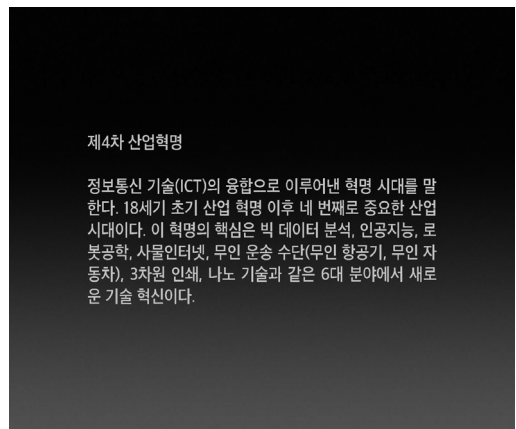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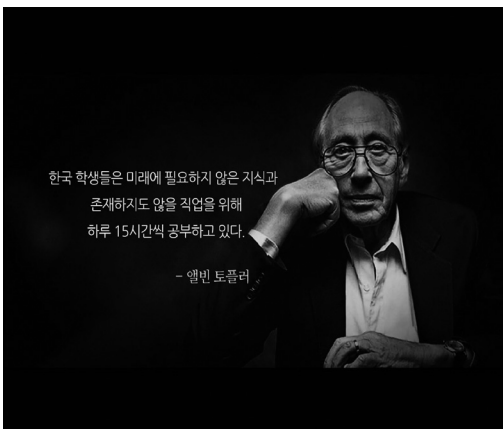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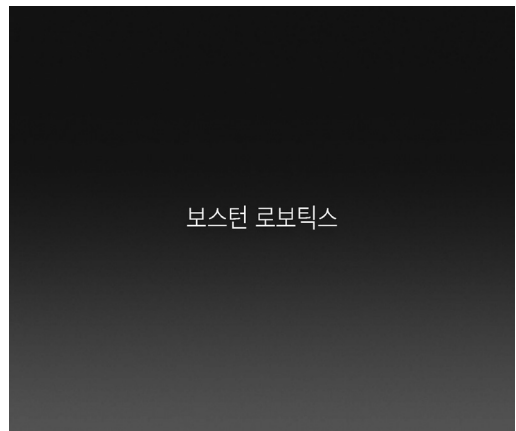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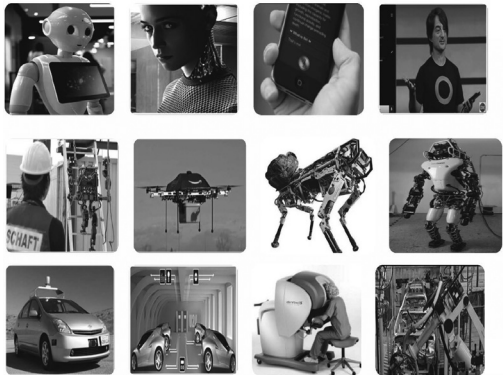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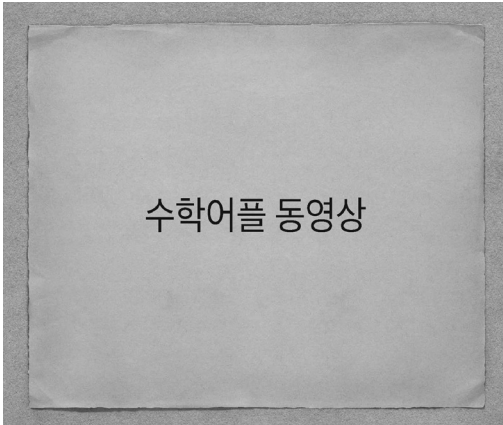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Deep neural networks learn hierarchical feature represent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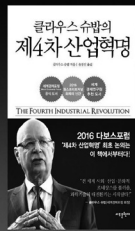


인공지능 왓슨



제4차 산업혁명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의 장으로 있는 2016년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주창된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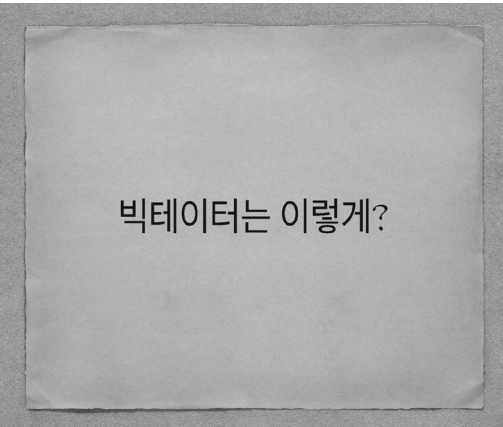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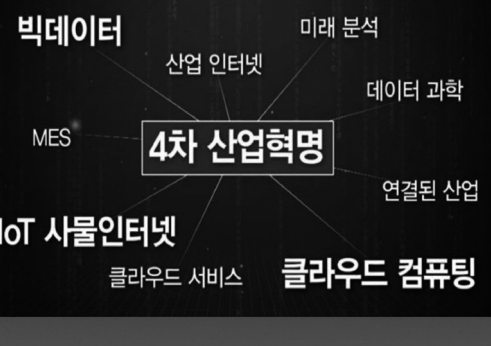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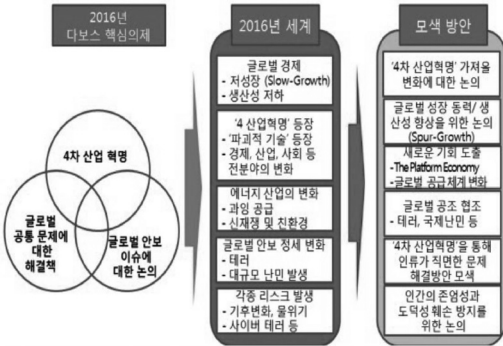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
- 다보스 포럼, 2016 -



미래창조과학부 자료

< 2016년 다보스 포럼의 대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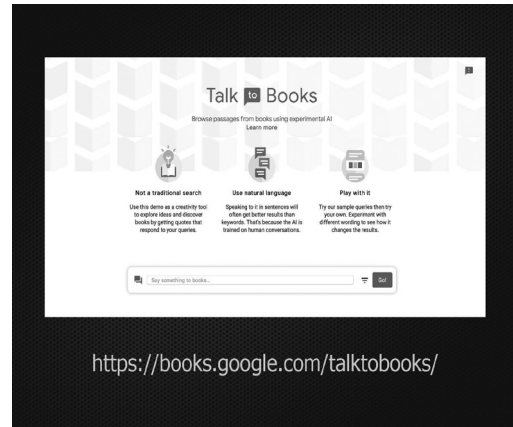


인공지능 VS 인간 주식투자 대결 수익률(13일차)

슈팅스타 (AI)	+12.19%
아이콘 (AI)	+11.01%
리베 (AI)	+5.97%
이중일	-0.15%
김우식	-3.47%
신명욱	-9.03%



3D프린터로 집짓기



<https://books.google.com/talktobooks/>

제4산업혁명(인더스트리4.0) 독일
 = 산업 인터넷 (미국)
 = 제조2025 (중국)
 = 로봇혁명 (일본)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북미)

표 주요국 4차산업혁명 전략 비교

구분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민간과 정부 역할	- 민간 주도 정부-국회차원	- 민간 주도 정부 지원	- 민간 주도 -민-관 공동	- 민-관 공동주도- 공공성형	- 정부 주도, 민간 실행
가버니스	- 내閣장관직 4차산업혁명위원회 - 4차산업혁명 법 제정 - 개인 특별위원회	- 민간 컨소시엄 - 민-관 파트너십	- Platform Industry 4.0 - 정부-기업-학계	- 제4차산업혁명 관 민 - 학계-정부-기업-학계	- 정부 (국무원, 공인사회부)
핵심전략	-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 예정	- 산업2.0(2012년 11월) - AMP 2.0(2013년 9월)	- Industry 4.0(2011년 11월)	- 로봇 신전략(2012년 7월) - 4차산업혁명 신전략(2012년 4월)	- 중국제조 2025 (2015년 5월) - 인터넷플러스 (2015년 7월)
특징	- 디지털 제조업에 의한 - ICT 혁신기 가져옴 사회 - 변화 예측	- 기술의 자급률 보우한 - 기업 주도 - 제조업 중심	- 제조업에 ICT 융합 - 국제 표준화 선도 - 프라운호퍼 연구소	- 기술, 인력양성, 금융 - 고문, 자계경제 등 종합 - 대응	- 제조업 발전을 통한 - 경쟁력 제고 -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 내수시장

<https://www.koscom.co.kr> IT동아 서면 내용 발췌
본문: 2017년 12월 20일 현재 작성된 자료입니다. 본 문헌의 내용은 2017년 12월 20일 현재 작성된 자료입니다. 본 문헌의 내용은 2017년 12월 20일 현재 작성된 자료입니다. 본 문헌의 내용은 2017년 12월 20일 현재 작성된 자료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신차첸

메이커 스페이스 신차첸

일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세대

노동유연성 심플라이프
주52시간노동 저녁이 있는 삶
기본소득 공유경제 워라밸
노마드 일터 밀레니엄세대

인구절벽



'인구절벽'이란?

한 세대의 소비가 정점을 치고 감소해
다음 세대가 소비의 주역으로 출현할 때까지 경제가 둔화되는 현상
현대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경제적 변동이다

지금 세계는 유럽에서 흑사병이 휩쓸 이후
처음으로 앞 세대보다 인구 규모가 작은 세대가 뒤따르는 상황에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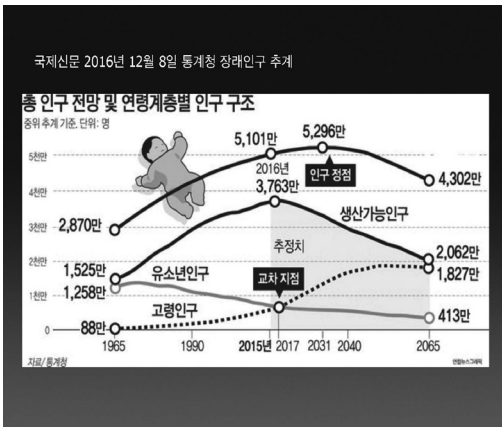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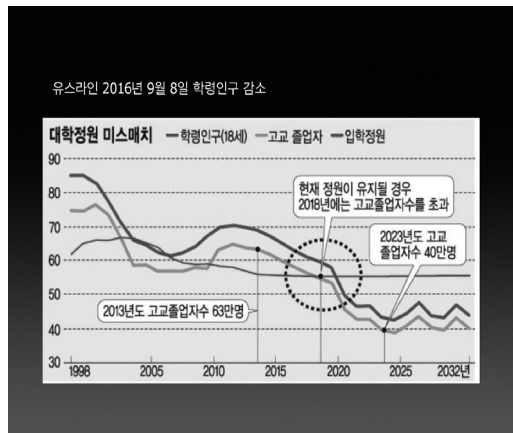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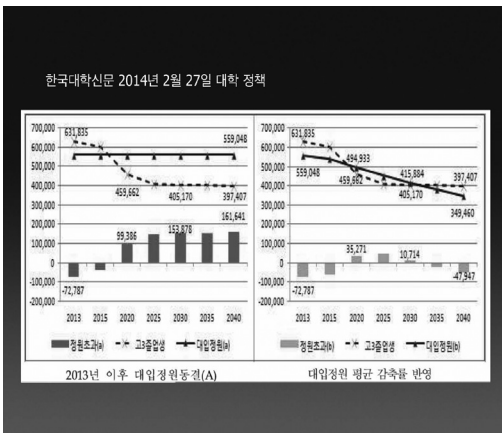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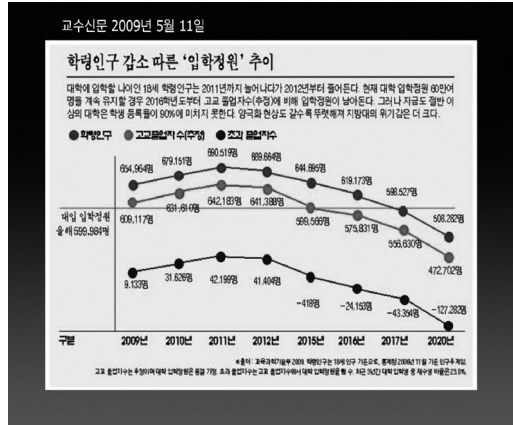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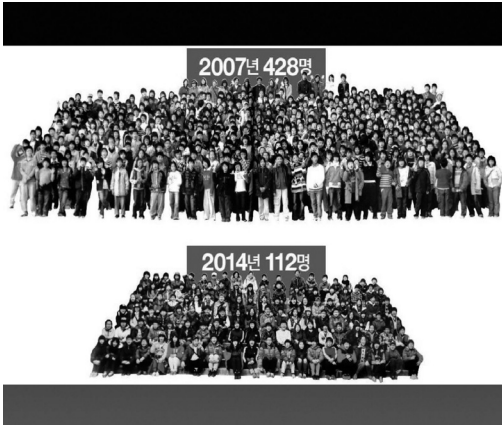


Demographic Cliffs Around the World

Country	Peak Spending
Japan	1989-1996
United States	2003-2007
Germany	2010-2013
United Kingdom	2010-2013
France	2010-2020
Italy	2013-2018
South Korea	2010-2018
Spain	2025
China	2015-2025

Source: U.S. Census Bureau, United Nations Pop. Div.

※ 출처 : dailyreckoning.com (2014.1.15.)



포스트 모템(postmortem)

포스트 모템(postmortem)
부검, 검시라는 말입니다.



<https://brunch.co.kr/@svillustrated/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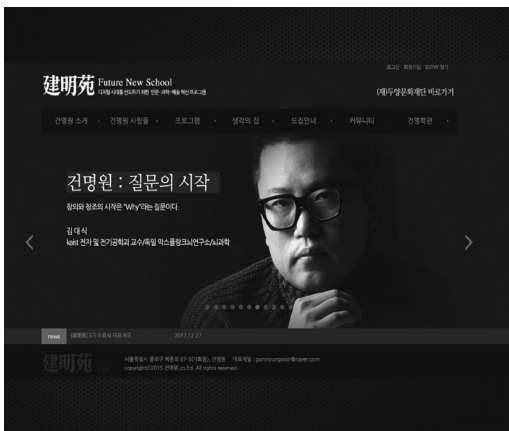
실패해도 괜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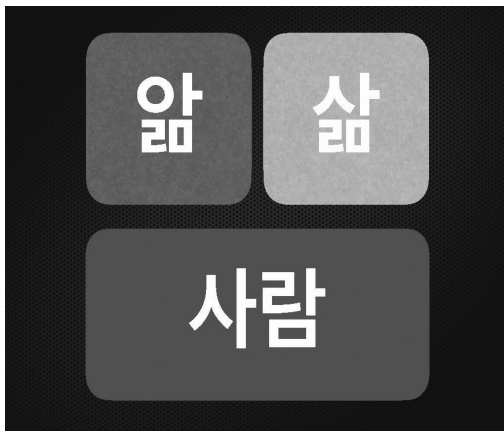
CHANGE

그럼 교회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

텍스트(메세지/사람)읽기
 마을살교육시스템 만들기
 삶 문제 해결력 키우기




텍스트(메세지/사람)읽기





미래 사회에
결코 놓쳐서는 안될
사람

어떤 사람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  **통섭형 사람**
-  **협업형 사람**
-  **네트워크형 사람**


어떤 사람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통섭형 사람

나무 -> 숲을 볼 수 있는 안목
 전문적 지식 -> 엮어내는 지식으로
 자신의 필요 -> 사회적 필요와 가치로 전환적 모험


어떤 사람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협업형 사람

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의식과 태도
 새로운 관계를 받아 들이고
 과감하게 협업을 시도하는 유연성


어떤 사람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네트워크형 사람

오픈 소스 운동을 통한 소통 능력 중시
 다양한 사람들의 합의 도출하고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을 도출하는 공감 능력


어떤 사람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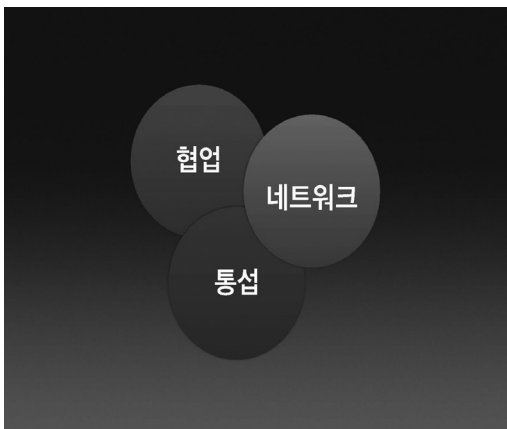
통섭형 사람



협업형 사람



네트워크형 사람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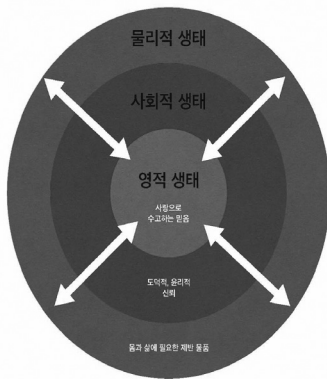
자신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세상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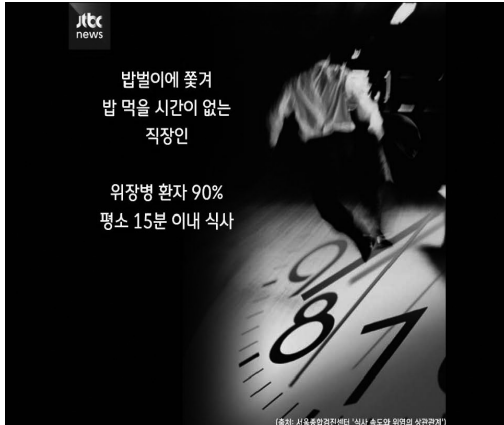
관계
 생태(ecology)

생태(ecology)

οἰκονομία 오이코노미아
 — 경륜 —
 => economy(경제)
 'oiko nomos(집안 살림하는 사람)
 ecology(생태학)
 'oiko logos (집안 살림학문)
 상호관계, 상호의존
 가정 혹은 가족

οἰκονομία 1 오이코노미아 경륜
 οἶκος 2 오이코스 집
 οἰκοδομέω 3 오이코도메오 집을 짓다, 건축하다
 οἰκοδομή 4 오이코도에 직립적으로 건물을 세우는 행동
 οἰκονόμος 5 오이코노모스 관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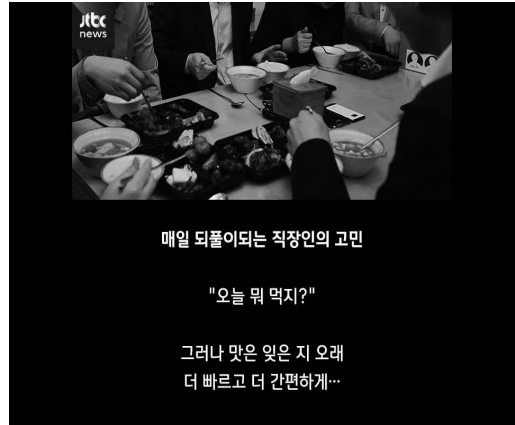


jtcc news

밥벌이에 쫓겨
밥 먹을 시간이 없는
직장인

위장병 환자 90%
평균 15분 이내 식사

(출처: 서울종합병원센터 "식사 A도와 위염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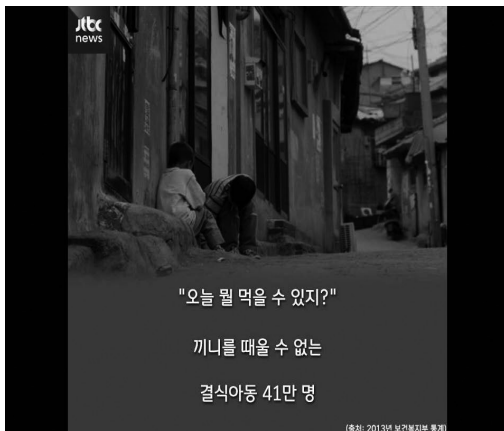


jtcc news

매일 되풀이되는 직장인의 고민

"오늘 뭐 먹지?"

그러나 맛은 잊은 지 오래
더 빠르고 더 간편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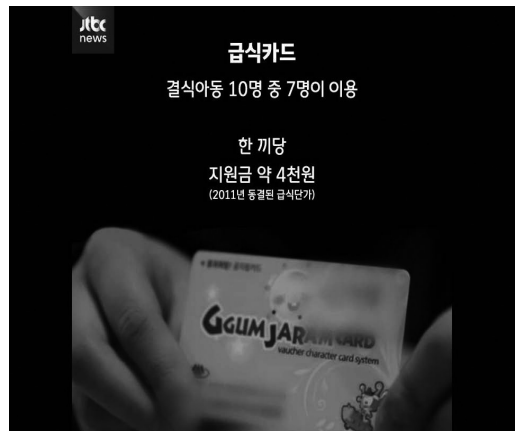


jtcc news

"오늘 뭘 먹을 수 있지?"

끼니를 때울 수 없는
결식아동 41만 명

(출처: 2013년 보건복지부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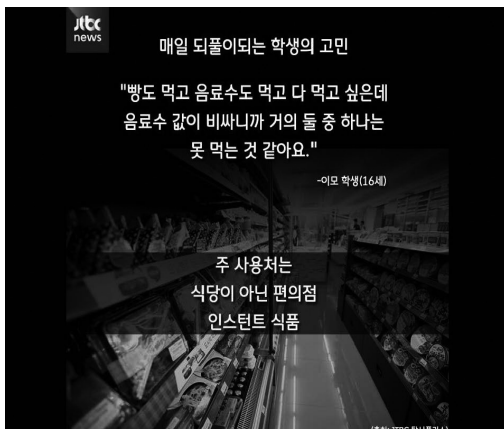


jtcc news

급식카드

결식아동 10명 중 7명이 이용

한 끼당
지원금 약 4천원
(2011년 통결된 급식단가)



jtcc news


매일 되풀이되는 학생의 고민

"빵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다 먹고 싶은데
음료수 값이 비싸니까 거의 둘 중 하나는
못 먹는 것 같아요."

-이모 학생(16세)

주 사용처는
식당이 아닌 편의점
인스턴트 식품

(출처: JTCC 영상강의)



jtcc news


결식아동에게
밥은
생존을 위한
끼니

jtcc news

취업준비생에게
밥이란?

대충대충

혼자 밥을 먹는 대학생 70.4%
"평균 식사시간 15분 이내"



(출처: 이영미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혼자 식사에 대한 남녀대학생의 인식 및 식행동')

jtcc news

"밥 먹는 데 시간을 쓰면 그만큼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취직하면 잘 챙겨먹으리라 생각하며 위안..."

- 취업준비생 서모(25세)씨

혼밥의 문제점


- 대충 때우는 식사 (36.1%)
- 인스턴트 식품 섭취 (19.1%)
- 너무 빠른 식사시간 (13.3%)

(출처: 중앙일보 '특가정음' 밥은 먹고 다니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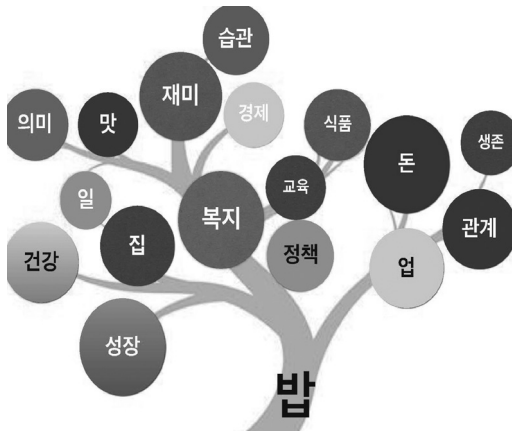
jtcc news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당신에겐
어떤 의미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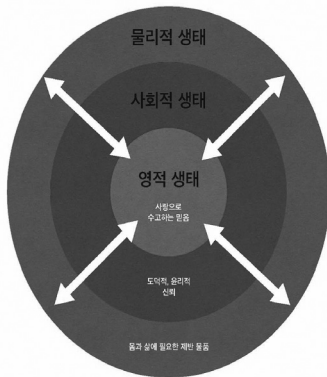


가옥 여산해 다라인 서은경



텍스트(메세지/사람)읽기

마을삶교육시스템 만들기



어떤 사람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통섭형 사람

협업형 사람

네트워크형 사람

마음을 위한 교육
마음을 만나다

마을교육공동체
외로배움터

꿈이 자라는 삶, 지속가능한 삶

마을교육공동체
외로배움터

통합성 진인성 지속가능성


더불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되기

통합성
[마을 사람들을 모두에게 화합이 되는 마을학교]
마을이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기본 공교육뿐만 아니라 마을 자체가 배움의 장임을 믿습니다. 마을 모든 세대가 더불어 배우고 나누어 새 희망의 나침반을 만들어 가는 실학교

진인성
[인생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마을학교]
마을사람들이 온 몸과 믿을 통해 함께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기는 인생학교입니다.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인생살이에 답을 함께 찾아가는 배움 공간

지속 가능성
[전 세대가 함께 배우고 자라고 세워가는 마을학교]
마을 사람들이 살 지혜가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할 우리 미래의 유산이라 믿습니다. 함께 어울려 지속가능한 마을 유산을 세우고 만들어 가는 미래학교





**2015 대구형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사업 공모 안내

대구 행복한 마을에서 누구든지, 뭐든지, 다같이 해보는 [2015 대구형 행복한 마을공동체만들기 자원사업의 다양한 주제들과 마을공동체를 모집합니다.

마을 계획 수립을 꿈꾸는 주민들을 위한

제1기 마을비전학교

우리 마을의 비전을 우리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한 학교가 있습니다. 마을의 비전을 직접 계획하는 단계부터 이를 마을에서 풀어나가는 단계까지 구체적인 고민들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학교입니다. 마을에서 이웃과 소통하고 싶은 분, 마을에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은 분, 마을에서 성장하고 싶은 마을활동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 대구형 마을공동체활성화 마을의제 공모사업-마을 공사업계획서


**이곡동 마을생태계 자원 맵핑과
마세모(마을을 세우는 모임) 활성화 사업**

동네 책방 / 우렁이 밥상 / 와룡배움터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조성사업(마을농터)

지속가능한 삶,
마을교육공동체 _ 와룡배움터
공유공간조성사업

마을교육공동체
와룡배움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내 아이가 만날 미래

내 아이의 미래
미래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만날 미래 이야기
대체 학교 이야기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일시 : 2016년 3월 29일 (화)

2016 와룡배움터 2층 위한 5월 학부모 이야기 교실

**가짜 공부?
진짜 공부!**

5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 12시
와룡배움터 2층
2층(와룡배움터 2층)

문의 : 초등교육팀
051-850-1111
해당 지역 주민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함께 만드는 마을,
함께 누리는 삶**

2016년 4월 20일 오전 10시
와룡배움터 2층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구를 구하는
생태적 삶**

2016년 4월 29일 (화) 오전 10시 ~ 12시
와룡배움터 2층 교실
문의 : 051-850-1111
해당 지역 주민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계명대학교 환경대학 동계동 교수님
이주호 교수님께서 환경교육 관련 내용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태적 삶에
대해 말씀과 함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16년 4월 29일 (화) 10시 ~ 12시
와룡배움터 2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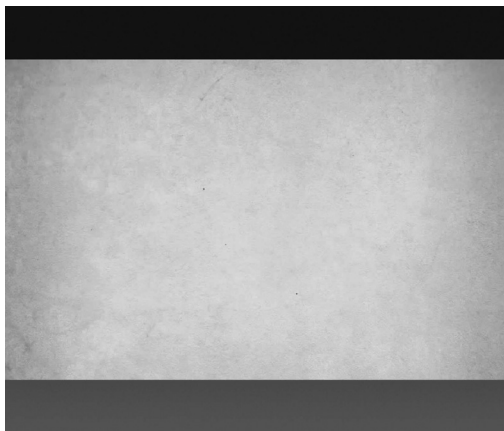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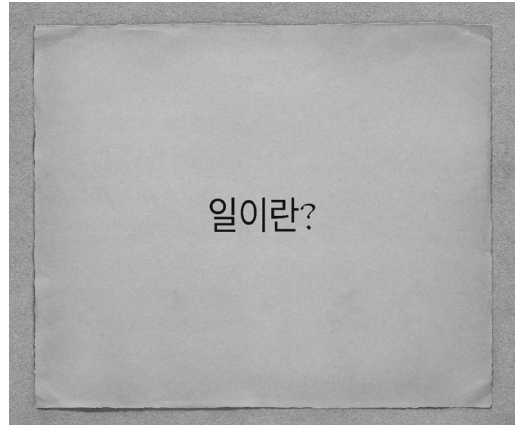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

참여
네트워크
통섭

사람
소명
공간
돈



마을교육공동체 체계도

2018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2017년 고등학생들의 진로 적성을 위한 '경기꿈의대학'이 인연됩니다!

행복지수 1위 덴마크에서 새로운 길을 찾다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오연호 지음 | 320쪽 | 16000원

자유
안정
평등
신뢰
이웃
환경

놀이가 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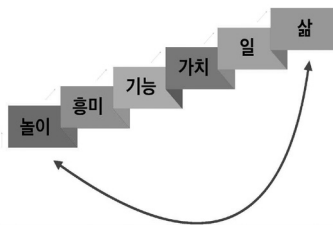


놀 틈 (시간)
놀 터 (공간)
놀 또래 (사람)

규칙과 관계와 사회를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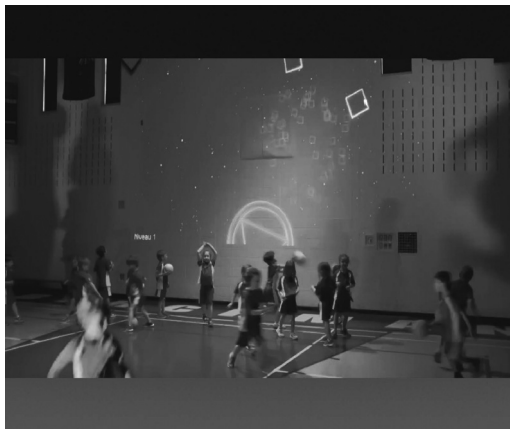
죽고 살고 살리고 죽이고
인간의 욕구를 풀어내는
시간과 공간이 이제 우리의
배움터가 되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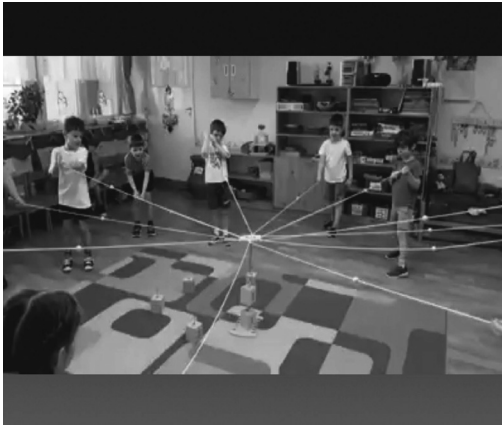
새로운 배움과 가르침 플랫폼



세대별 심장 박동수

- 10대는 220-10(19) * 0.4 = 80~84
- 20대는 220-20(29) * 0.4 = 76~80
- 30대는 220-30(39) * 0.4 = 72~76
- 40대는 220-40(49) * 0.4 = 72~68
- 50대는 220-50(59) * 0.4 = 68~64
- 60대는 220-60(69) * 0.4 = 64~60





life-long learning(평생학습)



언제나 기민하게 흐름을 살피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학습하는 자세와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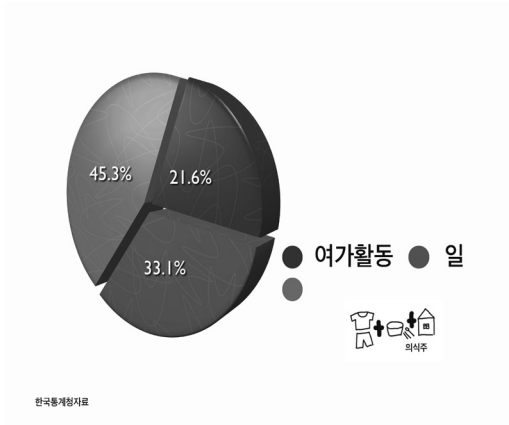
생태적 삶을 통한
농도상생공동체만들기

먹거리	음식	삶원리	몸	미
농부	요리사	교사	의사	예술가

마을삶교육시스템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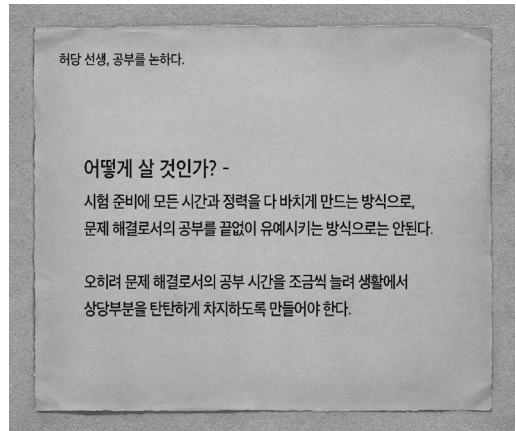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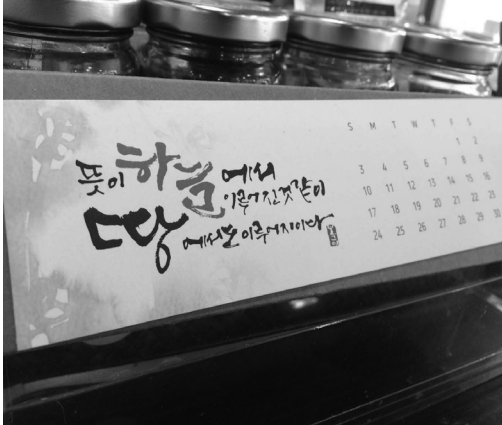
삶 문제 해결력 키우기





죽음

살림



퍼펙트 스톰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개별적인 기상 현상들이 겹쳐져 물리적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한꺼번에 만났을 때 나타나는 높이 30미터짜리 거대한 파도를 말하는 것으로 100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나는 파괴적인 자연현상이다.

삶 문제 해결력 키우기

텍스트(메세지/사람)읽기
마을삶교육시스템 만들기
삶 문제 해결력 키우기



소금통에 갇혀 있는 한국교회

교회가 만날 미래

목사 김종수 함께-사누는교회 / 에듀윌 코이노니아